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8,760시간의 기록**

포용과 연대로 함께 성장하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Seongbuk Social Economy Center



# 목차



---

<b>발간사</b>	<b>4</b>
------------	----------

---

## 01

<b>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및 핵심 리더 양성</b>	<b>6</b>
----------------------------------	----------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8
성사경 마이스터학교	32
협동조합 마을학교(상반기)_The SB 차이나는클래스	51
판로지원교육_공공구매진출전략	76
협동조합 마을학교(하반기)_협동할지도	82
성사경 자문단	91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워크숍	102

---

## 02

<b>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b>	<b>108</b>
------------------------------------	------------

성사경 협력사업_함께할 결심	110
성사경 워크숍 1, 2	127
성사경 워크숍 3_성북구 사회적경제 3.0 점프업 토론회	132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140
입주기업 공간자치회	142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	144
네트워크 in & out 이모저모	146

## 03

---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성사경 148

성사경 드림패키지	150
정릉교수단지 정원축제	158
정릉더하기 축제	164
성북문화유산야행	168
사랑나눔연합바자회	170
정릉시장 핀초포테 페스티벌	172

## 04

---

###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 확산 178

성사경 뽀뽀뽀	180
쿵페스타	196
모두의 향연	204
성사경 서포터즈	234

## 05

---

### 성북구 사회적경제 현황 및 센터 소개 238

성북구 사회적경제 현황	240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및 지원정책	242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소개	244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비전 및 2024년도 주요 사업	246
사회적경제 기업 목록	248

---

### 데이터로 보는 2024 성사경 264

---

### 성사경 뽀뽀 릴레이 266

# 발간사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8,760시간의 기록 ‘포용과 연대로 함께 성장하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신 성북구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1년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북구는 사회적경제를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성사경 드림패키지, 성사경 뽀뽀뽀, 사회적경제기업 입주공간 지원사업, 사회투자기금 운영 등 지역에서 협업과 성북만의 상생정책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 예산지원 축소로 인해 사회적경제는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연대체계 강화를 이끌어오던 사회적경제가 재정적 한계라는 근본적인 취약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이어온 성북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북이 이룬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되새겨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작이 바로 ‘포용과 연대로 함께 성장하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록물 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냉혹해지는 환경에서 성북구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성북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며, 지난 1년간의 발자취가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에 함께해주신 성북구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보이지않는 곳에서 늘 고생하시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박진갑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4년 12월  
성북구청장 이승로

---

01

#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및 핵심 리더 양성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성사경 마이스터학교

협동조합 마을학교(상반기)\_The SB 차이나는 클래스

판로지원교육 공공구매진출전략

협동조합 마을학교(하반기)\_협동할지도

성사경 자문단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워크숍

# 1.1

##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 역량과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합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의 단단한 성장과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실무 교육으로, [회계편]과 [마케팅편]으로 구성했다.

# 개요

## 일시

2024.05.02(목) ~ 05.30(목) 19:00~22:00

## 장소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 교육 프로그램

구분	일시	내용	강사
특강	2024.05.02.(목) 19:00~22:00	SVI 이해와 활용전략	황유덕 협동조합소셜랩 이사장
1강	2024.05.09.(목) 19:00~22:00	알고 내는 세금(세무회계)	김진숙 (주)케어유 전문위원
2강	2024.05.16.(목) 19:00~22:00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재무회계)	
3강	2024.05.23.(목) 19:00~22:00	온라인 기업 홍보의 핵심, 블로그 마케팅	장재영 (주)에이씨엔디씨 팀장
4강	2024.05.30.(목) 19:00~22:00	진짜 고객과 만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김가희 에듀러블 대표

# 특강

## SVI 이해와 활용전략

2024.05.02.(목)

협동조합소셜랩 이사장 황유덕

### CHECK POINT

---

#### SVI(사회적가치지표)의 배경과 최근 동향

-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 측정의 중요성 및 정책 동향
- 최근 2년간 측정 동향, 전국 SVI 측정 현황, 적용 사례, 재정지원, 인증평가 등



#### SVI 측정 프로세스 및 활용 전략

- 2024년 사회적가치 측정 프로세스 측정 후 기업 성장 예시를 통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과 전략에 대해 소개



#### SVI 측정기준 및 준비 방법

- SVI 총 14개의 주요 내용
- 지표별 측정기준 및 작성 방법, 증빙서류 제출 방법



## 1.1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최근 몇 년 사이 아주 핫한 감자로 떠오른 'SVI(사회적가치지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SVI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계  
시는 황유덕 이사장님(협동조합소셜랩)을 어렵사리 강사로 모셨  
다.

강의는  
첫째, SVI의 배경과 최근 동향  
둘째, SVI 측정 프로세스와 활용 전략  
셋째, SVI 지표 설명과 준비방법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강의는

첫째, SVI의 배경과 최근 동향

둘째, SVI 측정 프로세스와 활용 전략

셋째, SVI 지표 설명과 준비방법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최근 SVI가 핫이슈로 떠오르게 된 배경으로는 지난해 정부가 발  
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 방향을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활동 지원  
으로 체제를 변경하여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을 차  
등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일부 판로지원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  
의 경우 SVI 우수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점차 확대  
될 예정이다. 특히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  
업은 SVI 측정이 필수라고 한다.

이어지는 강의 주제는 SVI 측정 프로세스와 활용 전략이다. '점  
수 안나오면 신청하지 말까?' 고민 말고,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측정 점수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고,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완점을 알게되어 다음을 준비하는데도 유리하다.

3시간 내내 집중 또 집중!

다음 주제는 SVI 지표별 설명과 준비 방법이다.

지표 1번부터 14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항목별로 어떤 서류  
를 준비해야하는지 살펴보았다. SVI 측정은 철저히 증거 기반으  
로 이루어지며, 전년도 증빙서류 및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성과는 준비하기 나름이고, 경제적 성과는 재무제표 기반  
이라 경영활동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탁월, 우수기업으  
로 인증받으려면 경영성과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기본 매뉴얼만 보면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은데, 강사님의 구체  
적인 설명과 준비 방법 안내를 통해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확실  
하게 감을 얻게 되었다. 강사님 말씀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및 핵심 리더 양성

측정해 보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강의를 들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평일 저녁, 세 시간동안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자리 지켜주신 기업 대표님~ 이번 강의가 사회적가치지표라는 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탁월 기업 가자앗~!?



# 1강

## 알고 내는 세금(세무회계)

2024.05.09.(목)

(주)케어유 전문위원 김진숙

### CHECK POINT

---

#### 법인에 대한 이해와 회계의 종류

- 법인 제도, 영리·비영리 법인 형태별 특징 및 사업자의 의무
- 정보이용자에 따른 회계 구분(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과 특징



#### 법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 원천징수의 종류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액 산출 방법, 신고, 납부 과정
- 법인세 세액구조와 신고, 납부 방법



#### 재무회계의 중요성

- 법인의 복식기장 의무와 기업 형태에 따른 회계 적용 기준
- 법인의 공시제도와 의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율경영 공시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같이 따라오지요. 세금을 안다면 지혜롭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몰라서 넘어가거나 잘못 신고하면 간단한 일이 매우 복잡해져서 돌아오기도 하죠.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면 세금을 내고도 팬시리 찢절매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은 알고 내고 당당하게 서비스 받자!  
사회적경제 기업 회계 전문가인 김진숙 강사님과 함께 법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첫째, 법인에 대한 이해와 회계의 종류  
둘째, 법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셋째, 재무제표의 중요성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첫째, 법인에 대한 이해와 회계의 종류

법인은 독립된 주체로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법인의 가장 좋은 권리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의무는 법에 맞게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

법인은 사업 후 남은 잉여를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이에 있



되 구성원에 대한 이익 분배가 가능하다.

회계는 정보이용자에 따라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로 구분될 수 있고, 오늘 배울 세무회계는 세금 계산을 위해, 재무회계는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 둘째, 법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법인이 챙겨할 세금은 크게 3가지로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있다.

원천징수는 특정 세목이 아닌 징수방법을 뜻하며, 소득을 지급하는자(기업)가 미리 세금을 떼었다가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신고 납부를 한다. 기업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일용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법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단,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영세 사업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로, 과세표준 세율로 산출한다. 이는 기업 회계 기준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최종 산정하는 '세무조정' 과정에 따라 산출된다.

강의 도중 인상 깊었던 점은 '기부금'이었는데, 지정기부금 정말 많이 받을거 아니라면 관리가 어려우니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한다. 모든 것에는 증빙이 따르는 법이기에...

더불어 절세를 하는 방법을 공개해주셨는데 결론은 절세할 생각 말고 적격증빙을 챙기자~~

제때 신고해서 가산세 안내기, 그리고 모두 사업 번창해서 세금 많이 내기!

## 셋째, 재무회계의 중요성

단식부기는 현금 흐름만을 기재하지만, 복식 부기는 현금과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모두 기재하기에 기업 활동이 보인다. 법인은 복식기장 의무와 회계 기준에 따라야 하며, 경영진은 이를 투명하게 작성하고 공시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시 재무제표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인 '사회적가치 실현'이 실행됐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체 법규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사업 운영 수준을 볼 수 있기에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면 조합원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한테 교육을 하거나 돈을 써야 한다! 꼭 돈 들이지 않더라도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같은 교육이 있으면 꼭 보내라"고 강조했다.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질문 타임!

강사님 앞에 질문하려는 분들의 줄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며 정말 기업 대표님들께 오늘 같은 시간이 꼭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다.

어려운 회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쏙쏙 알려주시는 김진숙 강사님 덕분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 2강

##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재무회계)

2024.05.16.(목)

(주)케어유 전문위원 김진숙

### CHECK POINT

---

#### 재무제표의 구성과 흐름 이해

- 기업 공통 언어로서 회계와 계정과목, 복식회계에 따른 장부 기록(기장)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이해, 실제 통장 내역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과정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기장 방법



#### 법인과 세무대리인 간 효율적 소통 방법

- 매월 발생하는 장부의 기록, 재무제표 작성 항목, 기업의 회계 및 세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효율적인 관리 방법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 조합의 회계업무

- 협동조합 고유회계(법정적립금, 지분환급금, 배당), 사회적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 처리 등 기업 형태별로 발생하는 회계 이슈와 관리 방안



재무제표만 봐도 기업의 운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알지만, 낮은 회계와 계정과목으로 머리가 아파 대부분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 재무제표의 구성과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 세무기장 대리 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시간에는

첫째, 재무제표의 구성과 흐름의 이해

둘째, 세무기장 대리 시 효율적인 소통 방법

셋째, 우리 조직에 맞는 회계업무와 관리사항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뤘다.

---

## 첫째, 재무제표의 구성과 흐름

기업의 공통 언어인 회계는 이미 1400년대부터 사용되었다. 회계는 기업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도구로서, 기업은 회계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믿을 수 있는 경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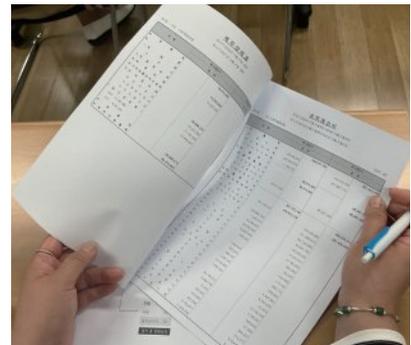
기업 활동을 잘 표현하는 계정과목과 아닌 계정과목들을 살펴 보면서 왜 재무제표만 보면 운영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건지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경우,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표현하면 협동조합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

## 둘째, 세무기장 대리 시 효율적인 소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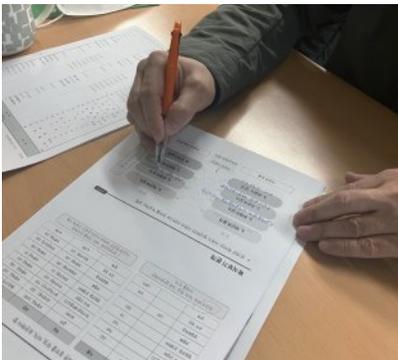
회계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기업의 사업과 활동을 명확하게 소통하고, 민감한 이슈가 있을때 터놓고 상담하는게 필요하다.

기업의 회계처리 과정과 결산마감은 거래발생 - 복식분개 - 마감- 재무제표 산출로 이뤄지는데, 기업은 거래가 기록되는 통장



과 거래시 발생하는 모든 증빙서류(적격증빙)를 잘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통장은 주거래통장과 운영비(체크카드) 통장으로 나눠서 사용하는게 좋으며, 특히 운영비 통장은 일정 잔고를 유지시키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매월 비용의 크기와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다고 한다. 더불어 통장 내역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미리 메모를 남겨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보다 정확한 회계가 가능하다고 한다.



---

### 셋째, 우리 조직에 맞는 회계업무와 관리사항

국고보조금을 받을 경우 허상의 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상계처리가 필요하다. 회사의 업종이 잘 표현되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거나 추가로 만들어달라고 해도 좋다. 또한 협동조합 지분 환급금의 경우 지분 환급 범위를 미리 논의 하는게 중요하다.

이번 강의를 계기로 숫자가 수상한 언어로 보이지 않고 슬기롭게 기업의 관리 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3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참 배울 것이 많았다는 피드백이 대부분이었다. 앞으로 기업의 회계를 관리하고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을 잘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3강

## 온라인 기업 홍보의 핵심, 블로그 마케팅

(feat. Chat GPT)

2024.05.23.(목)

(주)에이씨엔디씨 팀장 장재영

### CHECK POINT

---

####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 블로그 마케팅의 이해

- 블로그 마케팅의 특징과 개념, 블로그 주제 선정, 블로그 비즈니스 모델 단계별 전략과 다양한 블로그 마케팅 사례



#### 블로그 SEO 운영 전략

- 블로그 글 작성 5step, 목표 잠재 고객을 위한 키워드 기획과 분석 등 상위 노출을 위한 블로그 전략과 실행 방법
- 키워드 분석 도구 '블랙 키워' 활용 실습



#### ChatGPT를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

- ChatGPT로 사용자가 원하는 글을 쓰기 위한 설정 및 입력 방법 시연, 실습



기업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인 온라인 마케팅! 그중에서도 특히 블로그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강의는

첫째, 왜 블로그를 해야 할까?

둘째, 상위 노출을 위한 블로그 글쓰기 전략과 TIP

셋째, Chat GPT를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첫째, 블로그를 왜 해야 할까?

B2C 사업을 한다면 블로그는 필수!

내 기업을 소비자와 연결하기 위해선 검색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블로그가 검색엔진 알고리즘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 블로그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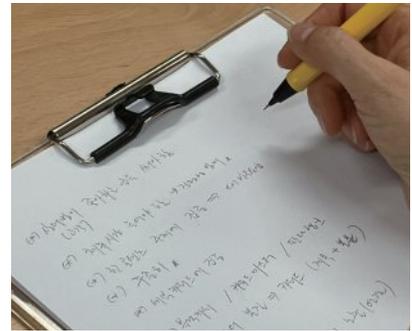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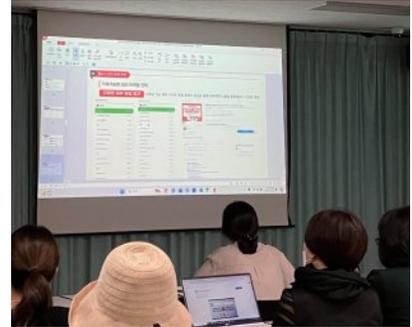
내가 생산한 지식 관련 콘텐츠, 잠재적 고객, 나의 콘텐츠가 지향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블로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은 키워드를 통해 세부 고객을 파악하고 콘텐츠를 분석하여 상위 노출되는 방법을 찾는 것!

블로그의 장점은 유입 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 고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색 키워드와 방문자 정보(성별, 연령대, 유입 경로)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된다.

또한 경쟁사(상위 노출된 블로그)의 게시글을 분석하고, 이를 응용하여 상위 노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고객과 연결점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다만, 상위 노출되더라도 블로그 글에 설득력이 없다면 매출로 이어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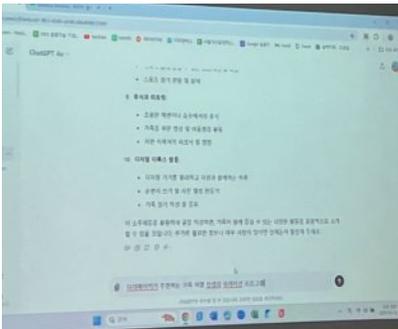
블로그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고객이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것이 핵심이다.



## 둘째, 상위 노출을 위한 블로그 글쓰기 전략 TIP

목표 잠재 고객의 검색 키워드를 구상하는 '키워드 기획'

30개 이상의 '주요 키워드를 선정'한 다음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여 '글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키워드 기획은 '키워드 분석'을 통해 상위 노출되는 글을 쓰기 위한 전략이다.



키워드 분석 도구를 통해 키워드의 검색량, 콘텐츠 발행량, 예상 검색량, 콘텐츠 포화지수, 연관 키워드, 검색 트렌드 등을 알 수 있다.

블로그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위 노출될 수 있는 블로그 글쓰기 전략을 기획한다.

네이버에 내 콘텐츠를 상위에 노출 할수 있는 진짜 방법~!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의 콘텐츠 분야에 집중하여 오랫동안 글을 쓰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글'을 쓰는 것이 상위 노출 확률이 높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상위 노출 기술보다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내 블로그에 체류할 수 있을 만한 글을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SEO) 전략을 세우고 검색엔진이 좋아하는 = 높은 품질의 콘텐츠 =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은 블로그 글쓰기 방법을 배워보았다.

무작정 글을 쓰는 것보다 방문자가 찾는 정보의 수요에 맞는 글 쓰기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셋째, Chat GPT를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

블로그의 본질은 키워드! 인스타에 해시태그가 있다면, 블로그의 키워드는 '제목과 본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은 이제 ChatGPT에게 맡겨두고 기업이 진짜 해야 할 일은 키워드를 기획하고 AI가 작성한 글을 가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ChatGPT는 만능이 아니다. 내 맘에 드는 글을 AI에게 요청하려면, 먼저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블로그 작성을 위한 소주제를 물어보고 그 중 맘에 드는 소주제를 선택한 다음 글쓰기를 시켜야 내 맘에 조~금이라도 드는 글이 나오게 된다.

성사경 성장 아카데미 3강을 통해 온라인 홍보의 핵심인 블로그 마케팅이 필요한 건 알지만 '왜' 필요한지,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블로그 마케팅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밤 10시, 늦은 시간까지 열강해주신 강사님과 열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3강 참여자 후기

AI를 활용해서  
쉽게 블로그 작성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ChatGPT 활용이 가장 인상적이  
었고, 블로그 작성!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 사례를 같이 실습해보는 점  
이 좋았고, ChatGPT에 대한 프  
롬프트 작성 예시가 있어서 이해  
하기에 더 수월했습니다.



# 4강

## 진짜 고객과 만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2024.05.30.(목)

에듀러블 대표 김가희

### CHECK POINT

---

#### 인스타그램 성공 법칙

-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머스 과정, 성공 사례
- 잠재 고객 구매 여정, 2024년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분석, 성공적인 인스타그램



#### 사회적경제 기업에 맞는 브랜딩 설계

- 비즈니스 목적 설계, 벤치마킹 대상 분석, 차별화된 컨셉 기획 방법
- 구체적인 콘텐츠 전략 구상 방법과 실행 방법(인스타그램 프로필 구상)



#### 운영 방법

---

####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실습

- 인스타그램 최신 숏폼 플랫폼 '릴스'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과 사례
- 릴스 제작 노하우(기획, 촬영, 편집, 소통)와 영상편집 어플 '캡컷'을 활용한 실제 릴스 제작 실습



SNS 사용율 1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범람하는 콘텐츠 속에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배민 아카데미, 찐 인플루언서(팔로워 9만) 김가희 강사님과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파헤쳐 보았다.

강의는

첫째, 인스타그램 성공 법칙

둘째, 사회적경제 기업에 맞는 브랜딩 설계

셋째,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첫째, 인스타그램 성공 법칙

SNS로 돈을 버는 시대, 'SNS에서 화제가 되는 메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라는 설문조사에 10명 중 9명이 '꼭 먹어보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먹고 싶다'고 응답했다.

인스타그램 콘텐츠 하나로 하루 아침에 소위 '떡상'하여 대박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객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고객 구매 여정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인스타그램 성공 법칙은 바로 ~~ 명확한 주제, 콘텐츠, 공감 반응! 명확한 타겟팅과 꾸준한 콘텐츠 업로드!! 공감 반응을 보인 고객과의 찐소통!!!

고객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설득 되는데, 고객 이전에 우리끼리 먼저,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 간에 좋아요, 응원 댓글 등 서로를 응원하는 공감반응을 달아주며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둘째, 사회적경제 기업에 맞는 브랜딩 설계

모두를 타겟으로 한다 = 누구도 타겟이 아니다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타겟팅(연령, 성별, 지역 등)이 우선!

성공적인 콘텐츠 기획 전략을 위한 4 Step :

비즈니스 목적 파악 - 벤치마킹 대상 분석 - 차별화된 컨셉 기획

- 구체적인 콘텐츠 전략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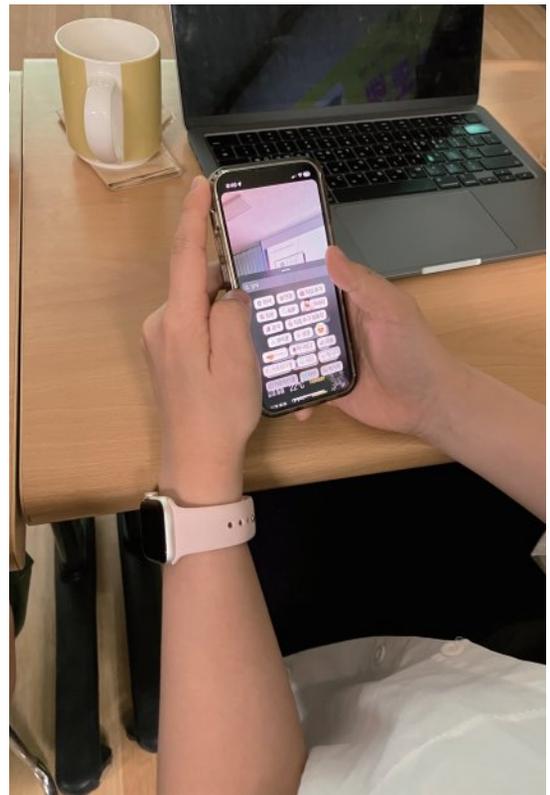
그 중에서도 특히 벤치마킹 대상 분석이 중요하다.

단기/장기 목표 벤치마킹 계정을 찾아 배울점을 찾는다. 예를 들어 참여도, 공감반응, 업데이트 빈도수, 사진 구도 등이 있다.

피드 업로드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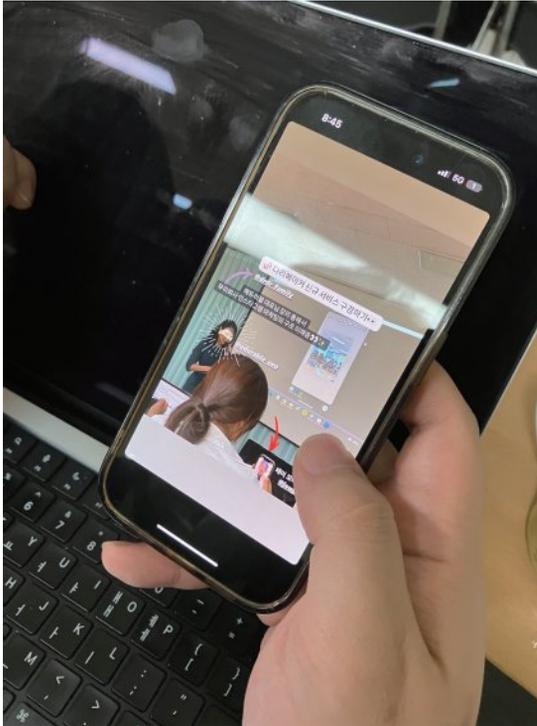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의 시간대가 중요하다. 출근 전이나 밤에 주로 SNS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 고객에게 적합한 시간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스타그램은 올린 '즉시' 반응이 중요!



어느 시간대에 올린 콘텐츠의 반응이 좋은지 잘 살펴봐야한다.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직접 피드를 올리는 실습도 해본다.

"SNS를 통해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유일한 것은 오로지 꾸준함!



1.1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4강 참여자 후기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나  
릴스제작에 대한 컨셉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3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유용한 시간 감사합니다.



진정성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실전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기획과 홍보에 대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꾸준함', '시작' 해볼게요.  
적용시키고 실습해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예시와 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너무 좋았습니다.



#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 만족도 평가



### 1. 참여자 피드백

#### 특강 | SVI 이해와 활용전략

- 올해 바뀌는 지점들을 먼저 체크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좀 더 자세히 더 듣고 싶다
- SVI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협동조합 다음 전략에 도움이 되었다
- SVI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 SVI 신청 기업들 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자료공유 하였다는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향후 SVI 신청 기업 간 공유의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점을 꼭 집어서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1강 | 알고 내는 세금(세무회계)

- 강사님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 현재 조합의 현실적인 부분을 잘 파악해서 개선하고 싶다
- 머리 아픈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의 나를 위해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어 감사했다
-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 기본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궁금한 내용도 해결되었다. 감사합니다
- 회계 초보인데 쉽고 유익하게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임직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재무회계 공부가 필요하겠다고 느껴졌어요
- 재무제표를 알고 싶지만 회계라는 것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해도가 생겨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2강 |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재무회계)

- 어려운 회계 부분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법인이 되겠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 재무제표 기초지식이 쌓인 것 같습니다

- 막연하고 어려웠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심
- 이번 교육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기본인 정관과 회계의 중요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재무제표 기본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좀 더 세부적으로 깊게 배우고 싶습니다
- 처음 듣는 강의로 강사님의 자상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려웠다. 다시 한번 더 들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했습니다!
-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재무제표를 쓰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

### 3강 | 온라인 기업 홍보의 핵심, 블로그 마케팅(feat. Chat GPT)

- AI 활용 부분이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 실습 적용사례를 같이 해보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Chat GPT 프롬프트 작성 예시가 있어서 이해하기 더 좋았습니다
- 블로그 활동과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전을 활용한 강의였다
- AI를 활용해서 쉽게 블로그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블로그 작성에 Chat GPT를 활용할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 좋은 강의 마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Chat GPT 활용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다음 블로그 작성에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 들어보기는 했으나 깊이 생각지 않았던 것을 좀 더 상세히 들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의미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 좀 더 듣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무지하게 와서 아쉬웠어요. 다음 수업 때는 사전에 공부를 하고 와야겠습니다. 강사님 감사드리며 블로그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

### 4강 | 진짜 고객과 만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스타그램,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나 릴스 제작에 대한 컨셉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 3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유용한 시간 감사합니다
- 진정성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 실전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기획과 홍보에 대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꾸준함' '시작' 해볼게요. 적용시키고 실습해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 여러 가지 예시와 릴스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너무 좋았습니다
- 필요한 부분을 콕콕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 유튜브 강좌도 배우고 싶어요

## 2. 설문 결과 종합

- 2024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총 5강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평균 4.86점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평균 85%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2024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총 5강에 대한 강사 만족도는 평균 4.95점으로, 강사의 전문성과 강의 전달력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 만족)는 100%로 나타났음
- 특히 4강, 2강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각각 5.0, 4.86으로 높게 나온 점을 볼 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와 실무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교육 장소 접근성, 교육장 환경 및 시설, 교육 시간대 적절성은 각각 4.65, 4.79, 4.67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회계, 홍보 등 실무 역량의 필요성과 동기부여를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음

## 3.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총평

- 2024년 성사경 성장아카데미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음
- 현시점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을 분석하여 SVI 특강, 회계, 마케팅 강의를 편성하였고, 강의 현장에서의 호응도와 설문조사 응답을 볼 때 기획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참여자는 해당 실무 영역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1.2

# 성사경 마이스터학교

명확한 사회적 가치와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통해 100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밑거름을 만들고 성북구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를 양성합니다.

100년을 갈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밀은 무엇일까.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100년 기업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의 노하우를 들어보고자 성사경 마이스터학교를 기획했다.

# 개요

## 일시

2024.08.20.(화) ~ 09.10.(화) 10:00~12:00

## 장소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 교육 프로그램

구분	일시	내용	강사
1강	2024.08.20.(화) 10:00~12:00	시민자본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하는 사회혁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성진경 (주)오마이컴퍼니 대표
2강	2024.08.27.(화) 10:00~12:00	Buy&Give, 글로벌 소셜브랜드로 성장해 온 우여곡절 10년!	박중열 (주)제리백 대표
3강	2024.09.03.(화) 10:00~12:00	육천신문의 공공비즈니스, 어떻게 뿌리내렸나	황민호 주간 육천신문(주) 대표
4강	2024.09.10.(화) 10:00~12:00	응원으로 먹고 사는 10년차 기업	오호진 (주)명랑캠페인 대표

# 1강

시민자본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하는 사회혁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2024.08.20.(화)  
(주)오마이컴퍼니 성진경 대표

## CHECK POINT

---

###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과정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 사회적경제 기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인력 부족, 미약한 매출, 자금 부족)
-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업의 존재 목적인 '소셜미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



### 크라우드 펀딩 이해 및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조달 방법

-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와 크라우드 펀딩 유형 소개(기부형,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 프로젝트를 통해 후원·투자를 받는 다양한 방법 소개(시민투자 클럽, 캠페인펀드 등)



### 사회적경제 기업 문제 해결 과정

- 기업 성장단계별(초기, 성장, 현재) 부딪힌 문제와 시행착오, 해결 방법



## 1.2 성사경 마이스터학교



(주)오마이컴퍼니는 2012년 사이트 오픈 이후 2024년 8월 기준 누적펀딩금액 약245억, 누적회원수 약28만명을 기록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다. 세월호 기억팔찌 나눔 펀딩을 진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분명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성 대표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일과 같습니다"

성 대표는 창업을 사막을 여행하는 것에 비유했다. 창업이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길이 없는 사막을 나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힘들지만, 여행처럼 행복하고 즐거워야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나아가기만 하면 될까? 그건 아니다.

"소셜 미션이 나침반이 되어야"

길이 없는 사막을 건널 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나침반이고, 나침반의 바늘이 알려 주는 대로 따라가야 사막을 건널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나침반은 소셜미션이다. 소셜미션이라는 나침반이 있기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 보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소셜미션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멀리, 더 오래 나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버티기가 가능해진다.

"3년 이상 버티면 어쨌든 그 기업은 되게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 때쯤이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누군가가 도와주러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 먼저 3년을 버텨 보세요. 그렇다고 그냥 버티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버티시라는 거죠."



성 대표의 강의를 듣는 참석자들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다. 창업을 사막을 건너는 일에 비유하며 시작된 강의는 어느덧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성장기에 다다랐다. (주)오마이컴퍼니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 방법이 아낌없이 공개되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걸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 정리를 해보시면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더 명확해 집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성 대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주)오마이컴퍼니는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곳'

에 돈이 가는 것에 주목했다. 이로 인한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곳'에 시민 자본을 연결했다.

"우리의 활동이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오마이컴퍼니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이나 개인이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사회적경제 기업가들도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십시일반이에요. 협동과 연대가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성 대표는 성사경 교육장에 붙어 있는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물들다!'라는 글귀를 보며 웃었다.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바로 이 곳!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5층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초창기 5년을 성북구에서 보냈기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강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사막을 다 건너셨냐"는 물음에 성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사막을 건너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형이 바뀌면서 사막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세 번째의 사막을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 덕분에 지금은 훨씬 잘 건널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고요."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다. 성 대표가 세 번째의 사막을 건너고 있는 것처럼,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님들도 각자의 사막을 건너고 있을까?

성사경의 부지런한 활동이 성북구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님들께 응원과 지지가 당기를 바라며, 4강까지 진행될 <성사경 마이스터학교>에서도 힘이 되는 통찰을 얻어가시기를 소망한다.



# 2강

Buy&Give, 글로벌 소셜브랜드로

성장해 온 우여곡절 10년!

2024.08.27.(화)

(주)제리백 박종열 대표

## CHECK POINT

###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우간다 어린이 물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념 적용한 제리캔백 개발
-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 시장 진입을 위한 과정과 노력
- 우간다 스튜디오 설립, 제리캔백 생산, 지역사회와 상생구조 마련



### 고객의 공감을 얻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방법

- 제리백을 구매하면 우간다에 제리캔백 기부하는 Buy&Give 마케팅 고안
- 소셜 미션을 확대하여 국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Safe&Save 운영



### 소셜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여 지속성 확보

- 기업의 정체성을 캠페인 회사로 정의, 기업과 연결된 국내의 사회 문제 발견
-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빛 반사 키링 개발
- 제품에 담긴 가치에 공감하는 기업·기관의 협업요청으로 B2B 비중 확대





(주)제리백은 전방위로 활동하는 디자인 브랜드로, 소비자가 가방을 하나 구매하면 우간다의 어린이들에게 가방을 하나 기부한다. 우간다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가방은 제리캔이라고 불리는 물 길는 플라스틱 통을 담은 백팩이다. 제리캔백을 맨 아이들은 좀더 안전하게, 좀 더 가볍게 물통을 나를 수 있다.

먼 거리를 위험하게 물을 날라야 하는 아이들의 문제에 주목해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박종열 대표는 그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했다. 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자원이 끊기면 문제는 다시 발생한다. 박종열 대표는 그 지역의 재료로, 그 지역 주민이 물통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만듦으로써 아이들의 노고와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그 지역의 순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공감"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후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개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세요. 아마도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그런 공감을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MZ세대는 일방적인 방식의 기부에 공감을 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방을 하나 사면 우간다 아이들에게도 가방이 하나 기부된다' 라고 하면 MZ세대의 공감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랄까 그런 게 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박종열 대표는 처음부터 'Buy & Give' 형식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고,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 공감을 얻기 위해 지금은 'Safe & Save' 캠페인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간다는 멀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사실 누구한테나 잘 와닿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의 학생들이 등하교 때 스쿨존에서 사고당하는 일이 많다고 하면 와닿잖아요. 빛반사 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전달(기부)하자! 그래서 'Safe & Save'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가치만으로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오래갈 수 없어"

'제리백의 본질은 캠페인을 하는 회사'라는 박종열 대표. 하지만 '

## 1.2 성사경 마이스터학교

가치'만을 내세워서 절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제품을 선택하지 않아요.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다 괜찮아, 근데 이걸 사면 좋은 일도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그 제품을 구매합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진지한 모습이었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창업 이후의 10년을 진솔하게 풀어나가는 박 대표의 이야기에 웃고 또 공감하면서 저마다의 고민을 되새겨 보는 모습들이었다.

"2019년이었을 거예요.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았어요. 우간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몸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호텔방에 혼자 누워 있는데 한순간 회의가 몰려오더라고요. 나는 대체 이 사업을 왜 하나. 매출은 그리 높지 않고 내 몸은 너무 안 좋고 사람들은 우리 제품을 잘 모르고. 아, 우리 사업은 공감을 못 받는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창업한 기업은 늘 고비를 넘는다.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그럴 것이다. 깊게 와닿는 이야기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몰입하였다.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한 시점에 빛반사 소재로 만든 악세서리가 펍수 굿즈로 의뢰를 받게 되면서 회사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매출도 안정화가 되고 'Safe & Save' 캠페인 등으로 소비자들도 더 많은 공감을 하기 시작했다고.

"좋은 취지와 마음가짐만으로는 세상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기업가는 아무도 없잖아요. 의지, 열정, 사회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랫동안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사실 그걸 아주 늦게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Buy & Give, 글로벌 소셜 브랜드로 성장해 온 우여곡절 10년'이라는 강의 주제답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참석자들의 공감도 깊게 이끌어내는 것 같았다.

"90%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사실 90퍼센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일을 하면서 그 90%의 사람들도 저희 영역 안으로 흡수를 해야 하잖아요."

사회적경제는 성장 제일주의를 앞세우고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결과 나타나게 된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라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를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표의 말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강의를 같이 듣는 성사경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비즈니스는 사실 네트워크예요. 소비자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한 번 사 보고 좋아서 계속 구매하는 것,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소비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팽수 굶즈처럼, 저희가 기업과 진행하는 콜라보레이션도 어디서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과도 저희가 관계를 그렇게 맺어나갈 수 있죠."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기분 좋게 체험하는 것,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업적으로도) 서로 네트워킹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좀 더 넓게, 그리고 깊게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뭘까. 깊어지는 생각 속에서 어느덧 강의는 마무리되고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진솔했던 강의 분위기답게 공감과 격려가 오가는 질의 응답 시간이었다.



# 3강

## 옥천신문의 공공비즈니스, 어떻게 뿌리 내렸나

2024.09.03.(화)

주간 옥천신문(주) 황민호 대표

### CHECK POINT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 1989년 군민주(郡民株) 방식으로 지역 언론 옥천신문 설립
- 명확한 소셜 미션,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 저널리즘 원칙 준수, 노동조합 운영



#### 소셜 미션에 기반을 둔 차별적인 비즈니스 운영

- 광고보다 구독료 비중을 높여(50% 이상) 풀뿌리 언론으로서 독립성과 경쟁력 유지
- 성역 없는 취재,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국 최초 인터넷신문 유료화



#### 30년 간 지역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

- 주민의 모든 이야기를 취재하는 커뮤니티 저널리즘, 공론화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 확보
- '로컬미디어시티 옥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로컬 기업·언론인 육성 등 지역사회 생태계 성장에 기여



옥천신문은 1989년 옥천군민 222명이 주주로 참여해 자본금 5,000만원으로 창간했다. 현재 옥천군 전체 가구의 약 20%가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 '대박' 신문이다. 35년째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려 온 비결을 듣는 그 현장으로 가보자.



매주 금요일 발행되는 옥천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만원이다. "금요일에 신문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전화하고 난리예요. 새벽부터 기다려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배달된 걸 훔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볼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탄탄한 구독층을 유지하고 있는 옥천 신문의 비결은 무엇일까? 황 대표는 먼저 언론의 중요한 기능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옥천신문이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꼽았다.

"건강한 언론 없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옥천에서는 의원 간담회, 임시회, 정례회 등 의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기자가 들어갑니다. 의원들이 하는 말을 속기하듯이 거의 빠짐없이 적고 주민들이 읽기 좋게 잘 가공해서 기사를 내요. 매주 금요일이면 주민들이 편하게 신문을 받아보면서 내가 뽑아준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나 어떤 사업이 펼쳐지나 이런 것들을 낱낱히 읽어봅니다.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의원실에 전화도 하고요."

옥천군민들은 옥천 신문을 읽음으로써 옥천 의회가 하는 일을 알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투표날에만 이벤트로 내가 '주권자'임을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역의 민주주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이 언론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기가 어려워요. 언론사의 재정을 누가 지배하고 있고 그 수익을 어디서 벌어들이나가 그 언론의 논조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옥천신문은 옥천군민이 주주로 참여해 창간했고, 지금도 군민이 직접 내는 구독료가 전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군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가치와 의미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어"

지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 그러나 황 대표는 가치와 의미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번 후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돈을 계속 내려면 나한테 필요해야 합니다." 지난 2강에서 (주)제리백 박종열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소비자들은 사회적 가치만으로는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기능과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드는데, 사회적 가치까지 있을 때 구매한다.

힘있는 황 대표의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완전히 빠져든 모습이였다. '옥천신문의 공공 비즈니스, 어떻게 뿌리내렸나?' 강의는 옥천신문만의 특별한 노하우 방출로 이어졌다.

"주민의 필요에 복무해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옥천신문은 주민에게 필요한 기사를 신는다고 한다. 그게 뭘까? 황 대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뉴스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문제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공론화해 해결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어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신문에 담깁니다. '우리 반 탐방'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회장들도 인터뷰를 하지요."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떤 가게가 개업을 하면 취재를 갑니다.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행운목에 꽃이 피었어요. 우리 집 개가 새끼를 12마리나 낳았

어요, 구경오세요. 이런 제보들도 다 뉴스거리가 됩니다."

군민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신는 옥천신문은 넷플릭스의 구독률을 이겼다고 한다. '매주 지역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황 대표. 가치와 의미가 어떻게 지역으로 파고들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커뮤니티 저널리즘'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솔루션 저널리즘'이다. "옥천군민들은 군청에 가고 경찰서에 가도 해결되지 못하는 걸 신문에 가져옵니다. 옥천신문에 실리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수영장도, 개봉 영화관도 옥천신문에서 공론화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신문에서 여론을 모아내면 힘이 실린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나 영화관 외에도 옥천신문은 비교적 사소한 보이는 일에도 귀를 기울인다. "남편이 장애인이라 휠체어를 타는데 산책로가 끊어져 있는거예요. 고쳐달라고 해도 돌아가라고만 하고, 돌아가려고 해도 그 앞에 식당이 있어서 주차해 둔 차 때문에 휠체어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취재를 해 보니 그 주차장은 군유지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기사를 쓰자마자 산책로가 이어졌습니다."

"안남리 덕실리 주민들이 태양광 난개발에 천막치고 투쟁할 때에도 옥천신문이 계속 보도하면서 철회가 됐습니다." 옥천신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옥천군민들은 자주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이렇듯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 옥천신문이지만 황 대표는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역에 살면서 기자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사로 인해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무리 친해도 리더에 잡히면 무조건 기사를 써야 합니다. 저 때문에 그 사람이 파면되기도 하죠. 그래도 씁니다. 빼주시 시작하면 바로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요."

"활동가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기자이지만 활동가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고 황 대표는 말한다.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는 다시, 가치와 의미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에 대한 강조로 되돌아갔다. 지속가능한 비

즈니스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치열하게 시도해 보는 동기는 사회 변화에 대한 신념과 사명감일지도 모른다.

강의는 꽤 긴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지속가능한 지역언론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물었고, 강사는 경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로 답했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고, 대표로서 조직구성원들을 어떻게 다독이는지 그 방법을 묻기도 했다. 아낌없이 경험을 나눈 황 대표가 인상적인 맺음말로 강의를 마쳤다.

"우리는 지금 옥천신문이라는 배를 타고 옥천이라는 공동체의 바다를 향해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바다가 썩지 않도록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옥천에 한 번 놀러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옥천신문의 노하우는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아주 구체적이고 특수하면서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에 참석자들은 생각이 깊어진 얼굴이었다.



# 4강

응원으로 먹고 사는 10년차 기업

2024.09.10.(화)

(주)명랑캠페인 오호진 대표

## CHECK POINT

### 공공캠페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 운영

- (주)명랑캠페인의 비즈니스 구조 : 소셜 캠페인, 소셜 브랜딩, 소셜 콘텐츠
-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만원의 기적 콘서트', 미혼모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입법연극 '미모되니깐', 독거남 자립 '나비남 영화제' 등 소셜캠페인 운영



### 소셜 미션을 알리기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홍보 방법

- 자립준비청년 응원 <비바씨 캠페인>과 함께 당사자 커뮤니티 운영
- 인스타그램 제작-전시회 운영-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캠페인 확대
- 자립준비청년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캐릭터 상품 개발



###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

- 뮤지컬 제작사와 협업을 통해 뮤지컬 배우와 콜라보한 캠페인 상품 출시
-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뮤지컬 배우가 쇼호스트가 되어 상품 판매와 캠페인 홍보 병행



## 1.2 성사경 마이스터학교

2023년 흥행한 드라마 '더 글로리'의 명대사 하나를 먼저 옮겨 본다. "난 매 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주인공 동은의 조력자 현남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이지만 명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명랑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딸을 구원한다.

드라마를 본 어떤 사람들은 물었다. 현남은 왜 때리는 남편에게서 도망가지 않느냐고. '더 글로리' 속에는 도망갈 수 없는 현남의 서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랑하기를 멈출 수 없는 현남의 꿈과 희망이 있다. 매맞는 아내로서, 공권력도 가족도 구해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현남은 사회적 약자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을 당했던 주인공 동은도 공권력이나 가족이 구해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적 약자였다.

동은과 현남은 연대한다. 현남의 명랑함은 동은을 응원하며, 동은은 현남 앞에서 처음으로 웃는다. 진심으로. 명랑한 응원의 힘이 이렇게나 크다.

여기, 무려 10년 전부터 그 응원을 명랑하게 진행해 온 사회적기업이 있다. 바로 (주)명랑캠페인이다.

(주)명랑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캠페인을 진행한다. 사회적 약자를 응원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 미혼모 입법캠페인 '미모되니깐'을 전개하여 2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의 독립과 성장을 응원(VIVA)하는 캐릭터를 개발해 소셜캠페인 및 캐릭터상품 제작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오호진 대표는 원래 영화사에서 일했다고 한다. 조승우 주연의 영화 말아톤(2005년)이 그가 기획한 작품이다. 국내 개봉에서만 500만 이상 관객 동원으로 2005년 상반기 최고의 흥행 성적을 올렸다. 그는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20대를 영화 기획에 매진한 오대표는 30대에는 공연 기획자로 변신하여 베네수엘라의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빈곤층 아이들의 음악교육과 자립을 위해 출범한 오케스트라 '엘시스테마'. 오호진 대표는 처음에는 그 일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묵는 호텔에서 만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애들이 뷔페



를 다 쓸어간다고. 리허설 때 음식을 쌓아두면 10분도 안 되어서 초토화가 돼요. 애네들이 먹으러 왔나 싶었어요. 근데 공연을 보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아이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정말 좋았거든요."

음악이 가난한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다.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꾼다. 오호진 대표는 이때 문화예술이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

"문화예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일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회적기업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명량캠페인이 진행한 캠페인은 굵직한 것만 따져도 꽤 많다. 미혼모, 경계선지능 청소년, 50대 독거남들을 위한 소셜 캠페인을 비롯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서행 캠페인도 진행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미혼모 입법캠페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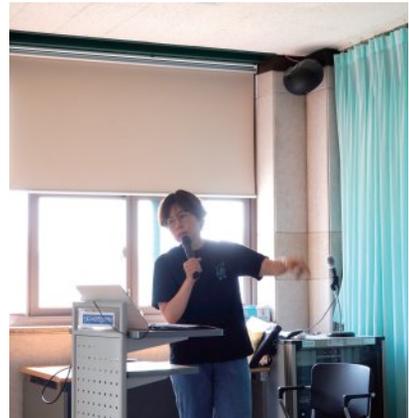
"미혼모시설에서 그 친구들을 처음 만났어요.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15살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놀자고만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극으로 만들어보자 했죠."

"'미모되니깐' 연극이 반응이 좋았어요. 이 반응으로 뭔가를 바꿔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진짜로 뭔가 해결하려면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연극에 국회의원을 초대하고 그 모습을 보도자료로 뿌리고 매주 국회로 찾아가고 '한부모의 날' 축제도 벌이고. 오호진 대표는 기획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완전히 올인했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주)명량캠페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상도 많이 받았다고.

이렇듯 문화예술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주)명량캠페인은 계속 확신으로 쌓아 나간다. 환경미화원 안전 캠페인,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50대 독거남들의 '나비남' 영화제 등.

"영화라고는 하지만 5분짜리, 2분짜리 영상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관객들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나비남들이 조금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제를 하면서 이분들이



다 자립에 성공하셨어요.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취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10년, 20년씩 단절했던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명랑캠페인은 응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도 바꾸고, 일반 대중의 인식도 바꾼다.

"그럼 돈은 뭘로 벌어요?"

(주)명랑캠페인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오호진 대표는 웃었다. "저희가 진행하는 캠페인들을 보고 연락이 많이 와요. 우리 캠페인도 좀 해 달라고. 그걸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행사도 잘하겠네 해서 콘서트나 축제도 기획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성과를 보고 브랜딩 사업을 또 하게 되었고요."

단 한 번도 적자를 내 본 적이 없다는 (주)명랑캠페인. 오호진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간 옥천신문(주) 황민호 대표가 생각났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는 주간 옥천신문은 자생하기 위해 '커뮤니티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 등 주민의 필요에도 복무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금 (주)명랑캠페인은 수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진행하던 외부 소셜캠페인, 그리고 공연 행사 등의 기획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캠페인에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 싶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만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일컫는다. 미혼모들을 위해 연극을, 50대 독거남들을 위해 영화제를 만들었던 오호진 대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시도했으나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모델로 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고 있고요. 매주 새로운 상품이 나와요. 뮤지컬 배우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배우가 직접 그린 그림이나 메시지를 이용해 제작한 상품을 팔아요. 자립준비청년들을 소개도 하고요. 배우의 팬분들이 같이 동참해주면서 우리 제품이 팔리고 우리 가치가 확산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 오 대표는 말한다. 그 많은 캐릭터 상품 중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잘 팔린다고. 문득 (주)제리백 박종열 대표의 말이 생각났다. 사람들은 가치만으로는 절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캠페인을 하니까 기부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지만 기부 단체를 소개해 드려요. 저희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박종열 대표는 후원이나 기부는 지속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오호진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일회적인 동참은 단지 그때 뿐이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갈 수 있다. 가치만을 외쳐서는 절대 지속될 수 없다. 단 한번의 후원과 단 한번의 기부, 그리고 단 한번의 구매는 가능하지만 그뿐이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의 비전으로 어떻게 고객과 만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 혁신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게 아닐까.

그 위대한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에게 성사경도 응원을 보낸다.

# 성사경 마이스터학교 만족도 평가



## 1. 참여자 피드백

### 1강 | 시민자본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하는 사회적신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예시를 들어 강의해주셨음
- 펀딩, 동네 클라우드 펀딩
- 클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에 공감합니다. 전문가의 강의 좋았습니다
-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팁이었다
- 사회적기업 1세대의 성장 과정을 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사회적경제와 소셜 미션을 지닌 기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막을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한번 걸어가지요
- 2018년 이후 본인 체험을 위주로 사업에 반영하신게 인상적이었습니다.

### 2강 | Buy&Give, 글로벌 소셜브랜드로 성장해 온 우여곡절 10년!

- 편안함과 솔직함, 동감
- 사회적 가치나 가치소비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된 시간이었다
- 사회적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점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쉽게 풀어주셔서 듣는 귀가 즐거웠습니다
- 디자이너로 사회적기업 만들면서 하셨던 경험들이 공유되어서 좋았습니다
-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일치시키면서 사업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 히스토리를 들어서 좋았어요

### 3강 | 옥천신문의 공공비즈니스, 어떻게 뿌리내렸나

- 공동체와 공공성의 차이, 솔루션 저널리즘, 커뮤니티 저널리즘
- '풀뿌리 언론'이라는 생소한 언론에 대해, 진정한(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해 알게되서 좋았습니다.
- 옥천 지역 안의 특수성과 대중성으로 나가는 방향이 좋았습니다
- 지역 언론이 35년을 유지하고 주민을 기반으로 지역의 중심에 서서 풀뿌리를 강화 시키고 있다는 점 감동입니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 있기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살만해지지 않나 싶음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 공동체에 공공성이 없다면 문제!
- 지역문화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 대표님의 업에 대한 강한 확신과 추진력이 인상적이었다
- 지역에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 너무 좋았습니다
- 많은 가르침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 협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 옥천신문 황민호 대표의 열정에 파이팅
- 풀뿌리 언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4강 | 응원으로 먹고 사는 10년차 기업

- 한줄 컨셉, 반복 전달, 목표를 세워야 일을 하는 사람
- 기업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말의 힘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님의 애정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대표님께서 명랑캠페인의 시작부터 우여곡절까지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주셔서 빠져들듯 들었습니다
-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전국구 사회적 활동가를 만나고 싶어요
-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 캠페인으로 사회적 가치와 이윤까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 소외계층의 애로점을 알려 건전한 사회 국가로의 길을 알려주는 건강한 강사!

## 2. 설문 결과 종합

- 2024 성사경 마이스터학교 총 4강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평균 4.8점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평균 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강의 내용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된 것, 지역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시스템을 알게 된 점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5점, 4.93점으로 높게 나왔음.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참여 기업의 비즈니스를 점

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강사 만족도는 평균 4.9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강사의 전문성과 강의 전달력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 만족)는 100%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볼 때, 강사의 기업가 정신과 태도에 강한 인상을 느꼈으며, 각 분야의 비즈니스 전략(자금조달, 제품개발, 로컬, 문화콘텐츠)을 알게 된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냄

### 3. 성사경 마이스터학교 총평

- 성사경 마이스터학교는 명확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통해 100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밑거름을 만들고 성북구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자 기획함
- 사회적경제 리더로서의 성장을 위해 현재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대표의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강의 현장에서의 호응도와 설문조사 응답을 볼 때 기획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참여자의 고민을 해소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 소개받을 수 있었음.

## 1.3

# 협동조합 마을학교 (상반기)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

성북구에서는 매년 협동조합 마을학교를 통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행사의 기획·홍보·마케팅 등 기업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구성원은 물론, 관련 기관 및 단체, 소상공인, 성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최고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와 멘토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개요

## 일정

6.5.(수) ~ 6.26.(수) 10:00~12:30

6.21(금) 19:00~21:30

## 장소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 교육 프로그램

구분	일정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강	6.5.(수) 10:00~12:30	마케팅	황인선의 '마음을 사는 마케팅 AI'	강연 황인선 멘토 오동수(기획) 멘토 이은숙(홍보)
2강	6.12.(수) 10:00~12:30	기획	일하는 기획 '제대로 될 일 만들기'	강사 오동수 멘토 오동수(기획) 멘토 이은숙(홍보)
3강	6.19.(수) 10:00~12:30	홍보	홍보는 해야겠는데.... '홍보가 기가 막혀'	강사 이은숙 멘토 오동수(기획) 멘토 이은숙(홍보)
특강	6.21.(금) 19:00~21:30	공간연출	문화행사와 공간연출	강연 유관숙
4강	6.26.(수) 10:00~12:30	솔루션발표	그룹별 솔루션 발표 및 수료식	멘토 오동수(기획) 이은숙(홍보)

# 1강

## 황인선의 '마음을 사는 마케팅 AI'

2024.06.05.(수)



'차이나는 클라쓰'를 보여 줄 협동조합 마을학교 첫 번째 강의는 '황인선의 마케팅 AI'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나아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제일기획, KT&G, 경동나비엔 등을 거치며 문화 마케팅과 상상 콘텐츠 장르를 개척해온 황인선 작가님과 함께 파헤쳐본다.

강의는

첫째, 생각을 바꾸는 글

둘째, 생성형 AI 시대의 글쓰기

셋째, 생각 금고 만들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첫째, 생각을 바꾸는 글

시작에 앞서 뇌 마사지를 하기 위해 제시된 단어로 명문장을 만드는 게임을 진행했다.

배 항구 존재 이유

성인 죄인 미래 과거

- .
- .

배가 항구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지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 괴테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 오스카 와일드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모르던 사실을 깨치게 되는 대가들의 글들은, 때로는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생각을 바꾸는 힘을 가진 글쓰기는 무엇인가?

기존의 통념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움직인 글쓰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업가가 가져야 할 관점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둘째, 생성형 AI 시대의 글쓰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각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AI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기 성찰력'이다. AI가 미칠 어마 무시한 영향력 속에서 AI를 무시하거나 피하기보다는, 잘 활용하기 위한 '자기 생각력'을 높여야 한다.

---

## 셋째, 생각 금고 만들기

"생각력이 중요해!"라고 하지만 생각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낭패'라는 단어가 '낭'과 '패'라는 상상 속 동물이 합쳐진 단어라는 어원을 안다면 다양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은 팩트보다 '말'에 의해 움직인다. 글에는 생각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과거와 현재, 철학자, 기업가, 작가 등 시공간과 인물을 넘나들며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기준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생각력'의 중요성과 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1.3 협동조합 마을학교(상반기)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



# 2강

## 일하는 기획 '제대로 될 일 만들기'

2024.06.12.(수)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일하는 기획 - 제대로 될 일 만들기'다.

전)하동주민공정무역여행 놀루와 실장이자 지역문화축제콘텐츠 연구소 대표이신 오동수님의 미니강연으로 2회차 문을 열었다.

강의는

첫째, 기획이란?

둘째, 기획자의 3P

셋째, 될 일을 만드는 '협력적 비즈니스' 사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첫째, 기획이란?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몇 개의 축제가 펼쳐질까~? 무려 7,000개 라고 한다! 그 중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부가 지정하여 <문화 관광 축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축제는 단 45개!!!

<예비 문화 관광축제>는 75~85개이다.

제대로 된 축제 기획은 무엇일까?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난 30년간 수많은 축제를 기획, 진행,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에 대한 관점과 오해, 훌륭한 기획서의 조건, 기획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

## 둘째, 기획자의 3P

"기획자는 3P로 읽고, 3P로 이야기한다." 기획자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3P는 무엇일까? 바로 Paper(기획서), Place(현장), People(사람)이다. 기획자는 Paper로 말하고 Place에서 자신의 말을 실천해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People과 소통(네트워크) 해야 한다.

"현장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대책이 없으면 현장으로 가서 귀를 열어라"

---

## 셋째, 될 일을 만드는 '협력적 비즈니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될 일을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 관광 최고 영예라 할 수 있는 '2021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었던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줄여서 '놀루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The SB(성북)다음의 문화, 콘텐츠, 협력, 자원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Collaboration', 지속 가능성 결국 '사람'임을 강조하였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해답은 바로 The SB 차이나는 클래스의 하이라이트! 솔루션 테이블에 있다.

---

## 솔루션 테이블 (기획/홍보)

기획의 오동수 멘토님, 홍보의 이은숙 멘토님과 함께 기획/홍보 팀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짚한 대화를 나누었다. 덕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를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 3강

## 홍보는 해야겠는데... '홍보가 기가 막혀'

2024.06.19.(수)

홍보하면 눈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민들~

어떻게 홍보를 해야 주민의 참여를 이끌 어 낼 수 있을까? 어디 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흥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까?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든 스테이 홍보 디렉터이자 전 궁중문화축전 선임피디였던 이은숙 대표님과 함께 홍보 담당자의 고민을 타파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강의는

첫째, 이은숙 대표님이 감독했던 다양한 축제의 기획, 홍보 사례  
툫아보기

둘째,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 담당자가 가져야 할 관점과 홍보  
방법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 첫째,

### 기획자의 관점에서 본 축제 사례

홍보와 기획은 동일 선상에 있다. 다만 <홍보할 때> 가져야 할 '관점'이 중요하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랑계' / 궁중문화축전 / 한강 몽땅 종이배 경주대회 / 서울아리랑페스티벌 등등 듣기만 해도 너무나 익숙하고 굼직한 축제들!

새로운 형태의 축제들을 기획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했던 이은숙 대표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홍보할 때 가져야 할 관점,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

## 둘째,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 담당자로서 부딪히는 다양한 고민들~ 지난 솔루션 테이블 참여자들의 따끈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았다.

홍보 담당자로서, 혹은 홍보 담당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서로 끄덕이고 공감하면서 이은숙 대표님의 답변을 통해 같이 해답을 얻어가는 시간이었다. 홍보에 대한 수많은 번뇌와 고민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홍보 매체 선택, 홍보 기획 과정도 알아보았다.

---

## 솔루션 테이블 (기획/홍보) 우리 함께 솔루션을 찾아봐요!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의 자랑 솔루션 테이블 시간!  
지난 시간에 나는 고민을 리뷰하고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궁리하며 생각과 고민이 무르익는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었다.



1.3 협동조합 마을학교(상반기) The SB 차이나는 클래스



# 특강

## 문화행사와 공간연출

2024.06.21.(금)

### '연출'

하나의 공연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공연의 총체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뜻하는데요. (출처: 두산백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외전시전문가, 지방시대엑스포 연출 감독 유관숙 감독님을 모시고 세계적인 연출의 세계로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 강의는

첫째, 스토리텔링과 공간 연출

둘째, 문화행사와 공간 연출

셋째, 저비용 고효율 연출 사례

넷째, 트렌드의 변화와 적용

크게 네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스토리텔링과 공간연출

### 문화행사와 공간연출

생얼도 멋있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간 연출 또한 그렇다. 먼저 공간 연출을 위한 스토리텔링 접근 방법으로 컨셉과 테마, 특색있는, 동화적 요소, 과학적 상상력, 제스처를 소개해 주었다.

각 요소들이 공간과 결합해 어떻게 스토리를 탄생시키고 메시지

를 전달하는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체의 신비전, 영흥 에너지 파크 여수세계박람회 스위스관 등 케이스별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밀라노, 브라질, 두바이, 영국, 사디아라비아 엑스포부터 국내의 박람회, 축제, 전시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사례를 통해 '공간 연출이란 이런 거구나!' 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저비용 고효율 사례

### 트렌드 적용과 변화

없는 예산으로, 어떻게 공간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아크릴, 패브릭, 철판, 거울, 팔레트, 풍선, 종이, 계란 박스 등 비싼 재료부터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었다.

또한 최근 트렌드 변화에 맞게 행사 운영 시 바로 따라 해볼 수 있는 이벤트 사례들도 배울 수 있었다.

행사와 축제를 통해 무엇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표현할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떻게 공간을 연출할 것인지 모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3 협동조합 마을학교(상반기) The SB 차이나는 클래스



# 4강

## 그룹별 솔루션 발표 및 수료식 2024.06.26.(수)

6월 26일(수) 10시,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2024 상반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 - 4강) 그룹별 솔루션 발표 및 수료식』을 진행했다.

### 그룹별 솔루션 발표

'차이나는 클라쓰'의 하이라이트 <솔루션 테이블>  
기획과 홍보로 나누어 그간 찾은 솔루션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팀은 그룹별로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첫째, '정릉 재개발지역 보물찾기' 프로젝트

재개발로 사라지게 될 지금의 정릉을 추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보물찾기'를 기획하였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기 전, 비어 있는 건물에서 '삶'의 흔적인 보물을 찾고 이곳을 무대로 즉석 벽화와 농악놀이, 춤꾼 대회, 노래자랑을 열어보자는 제안을 담았다. 즉석에서 수거한 솔뚜껑, 냄비, 젓가락 등 삶과 생활의 흔적이 가득 배어있는 물건을 활용한 참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다.



둘째,

## 'The SB Festa' 프로젝트!

성북다움을 보여주는 축제는 무엇일까? 두번째 그룹은 '가족과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간의 기대여명 사용 시간 중(일, 수면, 식사, 외모관리, TV, 미디어, 혼자시간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불과 2.8%, 발표자님 기준으로 단 9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한다. (기대 여명 32.9세 기준) 그래서 성북구에 사는 가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Festa를 기획하였다.

홍보팀은 개인별로 홍보 솔루션을 발표했다. 역할별로 선순위를 정해보고 단기 관점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홍보 방법을 각자 고민하여 발표했다.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홍보채널 운영, 거장으로 성장하는 작가가 되기 위한 홍보 플랜,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대외 협력 강화, 블로그를 통한 작품 활동 전시, 미리캔버스 배우기, 지속적인 홍보글 게시 등 각자가 찾은 솔루션을 발표했다.

그간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보다 공감 어린 지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2024 상반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수료식

6월 5일부터 한 달간 달려왔던 2024 상반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께서 축하말씀과 함께 한분 한분께 수료증을 직접 수여해주셨다.

상반기 협동조합 마을학교는 성북구의 기업, 단체, 기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영역 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기획자는 paper로 말하고 place에서 자신의 말을 실천해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people과 소통(네트워크) 해야 한다" 차이나는 클래스를 함께 한 동료로서 앞으로의 만남이 더욱 기대된다.



# 2024 하반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및 주간행사 평가회의

2024.07.08.(월) 14:00~15:30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 참석자 총 9명

- 상반기 마을학교 운영사 : 문화예술협동조합몽당 이도유재, 이현주
  - 주간행사 운영사 : (주)히든북 박혜원
- 하반기 마을학교 운영사 : 햇별은쟁쟁사회적협동조합 신소연
- 협동조합협의회 : 잇다사회적협동조합 허현주, 협동조합에듀덕터바른배움 정옥
  - 성북구청 사회적경제팀 : 정태원
  - 센터 : 박진갑, 양영숙

## 1. 협동조합 마을학교 및 주간행사 추진 과정

- 1) 3월 12일, 협동조합활성화지원위원회에서 기존 협동조합 마을학교의 형식과 내용 등이 시대 변화에 맞춰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상하반기 마을학교와 주간행사의 기획방향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
- 2) 4월 18일, 협동조합협의회 월례회의에서 협동조합 마을학교 커리큘럼은 일반주민 대상의 협동조합 교육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과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운영사 또한 협의회 소속 협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함 (협의회 소속 협동조합 중에 운영사를 맡겠다는 기업이 없었음). 커리큘럼, 운영사 등 협동조합 마을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결정권을 센터, 행정, 협의회 임원진에 위임하기로 함
- 3) 4월 26일, 센터, 행정, 협의회 임원진 회의를 통해 올해 협동조합 마을학교는 주민 대상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핵심역량을 다지는 워크숍 형태의 커리큘럼으로 기획하기로 하였으며, 협동조합 주간에는 콧송 챌린지, 포럼, 아리랑시네 센터 영화 관람 및 네트워크(교류회), 콤파스타(토요일, 분수마루)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4) 5월 3일, 협동조합 마을학교 및 주간행사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협동조합 임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자,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테마로 주간행사를 진행하자, 주간행사의 캐치프레이즈는 5월 월례회의에서 정하자는 의견이었음. 전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마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구글 폼)은 센터에서 진행하고, 운영사 신청을 받기로 함
  - 운영사 신청 : 상반기 마을학교 몽당 / 주간행사 더이음 / 하반기 마을학교 햇쟁
- 5) 5월 9일, T/F(센터, 운영사, 협의회) 1차 회의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내부 역량을 다지는 과정으로 마을학교 기획 방향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센터에서 커리큘럼 구성 및 강사진 섭외를 진행하기로 함. 운영사는 사업계획서 작성, 협의회는 센터가 제안한 마을학교 커리큘럼에 대해 협동조합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함

- 6) 5월 12일, 센터에서 협동조합 마을학교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 기획안을 T/F에 공유함
- 7) 5월 16일, 홍보 포스터 시안(1안, 2안)을 T/F에 공유하였으며, 1안으로 결정하고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을 시작함
- 8) 5월 28일, T/F 2차 회의시 센터에서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물들다'를 메인테마로 하고 포럼-교류회-쿵페스타로 이어지는 주간행사 추진안을 제안함. 주간행사 운영사(더이음)가 운영신청을 철회하였으며, 다른 운영사를 알아보기로 함
- 9) 5월 30일, 협의회 소속 협동조합 중에서는 주간행사 운영을 맡겠다는 기업이 없다고 하였으며, 행정에서는 다른 기업을 알아봐 줄 것을 센터에 요청하였고 없으면 서울시 판로지원팀에서 공유받은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서 알아보겠다고 함
- 10) 5월 31일, 센터에서 (주)히든북을 추천하여 T/F의 동의를 얻음
- 11) 6월 3일, T/F 3차 회의에서 마을학교 모집현황 및 세부 준비사항을 점검함
- 12) 6월 5일~6월 26일,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 운영 및 T/F 회의(4차~6차) 진행함

## 2. 협동조합 마을학교(상반기)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 평가

### 1) 이도유재

- 작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몰라서 수동적으로 그냥 참여했는데, 운영사로서 직접 운영을 해보니 사업의 취지와 어떤 결과(성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게 되었음
- '차이나는 클라쓰' 커리큘럼은 과정 참여자들이 굉장히 연대하고 소통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협동조합 마을학교가 이렇게도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그래서 이번 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각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잘 운영하면 많은 분들이 더 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생겼음
- 가장 좋았던 지점은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어도 하고 또 몰랐던 협동조합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다는 것임
- 기존에는 2~3명이 바쁘게 움직여서 겨우겨우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 외의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부탁하고 협력하면서 진행했음. 그 과정을 통해 서로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되고 또 강의에 함께 참여하니 이게 사회적경제구나..하는 개념도 협동조합 내에서 생겨서 좋았음
- 이런 점들이 협동조합 마을학교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결과물로 도출되었다고생각함
- 반면, 어려웠던 지점은 분명히 있었는데.. 운영사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음. 협동조합협의회는 커다란 산이었음. 협의회에 모든 과정을 계속 보고해야 하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 힘들었음
- 운영사로서 주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구조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공동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협의회와 운영사가 상하관계로 구조화되는 것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웠음

- 마치 공무원한테 허가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처럼 되니까 우리가 공무원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음

## 2) 양영숙

-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동조합 마을학교의 취지와 목적, 즉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단체, 개인 등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홍보 역량강화 및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제고'에 맞게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함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하였음
- 강사진은 사업 기획, 홍보 등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으며,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기획 및 홍보 멘토로서 적합하였음
- 커리큘럼에 협동조합의 협동과 연대라는 모토가 녹아들었음.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관심 사별로 서로 협력하며 기획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짐.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일어남
- 참여자들의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 강의 전반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 만족)는 1강~5강까지 각각 93.5%, 90%, 94%, 100%, 100%로 집계되었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1%, 85%, 85%, 100%, 100%, 협동조합 마을학교 콘텐츠로 적절한가에 대한 만족도도 1강 85%, 2강 92.5%, 3강 94.7%, 4강 100%, 5강 100%였음
-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의 성과 중 하나는 새로운 자원의 발굴이라고 생각함. 설립한지 오래된 협동조합 미해와머스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골목상권의 공방 또는 개인으로 참여했던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
- 마을학교 참여자들이 콤포스타 부스 운영에 참여하고 난 후 협동조합 설립을 고려 중이라고 함
- 주민 유\*\*님은 마을학교 과정에서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성북미술협회를 통해 실제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실제 사업 내용과 일정이 정해지면 센터에 공유해 주기로 함)
- 협동조합 마을학교의 운영사가 협동조합협의회 소속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면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보다는 운영사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함. 그런 점에서 볼 때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를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이 성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함

## 3) 박진갑

- 지난 3월, 협동조합활성화지원위원회에서 협동조합 마을학교 및 주간행사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기존에는 마을학교 상반기 프로그램과 하반기 프로그램이 연계가 안 된다, 주간행사의 주민 참여도가 낮았다는 등의 평가가 있었고, 참여 주민들의 평가도 유사했다는 피드백이었음

- 올해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마을학교와 주간행사의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기획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예산 배정도 내실있는 행사 진행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음
- 커리큘럼과 강사진 등 기획안과 운영방안에 대해 TF 회의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사의 업무에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음
- 변화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생각과 관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한 내용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협동조합 마을학교'와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라는 명칭이 따로 노는 느낌이어서 프로그램명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음. 협동조합 마을학교라는 명칭이 향후에도 유효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조금 유연하게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끌어낼 수 있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과 주민들이 교류도 하고 역량도 강화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업명이면 좋겠음. 그러면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구성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함. 협동조합 마을학교라는 틀에 갇히면 다양한 상상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구성에서도 "협동조합 마을학교인데 왜?" 라는 질문을 했던거라고 생각함
- 개인적으로는 유관숙님의 특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라도 일정을 조정해서 과정에 포함하긴 했는데, 운영사 입장에서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기꺼이 수용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었음
- 운영 측면에서 보면, 운영사의 역할, 협의회의 역할,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회 말고 추후 다른 자리에서 논의해보면 좋겠음. 운영 과정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솔직하게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음
- 마을학교 상반기 과정으로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를 진행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과정으로 기획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설문지에 참여자들이 남긴 코멘트를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애써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시간을 더 배정해서 좀 더 깊이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하면서 하반기 마을학교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해야 함

#### 4) 박혜원

-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 1강만 참석했음. 사회적경제 10년차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초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맞는 내용인 것 같음
- 못 보던 새로운 분들을 많이 봐서 무척 좋았음
- 협동조합만 놓고 볼 때 이 프로그램이 협동조합과 만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음

#### 5) 신소연

- 일단 강사님이나 강의 내용은 좋았음
- 참여자들이 너무 열린 마음을 갖고 오시고 구성원으로 오신 분들 자체가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못 보던 분들을 봐서 좋았음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등의 용어 자체도 낯설고 어려우니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한편으로 뒤집어 봤을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 하는 것은 진짜 큰 성과라고 생각함. 협동조합 만들려면 몇 명이 필요하나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 분도 계셨음
- 협동조합 마을학교 예산이 협동조합 예산이니 협동조합 쪽으로 맞추는 게 더 맞는 듯함. 기획이랑 홍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예를 들어 몽당이나 햇쟁의 사업에 맞게 목적성 있게 했으면 오히려 더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획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음
- 협동조합이나 어떤 사회적기업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어떤 수익 모델이라든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포커싱해서 기획 홍보방안을 짤 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함
- 종합하면 직접 참여를 하면서 보니 분위기도 좋았고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아주 즐겁게 잘 진행되었음

## 6) 정옥

- 너무 수고 많으셨음. 될까 했는데 돼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돼서 좋음
-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음. 익숙한 요소라서 변화되는 장면들이나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 처음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으나 회가 거듭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구나! 라는 데 공감하게 됨
- 'The SB 차이나는 클라쓰'가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자리가 되고 바깥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되어 의미 있었음. 협동조합, 지역 소상공인 및 단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욕구들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요구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나와 어떻게 역할을 지를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였음
-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잘 굴러가려면 재미도 있어야 되고 잘 이끌어주는 이쁨이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쁨이 역할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이번에 센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라도 맞춰서 아주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흥행도 잘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됐다고 생각함
- 강의를 다니는 강사의 입장이다 보니 세부적인 디테일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세로형 현수막이 멋졌음. 그런 현수막 연출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인상적이었음
- (센터장 : 쉽게 모시기 어려운 분-황인선작가-을 강사로 모시게 되어 애초에는 예우 차원에서 세로 현수막에 인물사진을 접목했던 건데, 막상 해보니 센터 교육장 환경에는 세로 현수막이 잘 맞아서 이후에도 이 컨셉을 잘 활용하고 있음)
- 운영사에서 준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음. 몽당 조합원들이 함께 나와 간식이나 세팅 등을 하는 것을 보니 좋았음
- 흥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교육생으로 센터의 행사였으면 너무 재미있다, 그냥 너무 좋다, 그냥 그걸로 끝났을겠지만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음. 뭔가 힘겨루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음. 협동조합 마을학교는 협동조합 예산이니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할 거라고 했는데 이끌어주는 센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생들은 센터 교육 사업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음. 협의회 회장님이 어떻게 노출될 것인가,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 부분이 좀 더 많이 편성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7) 허현주

- 마라톤 강의 진행하느라 수고 많았음. 운영사가 연극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보니 좀 색달랐던 것 같음.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수막처럼 그런 기획이 센터와 민간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정말 색달랐던 것 같음.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임. 다양한 곳에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던 기간이었음
- (이도유재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답변) 제가 2021년부터 협의회 회원이었고 마을학교를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수행했던 기업임. 기존에 진행해왔던 방식이 있었음. 운영사 대표님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제가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처럼 돼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했던 건데... 그게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기업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음. 저는 당연히 해왔으니까 했던 건데 대표님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몰랐음. 근데 나중에 보니 제 생각이 달랐던 것임. 그래서 저도 당황했음. 저는 그냥 가서 알려준다고 생각했던 게 대표님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몰랐음. 그런 것들은 그동안 저는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변화를 받아들일 줄 몰랐던 것,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다를 수 있음을,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온 것 같음. 협의회도 10년이 넘었고 새로운 그룹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는 많이 다양해졌으니 이제 변화의 시기가 도래한 것 같음
-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고 많은 단체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단시간에 우리가 합을 맞추다 보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나 라는 생각임. 이 정도는 변화의 시기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천천히 이제 알아가는 시기임. 같이 일을 해봐야지 서로 알 수 있는 것 같음.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 할 때는 사실은 알 수가 없음. 일을 해봐야지 사람의 장점 단점 그리고 보완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같음. 이번이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함. 마을학교와 주간 행사와 콤페스타가 그런 기회였지 않았나 함. 어쨌든 하반기 마을학교도 남아 있고, 사회적경제 한마당도 모두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니 함께 합을 맞춰야 되는 단체들인 것 같음. 그래서 같이 파트너로서 가야 될 과정인 것 같음. 어쨌든 모두 다 수고 많이 해주셨고, 특히 센터가 이번에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음

## 3. 협동조합 교류회 평가

### 1) 박혜원

- 교류회는 협동조합 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많고 하니 내년에도 다시 한다면 그냥 협의회에서 단독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듯함

### 2) 신소연

- 기존에는 없었던 수상자 소개 영상이 무척 좋았음. 보통 시상식에서는 시상자(구청장, 시장 등)가 주인공인데, 이번에는 수상하는 협동조합들이 주인공이 되게 해 준 부분이었음. 상을 받는 협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상을 받는지를 보여주어서 좋았음. 상을 받은 후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있었음
- 장소가 협소해서 정신이 좀 없었음. 그리고 마치는 시간이 국민대 앞이 길이 막히는 시간이라 우르르 나가는 것이 아쉬웠음. 다과만 준비한 것도 아쉬움. 교류의 시간을 늘려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듯함

### 3) 정옥

- 수업이 있어 늦게 도착했음. 작년의 경우 뭔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쉬웠음. 사회를 협동조합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다과가 좀 미리 나왔어도 좋았을 듯함. 하나씩 먹으면서 여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을 듯함

### 4) 양영숙

- 교류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수상자들의 소개 영상 부분이었음.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생각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교류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몽당에 감사함. 수상자들 뿐 아니라 축하하는 분들도 모두 따뜻한 시간이었음. 내년에는 조금 더 설명이 붙고 어떤 기업인지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음
- 협동조합 교류회인데, 아까 협의회에서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처럼 협의회만의 교류회인 듯했음. 성북구에 협동조합이 150여개 있는데 수상하시는 분 빼고는 다 협동조합 협의회 소속이고 모든 협의회 회원 조합이 참석한 것도 아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협동조합 협의회의 잔치라기보다는 협동조합 전체의 교류회라고 하면 그 자리에 협의회 소속만이 아닌 모든 협동조합들을 참여하게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봄
- 아이스브레이킹의 경우, 몽당에서 준비하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매우 협소했음. 뒤에 있었는데 정말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되어 다 각자 플레이었음. 장소 자체가 기동도 있고 집중을 못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장소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면 좋겠음
- 다과 치고는 비용이 상당히 비쌌음. 시간대가 저녁이라 오신 분들은 행사 끝나고 돌아가면서 허전했음. 예산의 문제가 아닌 듯함. 그냥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소통하면서 식사했으면 좋았을 것임

### 5) 박진갑

- 교류회 기획회의 당시 '문스토랑'으로 진행하자고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음. 작년 말에 청향에서 교류회 할 때 뭔지도 모르고 갔었는데 정말 너무 어수선했었음. 공간이 좁고 어수선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행사였다는 인상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도 자리 간격이 너무 여유가 없었고 교류가 잘 안되는 그런 느낌이었음.
- 아이스브레이킹도 원래는 테이블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장소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무대에서만 진행했다고 함. 행사 도중에 앞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협동조합 교류회는 협의회 소속만이 아닌 모든 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행사의 컨셉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협의회 소속이 아닌 협동조합에도 행사 안내는 하셨겠지만, 마을학교도 그렇고 교류회도 그렇고 자꾸 협의회를 강조하다 보면 대다수 가입이 안되어 있는 협동조합들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음. 사업의 무게 중심이 대다수 협동조합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협의회에 더 많이 가입하게 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 면에서는 협동조합 협의회만이 아니라 전체 협동조합의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모든 협동조합들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성북구에 있는 모든 협동조합들이 같이 즐기는 축제고 같이 교류하는 행사라는 컨셉이 제목이나 내용 안에 좀 더 분명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협동조합이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듬.

협동조합 주간 일주일 동안 먼저 포럼을 하려고 했다가 토론회로 바뀌고, 이어서 교류회, 콤페스타가 있다 보니까 센터는 교류회보다는 토론회와 콤페스타 준비에 집중했음. 교류회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토론회는 처음 진행해본 건데 많이 와주시고 논의도 많이 해 주셔서 다음에는 좀 더 심도있게 본격적인 토론회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내용있는 포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음

## 6) 허현주

- 작년에 식사가 좋았기 때문에 식사 얘기를 많이 하심. 식사하는 줄 알고 다 데리고 왔다고 함. 그래서 내년에는 협의회 자부담으로 해서 식사하는 것을 고려하겠음

# 4. 콤페스타 평가

## 1) 박혜원

-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음. 올해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참여하시는 팀들도 보통은 그냥 좀 하루 대충 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가는 분위기보다는 같이 즐기셨던 것 같아서 좀 더 크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 주간행사 기간에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니 힘들면 나누어서 해도 좋을 듯함

## 2) 신소연

- 콤페스타는 진짜 기대 안 하고 날짜 자체도 너무 덥고 일단 7월 초, 첫째 주 그냥 너무 더운 날에 누가 사람이 올라부터, 그냥 협동조합 주간행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한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 없이 했는데 너무 애써주셔서 진짜 너무 재미있었음
- 진짜 너무 세팅도 잘해주셨고 센터에서도 많이 애써주셨는데 재밌게 잘 진행되었음
- 마치고 나서 네트워크 하는 것도 되게 좋았음. 같이 진행하셨던 분들이 회포도 풀고 얘기도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그것도 되게 좋았음. 그래서 그 시간만 기다렸음. 마켓이 잘 되든 말든 그랬는데 부스들이 서로 방문해서 사고 팔아주면서 다른 협동조합에서 어떤 걸 하는지, 어떤 물품이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음

## 3) 정옥

- 콤페스타는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음
- 비가 오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참여를 해보니까 비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런 느낌이었음
- 체험 부스에 많이 참여를 해보는데 보통은 끝나고 그냥 가기 바쁘는데, 끝나고 다 모여서 마무리를 하는 게 굉장히 뭔가 전우애 같은 든든한 느낌들이 있어서 되게 따뜻했음. 무척 따뜻하고 의미가 있었고 혼자자 아니구나.. 연대에 몰든 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함. 그래서 되게 좋았고, 빗물받이도 굉장히 좋았음

- 차이나는 클라쓰에서 같은 팀이었던 미해와머슴마들과 공간:라움도 다시 보고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었음

#### 4) 양영숙

- 쿠파스타 기획할 때 날씨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애초에는 비가 오면 장소를 구청으로 옮겨서 진행하기로 했었음. 하지만 비가 오더라도 장소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었음
- 쿠파스타의 취지는 협동조합 주간, 사회적경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게 제일 컸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주민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함
- 비가 와도 좋았고 사전 신청을 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현장에서 이게 뭐냐, 뭐 때문에 이런 거 하는지 물어보며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 의미있는 시간이었음. 실제로 나중에 센터로 방문해서 설명을 듣겠다는 분들도 있었음
- 오픈식도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연주하니 좋았고 사진들을 보니 표정들이 무척 좋았음
- 돛자리 도서관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던 시간이었음. 주민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여러 부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치였다고 생각함
- 차이나는 클라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실제 경험을 해보면서 사회적경제를 체험해보는 시간이어서 의미 있었음. 쿠파스타에 참여했던 공간:라움 대표님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으며 함께 한 협동조합 및 센터에 감사한다고 매너있게 적어주었음

#### 5) 박진갑

- 쿠파스타를 처음 진행한 것이니 이런저런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오전에도 센터 내부적으로 한참 동안 자체평가를 했는데, 일단 시기는 협동조합 주간에 해야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함. 올해는 첫해니까 주간행사로 진행한 거지만 내년에는 시기를 조정하고 좀 더 많은 주민들과 협동조합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한마당하고는 좀 더 다른 컨셉의 쿠파스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듯함. 5월 정도에 하면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협동조합 주간에는 포럼이나 교류회 등 내부 행사 중심으로 해도 좋겠음
- (실내에서 진행하자는 구청 등의 의견에 대해) 실내에서 하면 편하고 이것저것 고민 안 해도 되고 어떤 요소들을 넣을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한 고민을 덜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사회적경제를 널리 알리고 또 기업과 주민들간에 접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려면 외부로, 주민 가까이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 앞으로도 사경 한마당 등 모든 행사는 (이번 쿠파스타처럼) 참여 주체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파티로 마무리하면 좋을듯함
- 협동조합 마을학교와 교류회 그리고 쿠파스타를 남다른 클라쓰로 운영하기 위해 애써주신 몽당과 히든북 두 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요구사항도 다 수용하시면서 현장에서 행사의 컨셉을 잘 살려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음

## 1.4

# 판로지원교육\_ 공공구매진출전략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공·민간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판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 및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시장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판로지원교육 '공공구매진출전략' 강의는 공공구매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략수립과 실행방안 마련을 안내하는 과정이다.

# 개요

## 일시

2024.07.24.(수) 19:00~22:00

## 장소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 CHECK POINT

### 공공시장 이해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추진 현황

- 공공시장 예산 편성 체계, 공공시장이 찾는 제품·서비스
- 서울시 공공구매 추진 현황과 서울시 공공판로 지원사업
- 공공시장 진출 3요소(노력, 경험, 전략)와 진입 방법



### 공공구매 진출 전략 소개

-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가는 단계별 진입 전략
- 공공기관과 거래 가능한 요구 자격 구비 방법
- 공공데이터를 통해 진출 가능한 사업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 맞춤형 공공구매 진출 전략

- 교육 참가 기업의 상품·서비스에 따른 공공 구매 진출 전략
- 공공데이터 사업 정보 조회 실습(서울계약마당365, 지방재정365)
- 질의응답 등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시장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판로지원교육 '공공구매 진출전략' 강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실무적으로 안내하는 교육이었다.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었던 만큼, 참여한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은 늦은 시간까지도 집중을 놓치지 않았다. 강의를 맡은 김건순 선임(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판로지원팀)과 성북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표자, 실무자들이 뜨겁게 만난 현장으로 가보자.

## 공공구매 우선 제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전망

김건순 선임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이 어렵다는 말로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시장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도 '수익'을 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돌파구로 '공공시장 개척'을 제시했다. 공공시장이란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우선구매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공공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공공과 계약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성장합니다."

강사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떻게 그 체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강의를 이어 나갔다. 사례와 함께 제시되는 현실적인 실행 방법에 참석자들의 눈빛이 열띠게 반짝였다. 각자 몸담고 있는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모습이였다.

"공공기업 구매 담당자가 우리 기업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빵과 쿠키류 등 먹거리로 공공판로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마을엄마 협동조합'의 이진숙 대표님에게 짧은 컨설팅이 이어졌고, 다른 참석자들의 고민도 공유해 보는 시간이 뒤따랐다. 김건순 선임은 "판매하는 물품(서비스)별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다"며 먼저 공공시장 진출의 3요소를 제시했다.

## 공공시장 진출 3요소는 노력/경험/전략

강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노력이고, 무엇이 경험이며, 무엇이 전략인지 실제로 공공시장에 진출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예로 들어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저녁에 시작된 강의는 점점 더 늦은 시간을 향해 치달아 갔지만 참석자들은 그 누구도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열정의 시간이었다.

짧은 휴식을 가진 뒤에는 드디어 물품(서비스)별로 솔루션 강의가 이어졌다.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쳇말로 '꿀팁'까지 대방출되었다. 이후 개별 기업에 대해 더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직접 연락주시라며 명함을 꺼냈고, 참석자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강의가 천천히 저물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배울 때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면 자전거 못 탑니다. 넘어지는 게 자전거 타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실패해 보세요. 그래야 자전거를 타지요. 잘 타지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보조바퀴가 있어야죠. 저희가 그 보조바퀴가 되어 드리는 거예요. 빨리 그 자전거에 올라타세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고무하고 당부하는 말로 김건순 선임은 강의를 맺었다. 밤 10시를 훌쩍 넘겼지만, 교육장의 열기는 여전히 생생했다. 참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공공구매 진출전략'과 뜨겁게 만난 이 강의가 성북구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공공구매진출전략 만족도 평가



## 1. 참여자 피드백

- 첫 시작이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설명해주신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공공시장 사업을 보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
- 새로운 판로 개척, 강의를 너무 도움이 되었다
- 매일 찾아봐야겠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서 좋았고 큰 도움이 되었다
- 실습 너무 좋았다
- 강사님과 밀착 강의 상담 임팩트 있었음
- 강사님이 너무나 열정적이었다. 감사하다
- 강의가 재밌었다. 공공판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
- 자주 문의하고 참여해야겠다
- 개별 업종별 공공판로 컨설팅이 있으면 좋겠다

## 2. 설문 결과 종합

- 교육 만족도는 평균 4.85점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평균 89%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특히 공공시장의 수요정보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출 가능한 시장을 파악하는 방법,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공공구매 추진현황을 알게 된 점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4.95점, 4.95점으로 높게 나왔음.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획득과 공공데이터를 통한 사업 정보 조회 방법이 공공구매 진출 전략을 세울 때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와 실무자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강사 만족도는 평균 4.95점, 강사의 전문성과 강의 전달력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 만족)는 100%로 나타났음
- 참여자들 대부분은 공공시장 영역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 진행, 실습 등을 통해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3. 판로지원교육 총평

- 판로지원교육 '공공시장진출 전략'은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판로 확대 및 공공시장 진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 1.4 판로지원교육\_공공구매진출전략

- 참여 기업의 제품·서비스와 관심 영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 맞춤형 강의를 준비하였고, 강의 현장에서의 호응도와 설문조사 응답을 볼 때 기획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판로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기업별로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전략을 소개받을 수 있었음

## 1.5

# 협동조합 마을학교(하반기) 협동할지도

성북구에서는 매년 협동조합 마을학교를 통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25번째를 맞은 협동조합 마을학교. 2024년 하반기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보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개요

## 일시

2024.10.22.(화) ~ 11.19.(화) 10:00~12:00

## 장소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 교육 프로그램

구분	일시	내용	강사
오픈 강좌	2024.10.22.(화) 09:00~09:50	협동조합, 그것이 알고 싶다	조용희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1강	2024.10.22.(화) 10:00~12:00	기후돌봄, 마을돌봄	한윤정 생태문명원 연구위원
2강	2024.10.29.(화) 10:00~12:00	지역순환경제, 사람과 사람을 잇다	이재경 좋은동네연구소협동조합
3강	2024.11.05.(화) 10:00~12:00	지역순환경제, 협동의 가치로 만나다	정건화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4강	2024.11.12.(화) 10:00~12:00	협동할 지도, 서로 배움으로 미래를 그리다	한윤정, 이재경, 정건화
5강	2024.11.19.(화) 10:00~12:00	협동할 지도, 연대의 춤을 추다 (네트워크 파티) & 수료식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그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만들고, 지역의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협동할 지도'를 그렸던 2024 하반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5회차는 6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던 5번의 만남을 기록한다.

## 오픈강좌 협동조합, 그것이 알고 싶다

조용희(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2024.10.22.(화) 09:00~09:50

협동할 지도를 그려보기에 앞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초심을 되새기며 협동조합 마을학교가 성북구 사회적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약하는 강좌였다. "성북구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연대하여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들을 협력하여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협동조합 마을학교를 통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1강 기후돌봄, 마을돌봄

한윤정(생태문명원 연구위원)  
2024.10.22.(화) 10:00~12:00

오픈강좌를 마치고 난 후 바로 본격적인 강의가 이어졌다. 기후 위기 시대, 재난은 피할 수 없다.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 적응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가장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가?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 적응은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고개를 끄덕이며 활동가들은 저마다 생각이 많아지는 모습이었다.



기후 위기는 성장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돌봄이 중요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성장 사회를 넘어서 기후 돌봄, 마을 돌봄이 가능한 사회로, 지역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빙 둘러 앉아 몸담고 있는 협동조합과 그 활동을 소개하였다.

진솔한 이야기와 응원의 박수가 오갔다.

## 2강 지역순환경제, 사람과 사람을 잇다

이재경(좋은동네연구소협동조합)

2024.10.29.(화) 10:00~12:00

2강에서는 순환경제론을 기반으로 지역순환경제를 다뤘다. 순환경제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등 자원을 최대한 덜 쓰는 방향의 경제를 말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대두된 '지속가능한 경제'와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순환경제는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성장·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지역순환경제는 순환경제와는 사실 좀 다른 개념이다.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을 찾는 지역순환경제는 재료와 물품의 운송 등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다. 또한 다시 쓰기 등으로 주민들끼리 직접 순환경제를 실천해 볼 수 있다.



강의 후에는 모둠을 지어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연결해 보았다.

## 3강 지역순환경제, 협동의 가치로 만나다

정건화(한신대학교 명예교수)

2024.11.05.(화) 10:00~12:00

3강은 기후위기 시대 지역순환경제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을 이야기해 보았다. 1강과 2강에서 논의되었던 주제가 더 포괄적으로, 더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기후 변화는 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 문제이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는 생태와 상극이 되고 있음을 짚은 뒤, 생명·생활·생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새로운 경제의 핵심은 순환경제다. 경제가 자연 안에서 순환해야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 자연이 되고 생태적 고려가 경제적 효율성이 되는 경제여야 한다.

순환경제는 지역 내 순환, 인간과 자연의 순환, 경제 순환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중에서 지역순환경제는 기후 위기에 맞서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익숙한 먹거리, 에너지, 주거, 교육, 돌봄, 보건, 의료 등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에 기반하며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아직 미미하다. 살아남으려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필요함을,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연결 거점을 만드는 시도까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과도 연결될 겁니다."

## 4강 협동할 지도, 서로 배움으로 미래를 그리다

한윤정, 이재경, 정건화

2024.11.12.(화) 10:00~12:00

4강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2강에서 진행했던 모둠 활동을 발전시켰다. 활동가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3명씩



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보기로 했다.

1. 마음 돌봄 - 지친 마음을 위한 돌봄 사업 모델 탐색
2. 사물 돌봄 - 오래 쓰기, 재활용, 새활용 등 상품을 돌볼 수 있는 사업 모델 탐색
3. 자연 돌봄 - 기후 위기 시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모델 탐색



역량은 서로 다르지만 추구하는 가치와 관심 분야가 비슷한 활동가들끼리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사업 계획서까지 써 본 후에는 모둠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5강 협동할 지도, 연대의 춤을 추다 (네트워크 파티) & 수료식

2024.11.19.(화) 10~12:00

25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협동할 지도'의 마지막 시간!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사업계획서를 다 같이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여지를 더 찾아 보았다. 소감도 나누었다.



"협동조합 및 지역 순환 경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협동할 지도라는 이름처럼 무엇보다 우리의 연결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함께 달려요. 협동조합 파이팅!"



네트워크 파티는 명상을 함께 해보며 더욱 특별해졌다.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 '헌존명상 협동조합'에서 마음을 비워내는 명상을 진행하여 다 함께 체험해 보았다.



25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수료식!

이렇게 2024년 하반기, 25기 협동조합 마을학교가 막을 내렸다. 서로 배움으로 미래를 그렸던 '협동할 지도'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연대와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2024 하반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평가회의

2024.11.25.(월) 17:00~18:00  
호박이닝클락



## 참석자 총 9명

- 하반기 마을학교 운영사 : 햇쟁 김가희, 박윤경, 신소연, 염한별
- 주관행사 운영사 : (주)히든북 박혜원
- 협동조합협의회 : 잇다사회적협동조합 허현주, 협동조합에듀닥터바른배움 정옥
- 성북구청 사회적경제팀 : 정태원
- 센터 : 이버들

## 1. 하반기 협동조합 마을학교 결과 공유

- 사회적경제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기획함
- 활동가와 각 단체의 연결지점을 찾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기획 : 워크숍 형태로 소통하며 서로를 연결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 시대의 흐름속에서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길 모색 :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기후재난에 마을에서 대비하고 서로 돌봄을 통해 적응해 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지역순환경제로 발전시킬 필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 한신대 생태문명원과의 협업을 통해 한신대캠퍼스타운사업을 통한 지역연계 사업을 해본 경험을 녹여서 기후돌봄, 지역순환경제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함
- 기후+돌봄+지역순환경제로 주제가 반대하였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기후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모색해볼 수 있었음
- 교육 말고 힐링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요가 힐링프로그램 구성 : 협의회 소속사이며 신입회원인 현존명상과 함께 하는데 의의를 둠

## 2. 소감 및 평가

- 역시 성북의 협동조합 활동가들이다. 기획하면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강사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음. 여기서

의 결과물들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여자분들도 본인의 열정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확히 얘기. 지표들을 만들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숙제로. 추진하기로 한 마음돌봄사업 기대함

-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실천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주민들이 들으면 좋은 내용이어서 주민들이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기업의 역량강화와 협력을 하는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 기후위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시민들이 활동을 한다고 해도 시스템화되지 않는 게 한계. 앞으로 기후위기에 관심갖겠다.
- 얻어가는 건 많았는데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음
-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이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건 뭘까? 외면할 수 없는 주제다. 기후위기와 사회적경제를 마을학교에서 어떻게 다룰까? 의문이었는데, 처음 계획했던대로 진지하게 진행되면서, 사업계획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됐다. 이후 돌봄 쪽에서 한 가지 만 지속해도 성과라 생각한다. 소통하는 워크숍이라 좋았고, 우리다움을 지켜내는 느슨한 연대에서 끈끈한 연대로 가는 시간이었다.
- 그동안 마을학교는 상반기는 기초, 하반기는 심화과정으로 진행했다. 올 하반기는 성북구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커뮤니티케어를 해볼까하는 논점에서 햇쟁이 수행기업이라 기후와 돌봄으로 진행했다. 마을학교를 진행하면서 보니 워크숍(처음에는 우려했지만)을 통해서 참여자들도 만족하는 것을 보니 이런 식의 워크숍으로도 마을학교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듦. 내년 사업을 기획해 보자고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함. 협동조합 포함 모든 기업이 ESG가 필수이므로, 기본적으로 기후와 돌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함을 드러내는 마을학교였음. 의식하기 시작하면 물품을 하나 구매할 때도, 활동하나 할 때도 고민을 하게 됨. 조금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임. 수행기업에 따라 마을학교 내용이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있는 마을학교를 고민해야 함
- 마을학교에서는 지식과 지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비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활동가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같이 연결되면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실험들이 자주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함
- 기획하면서 기후보다 협동할 지도를 강조하였고, 돌봄영역을 지역순환경제 안에서 고민할 수 있었음. 5강 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기획에 목마른 분들처럼 보일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음. 흠어지지 않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이뤘다면 질적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고, 그 도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분위기를 잘 이어서 내년에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 협동조합 마을학교를 햇쟁이에서 기획하다보니 기후와 관련된 주제로 정했지만, 기후재난시대에는 모든 활동이 기후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함. 평소 기후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의 이해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참여자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함. 워크숍으로 진행하면서 보니 우리가 성북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강북에서 활동중인 강사님들도 강북-성북의 확장과 연결을 위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함. 참여자분들도 강사님들도 모두 진심으로 열심히 해 주셨음. 마을학교에서 10% 정도 완성했다면, 앞으로 나머지를 해내는 것이 중요함
- 5강 명상프로그램은 힐링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아쉬웠음. 기획의 의도가 전달이 안되었나 했음.

### 3. 다음 마을학교 기획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의견

- 상하반기 연결 기획이 어떠한지, 수행기업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협의회에 신규 조합이 들어와서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흐름을 알고 하는 것이 필요함

- 해마다 이런 형태로 갈 것인지, 마을학교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 속도는 느리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음. 각자 바쁘게 품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매주 홍보와 연락을 받으면 참여하게 됨
-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량평가를 생각해야 함. 담당부서와 소통하면서 해 보니 서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음. 상하반기 통으로 기획하면 좋겠음
- 마을학교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협동조합 마을학교라는 이름이 맞는지 의문이 듦. 올해 결과물을 내년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활동가들은 참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주민들과 더 연결되려면 좀 더 뭔가가 필요한 건지 고민 필요
- 상반기가 홍보/기획 부분의 역량강화였다가 하반기에 환경으로 가서 마을학교의 흐름이 연결성이 없었던 것 같음. 내년에는 연결성을 가지고. 협동조합 마을학교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목표인데, 주민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할 듯
- 2021년부터 협의회가 위탁받았는데, 150여개의 많은 협동조합이 생겼으니 이제는 설립보다는 역량강화와 살아남기가 중요함. 성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50여개 밖에 없음. 실태조사 결과를 갖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1.6

## 성사경 자문단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성사경 자문단]!  
성북구에 사회적경제 기업 고민을 해결해주는  
전문 자문 그룹 <성사경 자문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성사경 자문단>은 시장의 변화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부딪치는 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출범하였다.

경영, 홍보, 마케팅, 기술, 회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인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자문 요청에 따라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 성사경 자문단

---

### 김경예

#### 주요이력

-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2022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멘토멘티
- 2023 ~ 성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 자문분야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안
  - 수익 모델과 사업 전략의 균형 맞추기
  - 기업 규모 확장 시 사업성 검토
  - 지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 고객 서비스 및 관계 관리 전략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준비사항(사회서비스)
  - 후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남철관

#### 주요이력

- 지역자산화협동조합 이사장
- 2010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대표이사
- 2012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 2018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자문분야

- 사무실 입차 및 입지 분석
  - 공간조성(건축공사, 계약, 시공사 선정, 시행관리)
  - 공공/민간금융/자금조달
  - 공공판로 개척(경쟁입찰)
  - 연구사업 용역 준비 및 실행 전략
  - 사회적기업 인증
  - 협동조합 빌드업
- 

### 박준형

#### 주요이력

- 트리플제이엔파트너스 대표
- 라운드키친7, 비건위크, 일상미각, 띠앗나눔 운영
- LG전자(신기술투자, 신사업개발, 상품기획, 마케팅 기획)
- LG화학(연구개발)

#### 자문분야

-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 기획
  - 구독형서비스 운영 전략
  - 상품 수익성과 비용 구조 분석
  - 온라인 사업기획 및 플랫폼 진출
  - 고객 및 이해관계자 분석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관리 방법
-

**박선영****주요이력**

- HBM사회적협동조합 팀코치
- 2017-2020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자문분야**

- 소셜 미션 및 비즈니스 모델 점검
- 전략 사업 기획
- 성과 목표 설정 및 달성 전략
-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맞는 임팩트 측정 방안
- 직원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
- 조직 문화 진단 및 개선 방안

**백승훈****주요이력**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 2019~ 데나리온BANK 운영위원장
-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신용상담사 자격 보유

**자문분야**

- 사회적기업 인증(지역사회공헌형)
- 강사 양성 및 생산자 조합원 관리
- 사회적협동조합 지분환급금 정관 및 규약
- 채무 조정

**이남주****주요이력**

- (주)엘마드레 대표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설턴트
- 2016~ 광역자활센터 컨설턴트(서울·경기·포항)
- 2016~ 전국 농업기술센터 컨설턴트
- 2023 국제아열대 농업팜페어 기획 운영

**자문분야**

- 최신 먹거리 트렌드를 활용한 메뉴 개발
- 메뉴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
-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한 먹거리 개발
- 행사·축제 시 먹거리 부스 운영 전략
- 행사 규모에 따른 케이터링 구성 전략
- 푸드 스타일링(식품 패키징, 음식 데코레이션)
- 메뉴 수익성 분석

**이은숙****주요이력**

- 두비비협동조합 이사장
- 문화기획사 비비드컬처 대표
- 2023~ 청송백자축제 총감독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랑계 홍보디렉터
- 2019~2021 궁중문화축전 선임피디
- 다수의 대한민국대표축제 기획, 홍보, 운영 담당

**자문분야**

- 행사·축제 기획, 콘셉트 자문
- 행사·축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운영 방안
- 행사·축제 홍보 프로세스 및 홍보 전략
- 행사·축제에 맞는 효과적, 효율적 홍보 매체 선정

## 이종근

### 주요이력

- (주)디올연구소 대표
- 2021 ~ 중소벤처기업부 엑셀러레이팅 IR 투자심사 위원장
- 2020~22 JP모건 소상공인 지원사업/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컨설턴트
- 2020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창업입문과정 심사위원
- 2019 ~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함께일하는재단 전문멘토

### 자문분야

-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점검 및 보완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운영 전략
- 조직 역량 진단
- 사업계획서 작성
- 상품 제안서, 회사소개서 자문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준비 및 등록
- 기업 인증(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등)
- 기업의 재무, 법적 리스크 관리
- 기업 거래 시 계약서 및 법적 문서 검토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준비사항(기타·창의혁신)
- 온라인 진출 지원(자사몰 운영, 온라인 쇼핑몰 진입 등)
- 공공기관 입찰 전략 및 제안서 작성 방법
- 디자인 경영

## 유형근

### 주요이력

- 같이가치 협동조합 이사장
- 전)정릉시장 상인회장
- 2023년 11월 14일 : 협동조합 활성화 경쟁력 공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표창장

### 자문분야

- (판로개척) 박람회 참여 준비 및 운영 방안

## 조용희

### 주요이력

-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 2004 ~ 2024 협동조합 조직 관리 및 운영 실무 총괄
- 2017 ~ 2021 성북구 사회적경제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역임

### 자문분야

- 조직 정관 및 운영 규정 검토
- 조직 체계(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진단
- 조합원, 대의원, 임원 소통 구조 진단
- 출자 및 배당 관리
- 노사 관계 진단 및 개선
- 계약서 점검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입찰 형태 및 응찰 시 유의사항

## 자문사례 1

# 마을엄마 협동조합 "홍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문단 이은숙 (두비비협동조합 이사장)

일시 2024.08.29.(목) 14:00

장소 두비비협동조합 사무실

### 자문요청 내용

마을엄마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제품과 활동을 온·오프 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마을엄마협동조합은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빵과 쿠키 등의 상품과 더불어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교육 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성사경에서는 홍보전문가이신 두비비협동조합 이은숙 이사장님(청송백자축제 총감독,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랑계 홍보디렉터)을 연결해드렸습니다.

자문내용은 기업의 현 주소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우선 기업의 홍보 필요성과 투입 가능 역량, 지속적인 콘텐츠 발행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한 후 기업 맞춤형 홍보 방법과 컨셉을 자문해주셨어요. 당일 가져온 마을엄마의 빵 사진을 잘 찍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자문 결과, 인스타그램을 개설하고 갓 나온 빵·건강한 재료·마음가짐·소소한 이야기를 컨셉으로 사진과 게시글을 매일 올리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앞으로 3개월 간 지속하면 이은숙 이사장님이 마을엄마의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여 추가 자문을 해주시기로 했답니다! 마을엄마협동조합의 인스타그램 <맘스테이블>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문요청 하자마자 바로 연락주시고,  
전문가를 연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 마을엄마협동조합 이진숙 이사장님 소감 -*

## 자문사례 2

# (주)다리메이커 "첫번째 축제를 운영해요. 축제 준비 및 최적화된 홍보 방법이 궁금해요."

자문단 이은숙 (두비비협동조합 이사장)

일시 2024.09.09.(월) 11:00

장소 두비비협동조합 사무실

### 자문요청 내용

10월에 성북구 가족친화 마을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축제 운영이 처음이라 준비부터 홍보 방안까지 적절한 방법을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다리메이커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으로 가족친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0월 9일(수)에 성북구 공유축진사업의 지원을 받아 가족친화 축제를 열 계획인데요. 축제를 실제 운영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알고보고자 <성사경 자문단>의 이은숙 이사장님을 꼭 짚어 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자문은 준비 중인 가족친화축제에 대한 집중 컨설팅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축제 준비 현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기획과 홍보의 연결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타겟팅, 가용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홍보 전략 등을 자문해주셨습니다. 축제를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지점과 최저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주셨다고 해요!

자문결과, 프로그램 대상을 구체화하여 최적화된 축제 홍보 방법을 고안하여 실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필요하면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해요. (주)다리메이커와 두비비협동조합은 센터 4층에 입주해있는 이웃인데요, 참으로 든든한 한지붕 두가족입니다.

*전체적으로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으로  
조언해주셨어요.*

*축제 실무는 처음인데 상황에 맞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려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 (주)다리메이커 박금주 이사 소감 -*



### 자문사례 3

## “행사·축제시 메뉴 개발, 푸드 스타일링 및 다양한 포장을 알고싶어요.”

자문단 이남주 ((주)엘마드레 대표)

장소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등



(주)엘마드레 이남주 대표님은 케이터링, 행사기획, 외식문화콘텐츠개발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먹거리 전문가입니다. 지역 축제·행사에서 먹거리 메뉴 구성과 운영, 푸드 스타일링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은 여러 기업에서 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자문 일시	자문 기업	자문 내용
2024. 09. 19.(목) 15:00~16:30	마을엄마협동조합	행사·축제 시 먹거리 부스 운영
2024. 09. 23.(월) 14:00~15:30	트리플제이앤 파트너스	푸드 스타일링 및 패키징
2024. 09. 23.(월) 16:00~17:30	서울북부두레생협	최신 트렌드를 활용한 메뉴개발
2024. 09. 27.(금) 13:00~14:30	같이가치협동조합	핑거푸드용 한우떡갈비 개발
2024. 09. 27.(금) 16:00~17:30	카페마실	축제 먹거리 부스 상품 구성

마을엄마협동조합은 건강한 재료로 만든 에그샐러드, 당근라페 샌드위치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과 함께 행사 컨셉에 따라 어떤 메뉴를 할지 정하고, 식재료 상수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자문해주셨습니다.

(주)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는 협업 파트너로서 전반적인 외식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여러 시제품에 대해 외부전문가 입장에서 피드백을 전달했습니다.

서울북부두레생협은 도농교류 식료품 중심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대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메뉴를 기획하고, 식자재 레시피 제공을 통해 판매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카페마실은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메뉴를 분석하고 축제나 행사에 선보일 다과 케이터링에 대해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 자문사례 4

# “신사업 개발 및 운영,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고 싶어요.”

**자문단 박준형** ((주)트리플제이엔파트너스 대표)  
(주)트리플제이엔파트너스 박준형 대표님은 가정식소  
핑몰 라운드키친7을 통해 구독형 반찬 서비스를 제공  
하며, 이마트몰 등 다양한 유통 서비스에 진출하여 독  
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전문가입니다. 신사업에 대한 자  
문과 새로운 판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같이가치협동조합 “조직 형태에 따른 판로 확장 전략이 궁금  
해요!”**

일시 2024. 10. 24.(목) 10:00~12:00

장소 홀리데이 (성북구 정릉로40길 40)

같이가치협동조합은 제품 고도화와 판로 확장을 위해 전략적으  
로 어떤 조직 형태를 취해야 할지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자문내용은 현 시점에서의 협동조합, 주식회사 설립 시 전략을  
비교해보고, 기업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진입 시장과 협업 파트너를 명확히 정해 고객이 원하는 상  
품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B2B, B2C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현황  
과 조건을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는 방법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문 결과 기업 목표를 명확히 하여 조직 형태를 결정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했는데, 대표님은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맵을 짜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전문적이라 방향성 부분  
에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같이가치협동조합 유형곤 이사장님 소감-*

● **(주)에이징인플레이스 “구독 서비스 운영 시 고객 소통채널과  
구독료 산정법이 궁금해요!”**

일시 2024.10.28.(월) 13:00 ~ 15:00

장소 (주)에이징인플레이스 사무실

(주)에이징인플레이스는 구독형 주거편의서비스 런칭에 앞서 고  
객과 소통하는 채널 운영방식과 노하우, 구독료 산정 시 고려해  
야 할 사항을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자문 내용은 고객 채널 선택 방법과 구독료 산정을 위해 손익분  
기점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신사업 런칭

시 고객 기반 채널 구축과 유사서비스 분석을 통해 시장 내 독자적인 포지셔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손익분기점 계산을 위해 모든 서비스 흐름을 도식화하여 업무를 구체화하고, 모든 비용을 리스트업하여 플랜을 마련하고, 실제 사업을 통해 조정해가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구독서비스 운영을 위한 랜딩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비스업의 높은 인력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배치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인력 배치 등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 감이 왔습니다.  
자문단 매칭부터 진행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에이징인플레이스 김진구 소장 소감 -*



## 자문사례 5

# 현존명상협동조합 "협동조합 조직 운영과 변경 등기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자문단 조용희 (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일시 2024.09.09.(월) 16:00

장소 현존명상협동조합

자문요청 내용

변경 등기(정관 수정 등), 이용 배당실적 설계 및 운영, 조직 및 프로세스 진단 등

현존명상협동조합은 올바른 명상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입니다.

올해 4월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초기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 성사경 자문단의 조용희 사무국장님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조용희 사무국장님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진 어지기 전부터 10년 이상 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신 전문가입니다. 효과적인 자문을 위해 자문에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주셨습니다.

자문 내용은 협동조합 정관 수정 및 변경 등기에 대한 질의응답,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다양한 사례 제시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 법규입니다. 명칭, 임원, 목적(정관 상의 사업), 출자금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이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조용희 사무국장님은 정관, 회원규칙 등 조직 운영 방향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효율적인 변경 등기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셨습니다.

자문 결과, 변경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내년 초에 한꺼번에 등기 하며,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현존명상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1회차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9월 30일 한 번 더 자문을 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명쾌한 해답과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서  
법률지식과 비용에 대한 부담,  
불안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현존명상협동조합 송강섭 운영위원 소감 -*



성사경 자문단을 찾아주신 분들은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방법을 맞춤형으로, 당장 실행가능한 지침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큰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성사경 자문단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합니다.**

# 1.7

##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워크숍

### 현장 스케치



2024년 11월 7일, 광명으로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왔다. 오전엔 숲길을 함께 걷고 오후엔 광명시 사회적경제와 만났다. 바쁜 일상에서 잠깐 비껴나 생각을 비워내고 신선한 자극을 얻었던 그날의 여정을 기록한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지는 광명. 이른 아침부터 성북구청에 모여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전했다.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에 함께 했지만, 주민들을 만나느라 너무 바빠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뒤늦게나마 전하는 모습이었다. 꽤 쌀쌀한 날씨에도 야랑곳없이 즐거운 대화 소리가 워크숍의 에피타이저처럼 분위기를 들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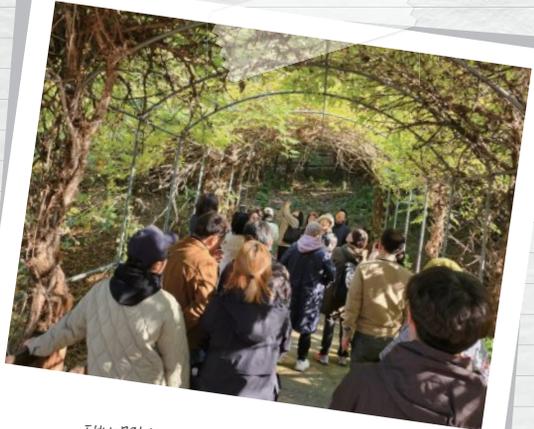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의 테마는 '공정여행으로 만나는 사회적경제'.

광명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시이다. 지역의 문화, 역사,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한 여행 콘텐츠를 통해 지역문화 및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공정여행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공정여행으로 만나는 다른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어떨까? 기대감을 품은 채로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은 첫 번째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도덕산공원에 도착했다.

1.7 현장 스케치



공정여행의 특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간단한 게임을 통해 몸을 풀었다.  
손을 쓰지 않고 로프를 옮기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나무길을 지나자마자 울창하게 펼쳐진 숲  
앞서가기 두서너개 걸음이 맞는 사람과 마음도 맞춰 보는 시간.  
깊어가는 가을, 나무가 떨어진 잎이 바스락거릴 때 대화의 흥취를 더했다.



손 위에 열전박이별로 별레를 올려 보았다.  
인간의 관점에 따르면 해중이지만 숲에서는 다 같은 별레이다.



도덕산 산책의 하이라이프인 줄장다리 건너기!



플랑타리를 넘어 계절을 담은 티타임!



도덕산 산책을 마치고, 공정여행을 응원하며 더 함께 활짝!



마을기업 담다의 유쾌한 스토리와 함께 한 점심 시간.  
사람을 위한 사회적경제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 만들어간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협동조합을 꾸려나가는 이야기가  
점심 메뉴만큼이나 맛갈스러웠다.



이어서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로 옮겨  
광명사거리 1생일책 전문 독립서점  
'읽은 마음' 이연별 대표의 강연을 들었다.

1.7 현장 스케치



사회적기업을 준비한다는 이한별 대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키 테넌트(그 상권에서 고객 유인력이 가장 높은 점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힘을 마음의 고객 유치 전략과 앞으로의 비전을 아낌없이 풀어놓았다. 강연을 듣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나와 생일이 같은 작가의 책을 블라인드로 구매한다는 콘셉트로 서점을 이어오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힘을 마음 생일책을 깜짝 선물로 받았다.



두 번째 강연은 '긍정한 우리의 일상을 만드는 지혜&상자를 열며 만나는 긍정무력 이야기'였다. 상자를 하나하나 여는 동안 긍정무력의 가치에 대해 되새길 수 있었다.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정 가격을 보장해 주는 방식의 무역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들 그 의미가 좋은 줄은 알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제품들이 있기에 공정무역제품을 애써 찾게 되지는 않는다. 공정무역 오픈박스를 열며 공정여행의 참가자들은 공정무역 제품을 써 볼 기회를 얻게 된다. 마케팅적으로 사회적가치를 확산하는 방법이다.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은 공정무역에 이미 친숙하지만 박스를 열어보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유쾌하게 돌파해나가는 힘을 보지 않았을까.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만났다. 사회적가치를 좇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 서로의 고민에 공감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유쾌하게.

연달아 이어진 강연이 끝나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모두 버스에 올랐다. 광명을 벗어나자 바로 서울이었다. 단톡방에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워크숍에 대한 소회를 나누며 우리는 헤어졌다. 그리고 또 만날 것이다.



둥그렇게 손잡은 우리



행복선생님 광명 도덕산 걸기

## 1.7 현장 스케치

---

02

#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성사경 협력사업\_함께할 결심

성사경 워크숍 1, 2

성사경 워크숍 3\_성북구 사회적경제 3.0 점프업 토론회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입주기업 공간자치회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

네트워크 in & out 이모저모

## 2.1

# 성사경 협력사업 함께할 결심

공공구매 공동마케팅 협력사업은  
공공구매 사업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  
업이 모여 상품과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 또는 레  
벨업하고 판로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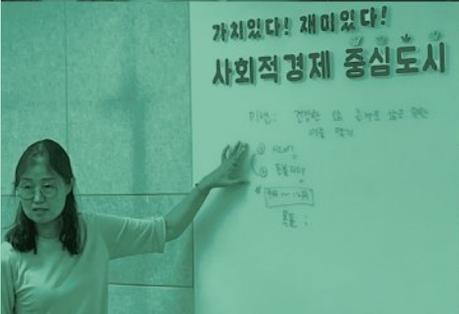
시니어 건강돌봄 협력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모여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범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 촉진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성사경에서는 올해

- ① 공공구매 공동마케팅 협력사업과
- ② 시니어 건강 돌봄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2.1 성사경 협력사업 \_함께할 결심

# 함께할 결심



# 공공구매 공동마케팅

## 1차 워크숍 현장스케치

2024.09.10.(화) 14:00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공공구매 공동마케팅 협력사업에는 마을엄마협동조합, 알록달록협동조합, 카페마실이 참여하였다.

첫번째 워크숍 시간에는 먼저 각자의 사업을 소개한 후에 공공구매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함께 분석하면서 공공구매 실제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각자 느끼는 문제점을 포스트잇에 써보았다.



성북구 공공구매 규모와 현황을 살펴보니 구청, 보건소, 구의회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공공구매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주로 함께누리몰이나 e-store 36.5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입하고 있고, 매년 2월에 공공구매 수요를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부서별로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공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니 “사무용품이나 판촉물을 주로 구입한다”  
“가격이 높고 품질이 떨어진다”

실제 구매 담당자들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새로운 제품은 주위 사람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선택한다”  
“배송과 수령하는 날짜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홍보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었다.

성북구 공공구매 현황과 담당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참여기업 대표님들은 실제 공공구매가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보았다.

‘누구를 위해 만들까? 무엇을 만들까?’

기획·제조, 구매문의·포장, 배송·결제·홍보 단계로 나누어서 아이디어를 분류해보았다.

대표님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와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 2.1 성사경 협력사업 \_ 함께할 결심



‘개별적 고민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구매 담당자는 상품을 선정할 때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제품의 질이 높았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다.

기업에서는 기존 거래처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고 다르게 디자인할지에 대한 고민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구매로 연결시킬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다.

구매문의 단계에서 공공구매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과 포장단계에서의 제로웨이스트 포장에 대한 고민, 갑작스러운 배송문제 대처에 대해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도 했다.

“내가 다른 제품을 구매할 때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니 고객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함께 하는 네트워킹의 해결 방안이 기대된다”

“앞으로의 방향이 보이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우리라는 공동의 마음으로 함께 한 기업 대표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진행해주신 강사님의 열정으로 첫번째 워크숍을 의미있게 마무리하였다.



# 공공구매 공동마케팅

## 2차 워크숍 현장스케치

2024.09.19.(화) 14:00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이번 시간에는 첫번째 워크숍에서 공공구매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봤다. 그리고 상품과 홍보물의 컨셉을 정하기 위해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포스트잇에 써서 공유하고 각 기업의 특색상품과 함께 할 협업상품도 정해보았다.

첫번째 워크숍의 결과를 정리해서 살펴보니 공공구매 담당자들은 홍보물 또는 검색을 통해 상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잘 아는 공공구매 담당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보고 가성비를 가장 크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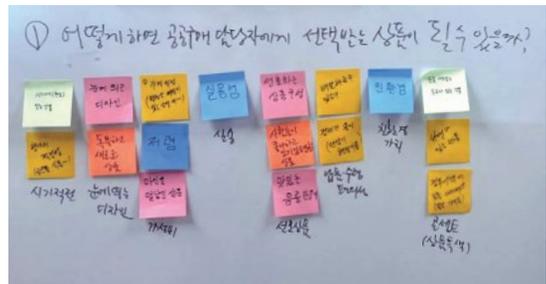
참여기업 대표님들은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와 가격 협상 방법, 매뉴얼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어떻게 하면 선택받는 상품이 될 수 있을까?’

공공구매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우선 우리 상품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디자인과 상품성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가성비와 실용성을 보완하고 사회적가치도 명확하게 전달하여 실제 구매로 연결해야겠다는 명확한 사업방향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개별기업의 차별화된 상품과 함께 기업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브랜드로 콜라보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에도 같이 고민해보기로 했다.



‘홍보가기가 막혀!

효과적인 홍보매체와 홍보물 디자인 방법은?’

상품성, 가성비, 그리고 사회적가치를 잘 담아 공공구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 상품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눈에 띄는 디자인과 타켓 맞춤형 상품 구성, SNS를 통한 홍보와 자세한 후기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했다.

협업을 통해 각 기업별 대표 상품을 정하고 공공구매용 콜라보 상품도 구성해서 품평회를 열어 보기로 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이 만났어요’

“카페마실과 마을엄마 그리고 알록달록이 만났어요”

“삼각관계”, “성북구 수제장인, 내가 진짜다”

콜라보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장점과 역량을 따져보고 가격과 납품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았다. 더치커피와 초코칩쿠키를 손수건에 포장한 가성비 세트와 대추고와 들깨쿠키를 파우치에 포장한 일반세트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했다~

**마을엄마협동조합** “가끔 바느질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알록달록협동조합은 바느질 키트와 설명서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마실에서 만드는 음료에 투명 스티커 제품으로 표시해 주면 훨씬 이쁠 것 같아요.”

**카페마실** “요즘 홀더를 예쁘게 해서 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받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알록달록협동조합에서 포장용 띠를 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록달록협동조합** “협업상품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의 마음으로 다른 기업의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면서 콜라보 상품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동의 힘이 자라나는 두 번째 워크숍도 따스함으로 마무리하였다.

# 공공구매 공동마케팅

## 3차 워크숍 현장스케치

2024.10.08.(화) 14:00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이번 시간에는 각 기업에서 준비해 온 상품을 토대로 공동브랜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보고, 각 기업의 특색상품을 공유하면서 업그레이드 방안도 함께 찾아보았다.

기업별 특색상품과 공동브랜드 패키지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 초안도 만들어 보았다.

두번째 워크숍을 통해 공공구매 담당자가 선택하고 싶은 상품을 만들려면 눈에 띄는 디자인은 물론이고 시기에 맞고 행사 성격에 맞게 가성비와 실용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가 좋아할만한 상품에 사회적가치까지 잘 접목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 구성과 함께 한눈에 들어오도록 상품설명이 잘 담겨 있는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것과, 높은 만족도와 좋은 후기가 포함된 SNS 홍보의 중요성도 인식했다.

공동브랜드 패키지의 상품명은 '삼각관계'로, 슬로건은 '성북구 수제장인 내가 진짜다'로 정했다.

지난 시간에 의논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제라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의 스토리로 어떻게 담기면 좋을지,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 상품을 실제로 구성해보면서 아이디어를 모아봤다.



## 2.1 성사경 협력사업 \_ 함께할 결심

공공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높은 가성비와 매력도를 갖춘 상품이 되려면 대상 소비자와 시기, 행사 성격에 따라 어떤 상품 구성이 필요할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포장은 뭘로 할지, 홍보물은 어떻게 만들지 등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 보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이번 협력사업에서는 각 기업의 상품은 물론이고 패키지 상품과 홍보물을 준비해서 공공구매 담당자와 주민들 대상으로 품평회를 열어 볼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왕이면 구매계약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잘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에 대표님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품평을 받기 위한 개별상품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기업의 주력상품을 정하고 상품을 구체화 해보는 것으로, 공동상품도 넣어서 상품구성을 한 다음에 홍보물도 구상해보았다.

### 마을엄마협동조합

국산 천일염 볶음 소금으로 만든 소금빵

유기농설탕, 뉴질랜드버터 천연재료를 사용한

도형수제쿠키-하트 들깨모양, 네모 초코쿠키

다시 뜨는, 어르신부터 젊은세대까지 사로잡는 고급간식 양갱

### 카페마실

자몽청이나 대추고를 개별병으로 간편하게 패키징

물대신 탄산수 100% 사용한 수제청

### 알록달록협동조합

친환경제품과 파우치

노트북가방, 카드지갑, 미니백

리사이클 트래블백과 플로깅백, 파우치세트

파우치에 자수 레터링으로 포인트

각 기업의 특색을 살리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기업만의 상품을 찾느라 분주했다.

**알록달록협동조합** “얼마 전에 행사를 하는데 앞치마를 보고 가격표가 없다고 어떤 분이 화를 냈어요.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요.”

**마을엄마협동조합** “저희 스크도 촉촉하고 너무 맛있거든요. 사업마인드가 부족해서 좋은 재료로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카페마실** “호불호가 없는 에이드가 많이 팔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공공구매로 납품할때 어떻게 패키징해야 할지가 고민이에요.”



# 공공구매 공동마케팅

## 4차 워크숍 현장스케치

2024.10.22.(화) 14:00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4차 워크숍에서는 각 기업의 특색상품을 구성해보고 기업이미지와 컨셉을 정한 후에, 공동브랜드 패키지 상품 시연과 자체 품평회를 통해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기업별 특색상품과 패키지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 문구도 구상해 보았다.

지난 시간에 정한 컨셉트를 상품 디자인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사고 싶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마을엄마는 독특한 도형 수제쿠키로 재미와 건강을

알록달록은 깜찍한 디자인과 휴대성을 갖춘 친환경 앞반이를

카페마실은 깜찍 발랄한 수제청을 구상해보기로 했다.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 정성껏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다시 모인 대표님들~

실제 구성해온 상품을 펼쳐 놓고 생생한 피드백이 오고 갔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

알록달록협동조합은 친환경 앞반이를 신상품으로 준비했는데, 보급형과 프리미엄급으로 나누어서 천의 종류, 컬러와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첫번째 시간에 공공구매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떠올리면서 경쟁력있는 상품을 위해서 가성비와 확실한 사회적가치의 필요성을 되새겼다.

대상 고객과 용도를 명확하게 정해서 상품을 구성하기로 했다.

‘새로운 브랜딩’

카페마실은 다섯가지 종류의 청을 소용량, 개별포장으로 재구성했는데, 휴대성과 선택의 폭을 높이는 방안과 디자인, 상품명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엄마의 마음으로’

마을엄마협동조합은 장위동의 스토리를 접목한 조선의 주전부리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적절한 상품의 크기와 용량, 재미요소와 가치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워크숍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주고객과 상품의 컨셉이 명확해지고 기업의 대표상품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 시니어 건강돌봄

## 1차 워크숍 현장스케치

2024.09.10.(화) 17:00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시니어 건강돌봄 협력사업에는 문화예술협동조합몽당, (주)히든북,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존명상협동조합 등 총 네 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첫번째 워크숍 시간에는 시니어 건강돌봄의 목표를 정해보고 사업 방향을 수립해보기로 했다.

먼저 각자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은 '한편의 소리, 한편의 스토리, 한편의 연극'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문화예술 공연,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주)히든북은 도심속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시민모두가 쉬어 갈 수 있는 야외도서관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기업이다.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과 의료인들이 협력하여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건강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현존명상협동조합은 요가 명상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업이다.

"시니어 건강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같은 마음으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네 곳의 기업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의 미션과 목표를 정해보았다.

'우리는 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가?'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분들에게 심리치유 연기학교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문화예술 강사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주)히든북**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세대연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해요."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한 마음돌봄을 위해서는 이웃만들기로 시작해야 해요."

**현존명상협동조합** "아픈 분들을 케어하는 돌봄종사자들에게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참여기업의 대표님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지에 써보고, 함께 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강사님이 칠판에 적어가면서 공통적인 한가지의 목표로 모아보았다.

서로 다른 생각과 목표를 하나하나 조정하다 보니~~~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이웃맺기'라는 공통의 미션을 정했다. 시니어에게는 욕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돌봄종사자에게는 감정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제공하자는 목표도 정해졌다.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너무 좋았다"  
 "막연했던 생각이 구체적 결과로 나오니 신기하다"  
 "같은 마음으로 모였으니 협력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다양한 경험을 나누면서 기업 대표님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행해 주신 강사님의 열정으로 첫번째 워크숍이 알차게 마무리되었다!

# 시니어 건강돌봄

## 2차 워크숍 현장스케치

2024.09.23.(월) 10:00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이번 시간에는 첫번째 워크숍에서 정한 공통의 미션과 목표를 바탕으로 시니어 건강돌봄 프로그램의 주요 고객을 정해보고, 각 기업의 핵심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세부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정해보기로 했다.

먼저 지난번 워크숍에서 정한 '건강돌봄과 이웃맺기를 통해 시니어와 돌봄종사자들의 건강한 삶, 즐거운 삶'이라는 공통의 미션을 바탕으로, "시니어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돌봄종사자에게는 감정치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이 있는 협력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목표가 정해졌다.

돌봄종사자가 만날 대상을 생각해보고 각 기업에서 어떻게 실제 프로그램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

시민과 예술이 만나는 문화예술 공동체를 형성하고 심리치유연기학교를 통해 건강돌봄과 마음챙김으로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기업입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사랑에 핵심가치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성찰의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주)히든북

교육격차 해소에 기업의 가치를 두고 책이나 음악을 통해 시니어와 젊은세대 간 소통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면의 화를 잘 다스리고 해소시켜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람의 몸은 마음으로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건강과 마음건강을 위해 노인건강돌봄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핵심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보니 몸과 마음 건강이 함께 가야 하는 돌봄사업의 특성과 세 기업의 조합이 잘 맞다고 느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는 돌봄종사자들이 만날 대상이 되는 시니어와 돌봄종사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아름다운 자기 증명’

물질적인 행복보다 정신적인 행복을 원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시니어들은 살아있다는 존재감과 내가 소중한다는 자존감을 필요로 하며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몸과 마음의 ‘자기성장’

돌봄종사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내면의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강해져야 시니어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즐거움, 자신감, 관계형성’

최근에 간단한 희곡이나 시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봄, 마음봄’ 활동을 했는데, 시니어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

나도 책을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인디 책’ 활동처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깊게 내면을 치료해 주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주)히든북**

상반기에 열여섯분이 건강리더돌봄지도사 자격증을 받으셨다. 이론교육은 마쳤는데 현장현장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현장을 경험해보고 자체적으로 몇 번의 워크숍을 진행하면 향후 어르신들을 방문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다양한 의견을 나눈 끝에 돌봄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의 제목을 ‘느리게 느리게 나이 들’을 위해서 ‘몸 튼튼, 마음 튼튼, 뇌 튼튼’으로 정했다.

몽당이 TCI 검사와 마음돌봄으로 문을 여는 1강과 2강을 열고, 히든북이 노래와 책으로 3강과 4강을 운영하는 총 4강의 프로그램과, 성북의료사회협이 국학기공으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 순서도 정했다.



# 시니어 건강돌봄

## 3차 워크숍 현장스케치

2024.09.30.(월) 10:00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세번째 워크숍 시간에는 시니어 건강돌봄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의미와 프로그램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지난 시간에 정한 각 기업의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보기로 했다.

먼저 기업들이 모여서 협력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의 워크숍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

'꿈짝 아줌마 연예단' 활동할 때 요양원을 다니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주고 공연도 했었는데요.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든 노래를 세상에 펼쳐 보이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기회를 만들어주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각 기업별로 자체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잘 접목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금까지의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대화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되돌아보는 몽당의 연극 프로그램과 히든북의 콘텐츠와 함께 하는 협업을 주위에 소개해 보니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반응이었고 흥미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료사업이 쇠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돌봄종사자 분들이 불씨를 만들어 주시고 기업의 존폐를 고민하던 때에 이번에 건강돌봄을 주제로 의료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히든북

먼저 마음을 열어서 다양한 세대가 섞여 살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나누고 서로 채워가고 만들어가면서 차별성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연해보면서 직접 체험도 해 보기로 했다.

몽당과 히든북의 프로그램 시연이 끝나고 소감을 반영해서 협업 프로그램 순서와 제목을 다시 검토했다.

### 튼튼 삼총사

마음 튼튼, 뇌 튼튼, 몸 튼튼

마음 튼튼 몽당이 1강에서 <나를 돌아보는 산책>을 진행한 후에 시니어들의 반응을 보면서 2강에서 <마주봄>을 진행하기로 했다.

뇌튼튼 히든북이 3강에서 <사람책>만들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몸 튼튼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나를 찾는 힘> 국학기공을 진행하기로 했다.

뇌튼튼 히든북이 4강에서 <나의 노래 만들기>로 마무리하는 협업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 2.1 성사경 협력사업 \_ 함께할 결심

“시니어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제일 불편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서로 모니터링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돌봄을 위해 기업들의 진심으로 만들어진 협력프로그램이 어떻게 완성될지 두근거리는 기대감으로 세번째 워크숍도 따스하게 마무리되었다.



# 시니어 건강돌봄

## 프로그램 개발 현장 스케치

2024.10.22.(화) 14:00  
2024.10.24.(화) 14:00  
2024.10.29.(화) 14:00  
2024.10.31.(목) 14:00

2024 성사경 협력사업 『시니어 건강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돌봄종사자 교육이 총 4강으로 진행되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잘 살았고, 멋졌고, 좋은 일도 많이 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무언가 기억나서 나와 마주하고 멈추었던 시간에 대해 떠오르는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첫번째, 나를 돌아보는 산책

첫번째 프로그램은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의 '나를 돌아보는 산책'이다. 먼저 감정카드를 통해 오늘의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람에게는 칭찬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꼭 듣고 싶은 말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적으면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듣고 싶은 말보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 포스트잇이 붙여졌는데, 내가 좋아하고 꼭 이 말은 듣고 싶었던 말과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 해보았다.

긴장하다 :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내 말이 함부로 인용되어서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긴장감 때문에 좀 긴장한 상태예요. 약간 두근두근 거려요."

### 두번째, 마주 봄

10월 24일 오후2시,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에서 준비한 두번째 프로그램은 '마주 봄'이다.

감사하다 : "사실 늦은 나이에 자격증 몇개를 땀어요.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어요. 잘 되어서 감사하더라구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협동조합 활동도 감사하구요."

사전에 진행했던 TCI 검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TCI 검사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사람의 기질을 알아차려서 대화를 여는데 도움이 된다.

만족스럽다 :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이 오실까 기대도 하면서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앉아서 전체 분위기와 모이신 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새롭게 배우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치매인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고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남편에게, 너무 착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딸에게, 과중한 부담을 내려놓고 싶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의 이사장이 직원에게, 한 명씩 이야기를 풀어내는 상황극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발부터 무릎, 허리, 배를 차례로 쓰다듬어 주고 얼굴도 가볍게 마사지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몸풀기를 했다.

"조언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2.1 성사경 협력사업 \_함께할 결심

“다음 시간에 나눌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각나서 좋았습니다.”  
몽당의 프로그램은 따스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 세번째, 사람책 + 국학기공

10월 29일 오후 2시,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세번째 프로그램은 (주)히든북의 '사람 책'과 성북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국학기공'이다.

어르신들이 쓰시기에 편한 크레파스로 몇가지 힌트를 듣고 책 표지를 그려보았다.

책 제목은 '당근 할머니'~

힌트는 '토끼, 돼지, 포도, 오이, 복숭아, 토마토, 당근, 배추, 새'~

스토리는 돼지가 시골에 있는 토끼 할머니네 집에 놀러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나만의 레시피 책을 만들어 보았다.

'치유의 시간'

내가 느꼈던 '행복 레시피'

관계를 형성할 때 느꼈던 나만의 '만남 레시피'

나만의 '미니멀 라이프 레시피'

당을 낮추기 위한 '건강 꿀팁'

내가 찾은 '스트레스 해소 레시피'

이제 국학기공으로 몸을 풀어볼 시간이다.

가슴에 있는 뜨거운 기운을 단전으로 내리고 신장에 있는 시원한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서 순환되니 몸과 정신이 저절로 건강해진다.



## 네번째, 나의 노래

10월 31일 오후 2시,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열린 네번째 프로그램은 히든북의 '나의 노래'이다.



시로 나만의 노래 만들기~

내 노래 작곡하기의 첫번째 트랙은 '가사 재료찾기'이다.

노래로 만들고 싶은 지난 추억이나 계획을 생각하고 10줄 정도로 작성해본다.

두번째 트랙은 '노래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쓴 글을 구조에 맞게 변환시켜주는 작업이다.

세번째 트랙은 '나의 가사로 작곡하기'

네번째 트랙은 '시에게 원하는 곡 정보 전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르와 악기를 설정하면 나만의 노래 완성

- '10월의 빈 맥주잔'
- '80세 남편을 위한 생일송'
-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
- '여행의 끝에서'
- '짧은 가을'
- '행복한 사람'

히든북에서 준비한 '나의 노래'도 즐거운 이야기와 음악으로 채워졌다.

교육을 모두 마치고 그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피드백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갔을 때 해볼만 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 스스로 치유가 되고 좋았다고 생각되는 점들, 부족했던 점, 교육 전후에 무엇이 달랐는지, 기존에 배웠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들어서 현장에 가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걱정도 되지만 나를대로 변경을 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프로그램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장소 세팅부터 감동이었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딱딱하게 앉아서 강의듣고 얘기들은 교육은 많이 있지만, 감정을 건드리는 자리는 없잖아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지 대상자들에게도 돌봄을 하는 마음의 자세가 좋아진다고 했던 부분이 너무 공감되었어요.”*

*“과거로 돌아갈 때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처음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오롯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도구지만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타래라는 도구가 굉장히 좋았고, TCI 검사 문항을 간소화해서 이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롯이 4주동안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와 관계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진중하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 노래 만들기는 돌봄 대상자와 친밀도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매개를 미리 준비하고 잘 활용하면서 돌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2.2

# 성사경 워크숍 1, 2

워크숍 1.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모여 한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워크숍 2. 지역대표 축제에서 성북구 사회적경제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알리고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모색하고자 <2024 성사경 드림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2024 첫번째 워크숍

23년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24년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2024.02.27.(화) 10:00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2024년 2월 27일, 성사경 첫 번째 워크숍이 있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성북구의 사회적 경제 구성원들이 모여 지난해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올해 성사경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입주기업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의견을 나누었다.

각 기업과 단체에 대해 소개하고,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내용을 공유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연대하는 사회적경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이기도 했다.



어느새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샌드위치를 먹으며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든든한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있어 성북구 사회적경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

2.2 성사경 워크숍 1, 2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최태영 이사장



성북구공정무역센터  
김명규 센터장



서울북부두레상협  
남미희 이사



햇별은쟁쟁사회적협동조합  
김가희 이사장



같이가치정릉시장협동조합  
유형곤 이사장



에듀닥터바른배움협동조합  
정옥 이사장



문화예술협동조합몽당  
이도유제 이사장



(주)다라메이커  
강호산 대표



HBM사회적협동조합  
박선영 연구원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박진갑 센터장

# 2024 두번째 워크숍

## 성사경 드림패키지 구성

2024.03.29.(금) 10:30  
극단날으는자동차 지하1층 다목적홀



두 번째 워크숍 장소는 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지역자산화협동조합, 나눔과미래 그리고 날으는 자동차 등 성북구의 4개 기업이 최근에 준공한 지역자산화 건물로, 층별로 특색있게 꾸며진 사무공간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성북구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멋진 드림패키지를 만들어서 지역의 대표 축제에 참여한다면, 행사의 내용도 풍성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사회적경제가 더욱 재미있고 친근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2024 성사경 드림패키지> 구성이다.

\* 자세한 워크숍 내용은 152P. 참고



## 2.2 성사경 워크숍 1, 2



## 2.3

# 성사경 워크숍 3\_ 성북구 사회적경제 3.0 점프업 토론회

세 번째 워크숍의 주제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3.0 모색을 위한 과제와 방향>  
입니다.

성공회대 김연아 교수님의 기조발제에 이어 성북구  
사회적경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기조발제

### 성북구 사회적경제 3.0 모색을 위한 과제와 방향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 사회적경제 정책 환경 변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배경
- 변화한 사회적 경제의 환경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 모색
- 대응전략 : 시장이 아닌 지역, 민간이 아닌 주민 중심의 발전 모색 필요
- 현대사회의 위기, 지역사회 중심의 혁신과 사회적경제
- 성북구 사회적경제 3.0 :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공동 전략이 있는가

## 주제토론

### 진행 방법 : 개인의 생각을 키워드로 작성하여 개별 발표

이경희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



# 2024 세 번째 워크숍

## 성북구 사회적경제 3.0 Jump UP 토론회

2024.07.02.(화) 10:00  
성북구사회경제센터 3층 교육장

세 번째 워크숍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센터, 공정무역센터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기관의 대표님들, 실무자님들이 함께했다.

센터장의 인사 말씀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만나는 분들마다 사회적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많은 기업이 생존을 고민하고 있구요.

하지만 들여다보면 항상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협동과 연대의 힘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역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빛날 5년, 10년 후의 성북구 사회적경제를 상상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공회대학교 김연아 교수님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짚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기후 위기 등 현대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복잡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4월 18일, 제 77차 유엔총회에서 190여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돌아보는 경제, 그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이다.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시장과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사회적경제는 사업하기 좋은 사람이 모여서 기업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이 모여서 공동의 필요를 조달하는 경제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 아닌 '지역'

'민간' 아닌 '주민' 중심의 발전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은 개별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살아남으려면 연대하라!"

여기서 이번 토론회의 메인 테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물들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사회적경제의 현주소, 앞으로 나아갈 길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초 발제가 끝난 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이경희 트레이너의 진행으로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물들다! 라는 주제 아래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조직 속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첫 번째 질문 :

**"우리 기업의 핵심 사업은?"**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두 번째 질문 :

**"우리 기업의 철학은?"**

토론회에 참석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각 기업의 철학은 이렇다.

- "소통 존중 성장"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
- "조그만 흔적만 남는 삶의 기술" "가족이 행복한 세상"
- "탈탄소, 탈성장" "연대"
- "기후돌봄" "지역에서 나이들기" "사랑"
- "함께 살기, 잘 살아남기" "진심"
- "개인의 일상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마음돌봄"

철학속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치들이 다 모여 있었다.

다음 질문 : 사회적경제 조직 속의 '나' 돌아보기  
"조직 안에서 나는 (어떤) 구성원이다"

이렇게 사회적경제 조직 속의 '나'를 돌아보고, 서로의 가치와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다.

- "(우리 기업이 지역에서 이루어 낸) 성과는?"
- "불평등 해소, 부채 해방" "가족의 소통을 만들었다" "학생들의 심리를 치유했다"
-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성북에서 노인들을 가장 많이 만난 청년들이 있는 기업" "성북구에서 '취약계층' 집을 제일 많이 고친 기업" "공정무역 인식 확산"
- "문화예술인과 주민들이 만나 심리치유 연기학교로 발전함" "자존감 UP!"
-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기후위기 공론화" "공동체 활동 경험"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성북구 사회적경제가 지역안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다음은 토론회 진행자인 이경희 트레이너의 당부이다.

"일로 만나기만 하면 힘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일로 만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시작해서 공공의 이해관계로 발전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 해요. 서로 잘 모르면 평가만 하게 돼요. 그런데 서로 잘 알면 이해가 가고 공감이가요. 지지하고 응원하게 돼요. 그러면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소감을 나누었다.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구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아는 사람이 70프로 80프로 100프로가 될 때까지 때때로 만나면 좋겠다"

"우리 조직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 서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떠올려보게 되었어요"

김덕원: 선입견 없이 서로의 마음 속을 유추하며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리였고, 좋은 시발점이 된 것 같음

조미연: 소개하고 소개 받는 시간, 의미 있었음

박승희: 생각보다 재미있었음

김영규: 오랜만에 처음 보는 분들 만나 즐거웠음

백승훈: 즐거웠음. 때때로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함

이도유재: 네트워크 필요성 못느끼고 있었으나 이 시간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연대 중요성 인식하는 계기가 됨

이현주: 추상적이었으나 잘 알게 됨

박윤경: 유쾌한 이야기 나누되 부족한 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참여자들 연락처 공유되었으면 함

권대익: 나아갈 방향, 각자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곽선숙: 다양한 사회적기업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음.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 기대

김진규: 기존에 네트워킹보다 현장을 우선했었는데 좋은 정보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김가희: 기업의 철학 공유할 수 있어 의미 있었고, 돌아가서 조합원들과 더 깊이 의견을 나누면 좋겠음

신선화: 서먹한 공동작업 재밌었음

이은숙: 만나서 좋았음

김경서: 오랜만에 네트워크 할 수 있어 좋았고, 이전까지 왜 네트워크 자리에 못나왔는지 이유를 고민하게 됨



##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 돌아보기

이름/기업명	① 핵심 역량 사업	② 핵심 철학
강호산 / (주)다리메이커	근로자복지 워케이션 제공	행복한 가정 만들고 확산
나수연 / (주)다리메이커	아이돌봄이 포함된 패밀리워케이션 사업	가족이 행복한 세상
박금주 / (주)다리메이커	근로자 복지를 여가콘텐츠와 교육을 통해 제공	가족이 행복한 세상
정재이 / (주)다리메이커	아이돌봄이 가능한 일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가족이 행복한 세상
권대익 / 서울북부두레생협	살림	연대
곽선숙 / 서울북부두레생협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 판매	환경보호
김가희 / 햇별은쟁쟁사회적협동조합	제로웨이스트숍을 통한 주민워크숍	함께 잘 살아남기
박윤경 / 햇별은쟁쟁사회적협동조합	제로웨이스트숍	(탈탄소)탈성장
신소연 / 햇별은쟁쟁사회적협동조합	기후위기 대응	조금의 흔적만 남기는 삶의 기술(비)
김경서 / (주)아트버스킹	문화기획	개인의 일상을 바꾸면 세상을 바꾼다
김경예 /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장애, 비장애 통합돌봄 마을 평생 돌봄	지역 안에서 차별 없는
김영규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지역 내 공정무역 문화 확산	주민 주도적 참여와 지구마을
김진구 / (주)에이징인플레이스	낙상예방집수리	에이징인플레이스(지역에서 나
백승훈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 경제교육	주도적인 경제생활과 자존감
박준형 / (주)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	식품제조업 및 유통	-
신선화 / 알록달록협동조합	이주여성 지원	높은 퀄리티(상품)
이도유재 /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	심리치유연기와 10분연극제	사랑기반 마음돌봄
이현주 /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	심리치유연기와 10분연극제	마음챙김
양한나 /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	느린학습자사업	심리 치유 주도적 하기
이은숙 / 두비비협동조합	문화예술기획	함께 먹고 살자
조미연 / 성북지역자활센터	근로 기회	지역주민과 함께 활기찬 일자리
김덕원 / 성북지역자활센터	자활역량 강화	소통, 존중, 성장
박승희 / 성북지역자활센터	자활 근로복지	지역주민과 함께 활기찬 일자리

	㉠ 조직 안에서 나는(어떤)구성원이다	㉡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이뤄낸 성과
자산	조직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일·가정 양립
장	늘 진심인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소통
장	생각하고 관리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
장	사람과 동료들과 공감	가족구성원 이해, 사랑, 소통 중요성
	조합원으로서 운영을 위임받은	연대의 중심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연관에 대한 인식 향상
	일 별리는/몸사리는	기후위기 공론장 운영
	힘 쓰고 애쓰는	주민교육 공론장, 기후·탄소중립 정책 생산
술(비움, 나눔)	손과 발로 뛰는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바꿀 수 있다	리더(구성원을 섬기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동 경험
는	-	-
을 공동체	연대를 조직하는	공정무역 인식 확산, 성북구 내 초등학교 25%, 유학생 21% 교육 진행
나이들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노인과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청년이 있는 기업
감 회복	굴러들어온 바위 같은	불평등 해소, 부채 해방, 꿈꾸는 지갑(세대간불평등해소, 학자금대출완화)
	-	-
	베스트 드라이버이고 싶은	이주민 인식개선
꿈	나는 챙겨줘야할 몫이 있는(다른구성원)	협동조합 구성원이 시민과 문화예술인 연결
	아직은 재밌게 즐기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외 활동 확장
기	이름 없는 구성원	학생에게 참여 경험
	소명을 찾는	지역사회 기여하는 씩이 존재함을 알림
자리 제공	성장 지향 구성원	참여자 경제 확대. 자활 근로 기업(7개), 사업단 자활 근로 사업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존감UP.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지원
자리 제공	스스로 동기부여 되는	역할 가져보기. 자활 참여자 자격증 취득 및 근로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역할 갖도록 제공

## 2.4

#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_ 교류회

2024 협동조합 주간을 기념하여  
성북구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류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24 협동조합 주간행사

##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물들다!' 협동조합 교류회

2024.07.04.(목) 16:00  
국민대학교 청향



협동조합 교류회는 2024 협동조합 주관을 기념하여 성북구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참여기업 소개 및 아이스브레이킹,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다과 및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동조합 교류회는 성북구청,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주)히든북이 함께 기획하였으며, 진행은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이 맡아주었다.

내빈 소개 및 인사말에 이어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에서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

따뜻한 말 전하기, 속담을 몸으로 표현해 전달하기 등 소통과 힐링의 시간이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난 후에는 2024년도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이번 표창은 협동조합 단체 3곳, 개인 2분에게 주어졌다.

유공 기업으로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이,

개인으로는 이문수님(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배미영님(너른마당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수상하였다.

표창장 수여에 이어 준비한 다과와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교류회 시간을 가졌다.

협동에 반하고, 연대에 물드는 시간이었다

## 2.5

# 입주기업 공간자치회\_ 워크숍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4층과 5층에는 총 14개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가 입주하여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상호협력과 연대,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교육, 워크숍, 정보교류, 공동사업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입주기업 공간자치회를 구성하여 월례회의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주기업 공간자치회

## 2024년 입주기업 워크숍

2024.05.07.(화) 11:00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해 있는 14개 기업 및 단체들은 자치조직인 입주기업 공간자치회를 구성, 월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5월 공간자치회는 지난 4월 센터에 새롭게 입주한 기업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월례회의라 협력과 연대를 다지는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기업 대표님들이 각자 오늘의 감정카드를 뽑아서 발표를 해보고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예쁘게 적어 소개해보는 뜻깊은 시간도 가져보았다.

“메시지, 페스티벌, 연결, 프로불편러, 슬기로운 사회생활, 꿈, 커뮤니티, 뽐나게”

단어 하나하나에서 대표님들의 가치관과 기업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재미있는 년센스 퀴즈를 맞추며 센터장님이 준비한 로또 선물도 사이좋게 나눴다.(1등 당첨되면???)

점심은 성사경이 준비한 라면과 함께~

화기애애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 2.6

#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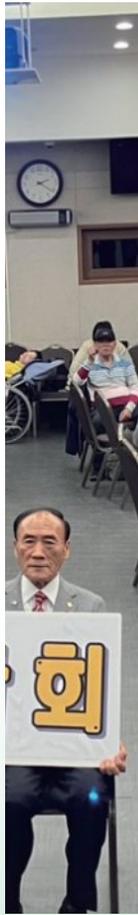
이를 위해 개방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며, 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는

2022년 3월에 출범하였으며, 27개 단체를 포함하여 총 6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이다.

2.6 성북사회적가치실천연대



## 2.7 네트워크 in & out 이모저모



부산시해운대구의회의원 센터 방문(10.21.)



사회적경제 여성기업인 간담회(3.8.)



성북구의회의원 간담회(5.29.)



---

03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성사경

---

성사경 드림패키지

정릉교수단지 정원축제

정릉더하기 축제

성북문화유산야행

사랑나눔연합바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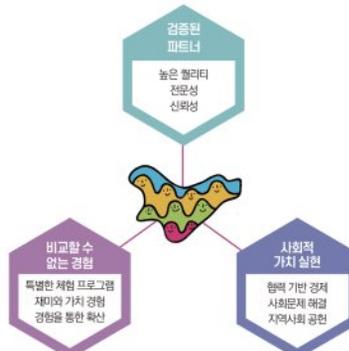
정릉시장 핀초포테 페스티벌

# 성사경 드림패키지

성북구 사회적경제의 대표 상품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성사경 드림패키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성사경 드림패키지를 통해 행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성사경 드림패키지



**성사경 드림패키지 운영 프로세스**

1 행사의 취지, 내용, 규모, 대상 고려   2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3 센터-수요처 간 협의   4 행사 운영   5 평가

문의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전화 02.927.9501 | 메일 sbmase3@gmail.com

## 성사경 드림패키지



성북구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  
지역사회 및 주민과 함께

 sb 성북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 생태 · 문화다양성



**1 Respect the Difference 키링만들기**  
다름을 존중하자 결혼이주여성과 문화 다양성을 담은 자수 기령 만들기



**2 실크스크린 워크숍**  
종고문예기후 위기 메시지를 실크스크린 방법으로 새겨보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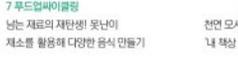
**3 코끼리뽕 종이 카드 · 수첩 만들기**  
코끼리 뽕으로 만든 종이로 친환경 카드 (또는 수첩) 만들기



**4 꽃차 만들기**  
색의 향연, 눈고임이 향기로워지는 꽃차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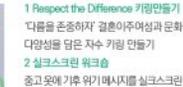
**5 천연 수제비누 만들기**  
친구, 가족과 함께 천연비누를 만들어 갖는 친술한 소통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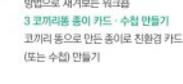
**6 생태두어**  
정통친 일대 생태를 관찰하는 생태 두어



**7 무드업사이클링**  
낡은 재료의 재탄생! 못난이 재소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 만들기



**8 옥수수값살 꽃 디퓨저 만들기**  
옥수수 값을 말려 염색해 예쁘게 피어내는 디퓨저꽃 만들기



**9 수제 과일청 만들기**  
재활과일로 천가를 잃는 건강한 수제청 만들기



**10 모시빗자루 만들기**  
천연 모시물을 이용해 만드는 내 책임 위 작은 미니 빗자루

### 소통 · 놀이 · 아트



**1 소규모 샌드위치 만들기**  
당근라미, 에그마요, 바타향 참마가 가득한 소규모 빵과 건강한 채소 다한 샌드위치 만들기



**2 샌드위치 만들기**  
차곡차곡 재료를 넣어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기



**3 도립떡 만들기**  
카페에서 파는 커피 아이스는 맛볼 수 있는 도립떡 만들기



**4 도립떡 만들기**



**5 도립떡 만들기**



**6 도립떡 만들기**



**7 도립떡 만들기**



**8 도립떡 만들기**



**9 도립떡 만들기**



**10 도립떡 만들기**

드림패키지 참여기업



**2024**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축 제 · 행 사 · 맞 춤 형 · 슬 루 셴

# 성사경 드림 패키지

더 재미있고 더 풍성한 축제·행사를 위해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상품을  
맞춤형으로 구성해드립니다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Seongsbukgu Social Economy Center

성사경 드림패키지

구성

체험 프로그램

- 지구를 위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 재미있고 즐거운 문화·예술·소통 체험 프로그램
-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

판매 상품

- F&B 유기농 밀과 건강한 재료로 직접 만든 맛있는 무드와 음료
- 핸드메이드 제품 친환경 재료·기후유기 메시지 문화·양성이 담긴 가치 있는 핸드메이드 제품

특징

재미있고 가치 있는 사회적경제 대표 프로그램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하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축제/행사의 취지와 목적, 기관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사회적 가치 경험 기회 제공

사회적 가치를 즐겁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마켓 참여(상품 판매)

F&B

Food

샌드위치, 도시락, 샐러드, 까나리 등



Bread

유기농 밀로 만든 소금빵, 소보로빵, 호두단팥빵, 베이글, 소보로식빵, 우유식빵 등



Dessert

스콘, 대파스콘, 호두초코칩쿠키, 소보로쿠키, 과일, 간식 쿠키미 등



Beverage

커피, 허브차, 꽃차, 식혜, 한방차, 무농약 미숫가루 등



핸드메이드 제품

친환경 재료로 만든 코끼리통 종이 수첩 열서(완제품/키트), 모시및자루(완제품/키트), 삼베 수세미, 리사이클 가방



결혼이주여성인 만든 Respect the Difference 키링, 카드지갑, 패브릭 앞치마, 도시락 파우치, 슬리 애코백, 미니버킷백, 와인파우치 등



기후유기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입는다' 티셔츠·브로치·패치,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키링



동명 해안가에 버려지는 글 캠프기로 만든 '리노 오이스터 바다비누(다시마/동백/아성초)



1 비단부채 만들기  
파브릭 면을 이용해 동백꽃이 그려진 비단 부채 만들기

2 꽃동 만들기  
한지에 피아는 꽃 한송이, 은은하게 꾸는 한지 꽃동 만들기

3 도자기 만들기  
그마(오)가 가득한 한지 재료를 이용한 도자기 만들기

4 손등기  
색을 넣어 꾸미고 꾸미기

5 6 금공예로  
경쾌히 일고 똑똑하게 소파하는 경제 습관을 만드는 내 지갑 만드실

7 월매 공동단 "살기아 놀자"  
월매와 함께하는 24절기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놀이와 체험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2024년도 성사경 드림패키지 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 회의

2024.03.29.(금) 10:30  
극단날으는자동차 지하1층 다목적홀

## 참여 기업 및 기관

햇볕은뽕뽕사회적협동조합, 카페마실, (주)히든북, 알록달록협동조합, 같이가치정릉시장협동조합, (주)엘마드레, 더이음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마을엄마협동조합, 협동조합에듀닥터바른배움, (주)다리메이커, 잇다사회적협동조합, 날으는자동차, 성북지역자활센터,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 1. 상호 인사 및 아이스 브레이킹

- (공간 소개) 날으는자동차(박정선 단장):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고민 속에 여러 기업(이상도시, 나눔과 미래, 날으는자동차, 지식산화협동조합 등)이 공간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초 이사. 최소 10년은 이 자리에 있을 예정으로 지역의 다양한 분들과 협력하고 싶음. 원래 연극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여러 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홍보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함.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되었으면 함
- **히든북** 다양한 기자재(의자, 테이블, 파라솔 20인치 스크린 영상장비 등) 보유
- **마을엄마** 장위동에서 활동, 건강한 먹거리로 제과제빵 주력
- **다리메이커** B2B로 가족복지, 일과 가정 양립 프로그램 운영, 연계 의사 있음
- **알록달록** 보문동 위치, 이주여성들과 패션 소품 제작
- **잇다** 작은도서관 지원, 독서활동가 양성, 문화행사 기획
- **카페마실** 카페 관련된 모든 활동. 마술빛자루협동조합과 같이 자활기업임. 사업장 추가로 얻어 교육영역 준비 및 사회공헌 준비 중
- **성북지역자활센터**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 회의 참석을 원했음
- **햇볕은뽕뽕**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교육, 정릉역 호박이닝콜책 공간 활용하여 자원순환 워크숍 진행
- **더이음** 사경센터 입주, 올해 11월에 센터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 일상과 삶에 문화 예술의 가치를 더한다는 미션으로 시니어 돌봄 영역에서 서비스 종사자 대상 또는 돌봄 대상자 프로그램 기획 운영 준비 중

- **에듀닥터** 사경센터 입주. 주력은 아동청소년 진로, 학습 관련. 에니어그램 통해 소통에 중심인 종사자, 학부모 등 스트레스 완화나 의 사소통 진행하고 있음
- **정릉시장** 소상공인 판로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하는 협동조합이고 공헌사업으로는 개울장, 시장 나들이, 협업 활성화, 판로 지원 사업, 박람회 참여 등 진행. 소상공인의 판로를 전국으로 넓히고 문화예술 기획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가성비 있는 축제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함
- **엘마드레** 성북동 먹거리 문화 콘텐츠 케이터링 사업 주력. 최근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민과 공부 및 행사 진행. 먹거리 중심으로 다양하게 교육 콘텐츠화 하는 사업 진행

## 2. 사업 브리핑

### 1)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2024년도 사업 계획(요약)

- (가치)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마다 목표는 다르지만 모두 담아 다양한 영역(복지 등)과 전문성을 갖고 결합하면 좋겠음
- (성장) 기업의 성장이 곧 가치 확산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장아카데미, 핵심리더 양성과정 계획 중. 기업별로 집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가치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적정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교육 준비, 관련 워크샵에 많은 참여 요청
- (경험) 주민체험 프로그램(성사경 뽀뽀뽀) 등 주민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사회적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sns에 자랑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기획 중
- (확산) 협력 사업 통해 어떤 성장모델 만들어 갈지 사전 워크숍 추진할 계획
- 협동조합 주간 행사 등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 외부 공모사업과 골목상권 협력하여 사경 기업의 가치와 실행력 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즐겁게 기다려지는 행사를 같이 만들어 가고자 함

### 2) 드림패키지 구성 및 활용

- '성북구 사회적경제 드림패키지(가칭)' 구성하여 리플렛을 제대로 만들어 대표상품 신고, 완성되면 외부 기관 등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
- 행사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 패키지를 재구성하여 개울장, 정원축제 등 지역의 대표축제에 참여
- 사업 제안 및 설명 듣고 패키지에 넣을 상품 소개 내용을 잘 기록하여 그것에 맞는 자료, 사진 수집하여 리플렛 제작 예정

## 3. 기업별 대표 프로그램 소개

### 1) 햇별은쟁쟁

- '햇쟁사회'에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덜쓰기 차원으로 자연, 인간에게 무해한 천연재료로 비누바, 샴푸바, 주방세제 등 제작
- 올해 '수리할 권리'차원으로 우산 수리 등 직접 수리 프로그램 지원 예정

- **개울장** 생태 수업 일환으로 정릉천 투어 진행
- 우리 동네 보물찾기단: 동네 탐방 프로그램 노하우 있어 같이 개발하면 좋겠음
- 장기적으로 친환경 축제 위한 방식, 매뉴얼 등 3無(쓰레기無 등) 방안 만들고 싶음

## 2) 더이음

- 전통문화를 테마로 모시빚자루 만들기, 짚풀 관련 프로그램 가능
- 환경과 연결하여 친환경 풀로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가능. 옥수수 껍질 디퓨저 스틱 만들기(꽃모양)
- 체험은 축제 프로그램 컨셉 맞춰 기획 가능

## 3) 에듀닥터

- 기존 수업(아동청소년, 부모 중심 대상 에니어그램 표준화 검사 등)
- 최근 정릉어울림축제에서 비누만들기 체험과 부모-자녀간 소통 프로그램 결합하여 운영(비누 굳는 20분 활용).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의미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였음
- 관련하여 학부모는 학습코칭 스몰토크, 가족 소통은 성격 유형별 소통 및 대화방법, 스트레스는 에듀닥터 노하우로, 소통/성격유형/학습/진로 등 접목 가능

## 4) 잇다

- **할매놀이** 65세 이상 할머니와 함께 24절기 관련 프로그램(놀이 도구 만들기, 간단한 체험-불 없이 가능), 할머니와 직접 하는 전통놀이와 이야기 운영 가능

## 5) 마을엄마

- 유기농 밀가루로 빵과 과자를 만들고 있음. 이를 활용한 샌드위치 만들기 등 운영 가능

## 6) 다리메이커

- 질문카드(부모, 부부, 자녀) 제품 보유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소통을 중심으로 한 오디오, 미술 프로그램 등 운영
- **소통까페** 카페 공간(축제 부스 활용 등)을 만들고 인원을 정해 다과와 함께 소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만들고 있음. 개별 또는 협력 운영 둘 다 가능
- 최근 숲체험 대표와 환경 주제로 나무심기, 돛자리 소풍 느낌 주는 프로그램 기획

## 7) 히든북

- 판을 깔아주는 역할. 축제 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함 (서울 책 광장, 여름 축제 수영장, 쉼터, 놀이 공간 등)
- 장비 다수 보유

## 8) 엘마드레

- 어떤 형태든 결합 가능(문화예술, 먹거리, 체험 등). 퀄리티와 수익 구조 중요하다 생각. 문화 및 행사기획 협조 가능. 소품, 인테리어 공간, 먹거리가 좋은 아이템 등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역 있음
- 현재 공간 운영하며 먹거리 수업 진행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사 연수까지 확장
- 4/18 먹거리 프로그램으로 요리 수업 진행, 패키지 판매 고민 중
- **치유 프로그램** 30명 정도 돌봄 밥상 운영 가능
- **성북동 마켓** 사회적 가치 지닌 상인들과 결합하여 올해 4회기 축제 예정. 지역 활성화에 관심이 높음. 먹거리, 청년, 예술가 섭외하여 문화 기획 중. 그릇 비워내기 차원으로 '쓰던 물건이지만 가치 있게 쓴다.' 사회적 가치 슬로건 걸고, 지역 공방 살리기 목적으로 피드백과 정산 교육도 같이 함
- 컨셉만 정해지면 문화적 먹거리 요소 묶어서 도움 줄 수 있음

## 9) 정릉시장

- 전통시장은 예산이 풍부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업체가 많지만, 이를 알지 못해 아쉬움. 타지역 상인회장들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자원 정보를 알고 싶어 함
- 작은 사업부터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나, 각 기업의 사업을 잘 모르는 상황임. 지역 내 활동하는 기업과 사업들을 소개받고 향후 협력 가져가고 싶음

## 4. 질의응답 및 의견

### 1) 드림패키지 리플렛 형태와 내용

- **알록달록** 각 기업별 분량, 형태(리플렛OR책자) 문의.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경우 더 풍성한 내용을 담은 책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센터장**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용에 따라 디자인을 맞출 수 있음.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제작하면 좋을 듯함
- **정릉시장** 지도와 상점 명칭을 포함하여 큐알 코드를 추가하여 기업 정보 연동되니 좋았음. 중요한 건 실행 과정 영상 기록을 잘 남겨 공유하는 것. 전국상인연합회에 공유하기도 함

### 2) 올해 개울장 운영 계획

- **마을엄마** 작년의 경우 주민 참여 수가 적고 수공예에 집중된 형태였는데 올해 계획은?
- **정릉시장** 올해도 매달 1회씩 기존 포맷으로 가볍게 운영 예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기에 상인 참여와 전통시장 연결에 힘을 쏟고 있으며, 올해는 대학, 캠퍼 등 예산을 갖고 참여하는 단위도 많아짐.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임

### 3) 기타 의견

- **정릉시장** 축제 참여 통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축제를 기반으로 가치를 알리고, 판매는 같이 묶어서 가는 방향이면 좋겠음. 축제 프로그램 유료화 결합도 가능. 정릉시장은 카카오프러스 친구 3,700명으로 클릭률이 높아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은 5분만에 몇백명이 마감되기도 함
- **히든북** 축제마다 어울리는 장소와 공간이 다르므로 팀을 나눠서 진행하면 좋겠음. 축제 자료와 사진을 미리 제공하면 참여자들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을 듯
- **엘마드레**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요청. 퀄리티있게 브랜딩하여 기획하는 것이 중요. 파트별, 기업별, 지역별 등 팀별로 구분하면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 3.1 드림패키지

# 정릉교수단지 정원축제

일시 5월 10일(금)~11일(토) 11:00~17:00

장소 정릉교수단지

주민들이 정성껏 가꾸고 관리해서 집집마다의 특색이 가득한 정원을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정원축제~

주민주도로 10년 넘게 꾸려오고 있는 정원축제에 올해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도 기획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더욱 풍성하고 알찬 축제가 되었답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즐겁게 진행했던 과정들을 성사경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follow follow me~  
꽃 꽃 꽃을 심읍시다!

지난 4월 13일 토요일,  
아침일찍부터 성사경 팀원들도 주민분들과 함께 골목길을 따라 예쁜 꽃들을 심었어요. 5월 정원축제가 열릴 때 쯤엔 더 예쁘게 자라 있을 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으며 준비했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주민분들의 마음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원축제가 뭐예요~?”

2008년,  
정릉교수단지를 덮친 재건축 이슈로 인해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나뉜 주민들간의 갈등을 현수막이나 메가폰이 아닌 꽃과 정원을 가꾸며 소통하고 갈등을 풀기로 했다고 해요.



개개인의 정원을 일반주민들에게 이틀동안 개방하면서 정원가드닝, 마을 투어, 전시와 공연 그리고 플라마켓까지 정릉 교수단지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지금까지 매년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 계절의 여왕 5월 <정릉교수단지 정원축제> 시작

이곳저곳 예쁘게 단장하고 주민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근두근) 이색 비빔밥 꽃비빔밥을 드셔보셨나요??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맛보는 꽃들이라니...

“저기...들어가도 되나요..?”

활짝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보이는 예쁜 정원을 보시고 한 주민



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기다렸다는 듯 주인분께서는 "물론이죠~"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신답니다.

이번 정원축제엔 총 16곳의 정원을 개방했는데요. 각자 남다른 개성을 뽐내는 예쁜 정원들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렸던 <정원축제> 서울에서 유일한 정원축제라고 하네요!

## 사회적경제와 함께 한 플리마켓 & 체험프로그램

이번 정원축제 플리마켓은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마을의 상품들로 Special 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사회적경제를 아주 쉽게 소개드릴테니 몸만 오세요.

굴껍데기를 재활용 하여 천연 비누를 만드는 (주)블루랩스의 굴 껍데기 비누

결혼 이후 다문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알록달록협동조합에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

패브릭 앞치마, 도시락파우치, 미니가방

자원 순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햇별은쟁쟁 사회적협동조합과 길음역에 위치한 일상공감에서 준비한 다양한 자원순환, 친환경 제품들~까지~~

오잉? 플리마켓에서 쿠폰도 받아주네요?

성사경에서 사회적경제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5천원을 내시면 플리마켓에서 이용할 수 있는 5천원 상당의 쿠폰으로 교환해드립니다!

체험도 하고 핸드메이드, 친환경 제품도 구입하고~ 일석이조! 핑 먹고 알먹기?

아이들은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5천원 쿠폰으로



### 3.2 정릉교수단지 정원축제



플리마켓에서 뭐 살까?

초롱초롱한 눈으로 구경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예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아주 반응이 뜨거웠던 체험프로그램 현장도 보여드릴게요!

더이음문화예술교협동조합에서 준비한 인기폭발 <비단 꽃부채 만들기>와 햇별은쟁쟁사회적협동조합에서 준비한 아이들의 옷음포인트였던 <코끼리똥종이 수첩만들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 멋쟁이 할아버지들의 하모니카공연 &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3시에는 교수단지 할아버지 주민분들의 멋진 하모니카 공연이 있었습니다! 보통실력이 아닌 하모니카 연주를 초록초록한 정원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낭만적 이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이 진행되었는데요. 목소리를 바꿔가며 재미나게 인형극을 해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신나고 재밌었던 정릉교수단지 정원축제 성북구 사회적경제 리플렛을 나눠드리며 주민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기려고 노력했는데 느끼셨나요?

토요일 오후에는 비가 내렸지만, 금요일보다 더 많은 주민분들이 정원축제를 찾아 주셔서 체험프로그램은 일찍 마감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반응 감사합니다.

이번 정원축제에는 플리마켓부터 체험까지 여러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쁜 공간을 구성하는데 힘써주신 (주)히든북 대표님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회적경제 체험프로그램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 정릉더하기축제

일시 6월 15일(토) 13:00~17:00

장소 정릉입구삼거리 교통광장 및 성북아동  
청소년센터

6월 15일(토) 오후 1시, 정릉입구삼거리 교통광장 및 성북아동 청소년센터에서 '정릉더하기축제'가 열렸습니다. '정릉더하기축제-마을이 놀이터다'는 정릉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데요.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모두가 포함된 축제"였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성사경이 빠지면 서운하겠죠? 그래서 성사경도 함께 했습니다.

주민들이 친근하고 재미있게 사회적경제를 체험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성사경이 아주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가치서바이벌 핑거풋볼 게임'입니다.

길놀이 연극과 함께 드디어 정릉더하기축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성사경이 운영한 '가치서바이벌 핑거풋볼게임'의 인기 실감나시죠?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성사경 부스를 찾아주셨는데요. 어린이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 친구 그리고 어른들까지 모든 연령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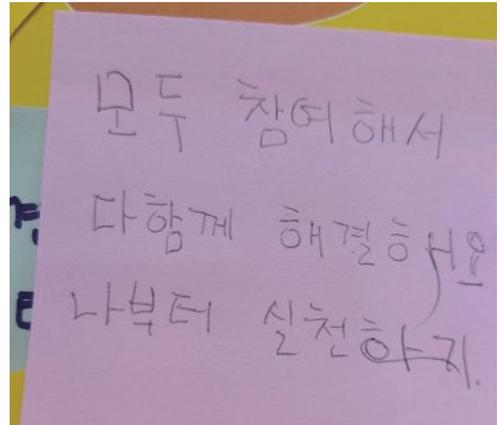


### 3.3 정릉더하기축제

마을을 배경으로 한 보드판에 설치된 환경보호 실천 장애물들을 하나 하나 넘으면 성북구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팻말에 등장하고 이어서 골대 앞으로 슛~~골인!! 얼굴에 웃음꽃이 함박 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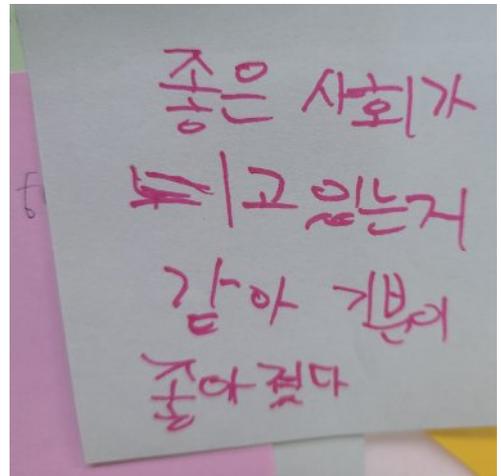






'가치서바이벌 핑거풋볼게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사회적경제가 보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감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었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여러달 동안 정릉더하기축제를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기관, 단체,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쓴 어린이의 말처럼 사회적경제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 성북문화유산야행



### 3.4 성북문화유산야행



# 사랑나눔연합바자회



3.5 사랑나눔연합바자회



## 정릉시장 핀초포테 페스티벌

한입 먹거리를 뜻하는 핀초(Pincho)와 음료를 뜻하는 포테(Pote)의 합성어인 핀초포테는 작은 요리와 음료를 함께 즐긴다는 뜻의 스페인어로 [정릉시장 핀초포테 페스티벌]은 정릉시장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화합하자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2024년 10월 26일(토) 16시, 정릉시장 일대에서 [정릉시장 핀초포테 페스티벌]이 열렸다. 그 이름처럼 축제 내내 정릉시장 일대는 많은 인파로 북적북적했다. 주민들은 정릉시장의 먹거리와 맥주를 즐기며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누렸다. 정릉시장을 가로질러 흐르는 정릉천 위로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단란한 모습이 행사장 곳곳을 수놓았다.

성북구의 시장 축제에 성사경이 빠질 수 없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가장 빨리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이다.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 2. 사회적경제와 지역 간 협력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여러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정릉시장 핀초포테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주민들은 쉽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일시 10월 26일(토) 16:00~20:00

장소 정릉시장 일대



### 3.6 정릉시장 핀초포테 페스티벌

축제 시작부터 끝까지 성사경이 운영한 6개 부스는 내내 붐볐다.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한테 특히 인기가 높았다.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부스 앞에 나란히 앉아 고사리 손을 열심히 움직였다. 사진을 찍는 아빠, 함께 열중하는 엄마... 손주가 기특한 할머니까지 온 가족의 나들이였다.



## 붕어빵 석고방향제 만들기 <협동조합에듀닥터바른배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석고 반죽을 직접 틀에 부어 굳히는 석고 방향제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였다. 쉽고 간단하면서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에듀닥터바른배움에서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차근히 진행하였다.



## 버려지는 책으로 나만의 종이엽서 만들기 <두비비협동조합>

두비비협동조합에서는 직접 재생 종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체험하는 동안 버려지는 종이 재활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재생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든 엽서를 가져갈 수 있었다.



## 커피박 키링 만들기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센터에서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커피박)를 재활용하는 키링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커피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업사이클링 제품이 되는지 설명도 함께 들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커피박 키링에 특별함 더하기! 웨빙곤 캐릭터 단추 키링이 커피박 키링과 만났다.



## 웨빙곤 캐릭터 단추 키링 만들기 <알록달록협동조합>

알록달록협동조합은 결혼 이주여성 작가가 만든 다양한 패브릭 제품을 판매하는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직접 바느질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캐릭터단추를 골라 단 웨빙곤이 커피박 키링을 만나 완성될 수 있도록 콜라보로 구성했다. 키링을 손에 든 아이들이 뿌듯한 얼굴로 인증샷을 찍어주었다.



## 도전! 돈BTI 젠가 게임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던 다른 체험 부스에 비해 청소년과 어른들이 특히 관심을 쏟았던 부스가 있다. 바로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성북구의 사회적기업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타로를 이용해 개인의 금전성향(돈BTI)을 진단하고 재무상담을 진행했는데, 재미있고 유용한 내용에 다들 초롱초롱한 눈빛이었다.

돈BTI 체험과 동시에 젠가게임도 즐길 수 있었다. 본인의 금전성향이 쓰인 젠가를 하나씩 빼내는 게임이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긴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험 프로그램! 수익금은 전액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하였다.

[정릉시장 핀초포테 페스티벌]은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 가게의 매출증대를 꾀하고자 추진한 서울시 지원사업이다. 여기에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하여 주민들의 즐길 거리를 더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정릉시장 핀초포테 페스티벌]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성북구의 전통시장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북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04

#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 확산

---

성사경 뽀뽀뽀

쿵페스타

모두의 향연

성사경 서포터즈

## 4.1

# 성사경 뽐뽐뽐

### 성사경 뽐뽐뽐은

주민을 초대하여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인과의 토크쇼 및 대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재미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 일시 : 2024. 05. 14.(화) ~ 06. 18(화) 10:00~11:30 (총 6회차)
- 장소 :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6층 다목적홀
- 대상 : 성북구 주민(사전신청, 회차별로 선착순 25명)
- 프로그램

**05.14.(화)**  
**문화로운 미식생활**  
(주)엘마드레

**05.21.(화)**  
**금융 타로**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

**05.28.(화)**  
**뫼자리도서관**  
(주)히든북

**06.04.(화)**  
**도시락파우치만들기**  
알록달록협동조합

**06.11.(화)**  
**문스토랑**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06.18.(화)**  
**도전! 골든망치**  
(주)에이징인플레이스

# 성사경 뽐뽐뽐

## 엘마드레 문화로운 미식생활편

1회차  
2024.05.14.(화) 10:00

성북구 주민들을 초대하여 사회적경제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알아가는 [성사경 뽐뽐뽐] 첫번째 시간~

성북동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엘마드레는 먹거리에 문화를 접목하여 돌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신나는 발걸음으로 센터를 방문해 주신 주민분들과 함께 엘마드레 대표님과 미니토크쇼를 시작했어요!

엘마드레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 나누다보니 주민분들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엘마드레 대표님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 시간!



크래미 3종세트 만들기!!!

크래미를 활용해서 오이 까나페, 유부 크래미, 크래미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순식간에 세가지 음식을 만들어 내다니!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셔서 꿀팁을 마구마구 얻어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쁜 접시에 플레이팅을 해서 간단하지만 고급지게~ 나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만들어보았어요!

엘마드레와 함께 [성사경 뽐뽐뽐]을 열어봤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으셔서 성사경이는 아주 기뻐합니다



# 성사경 뽐뽐뽐

##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금융타로편

2회차

2024.05.21.(화) 10:00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재무교육과 상담으로 청년들의 부채&금융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사회적 경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성사경 뽐뽐뽐] 두번째 시간!

오늘은 사회적경제 퀴즈로 시작~

"성북구에는 총 몇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을까요?"

본격적인 미니 토크쇼 시간

백승훈 센터장님과 함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줄여서 청지트)를 설립하게 된 과정, 센터장님이 지금의 활동을 하기 된 계기, 최근 청지트의 활동 등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었어요.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랍니다TT

학자금 용자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돈도 없고 신용도 없어 금융권에서 외면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청지트의 출발점은 '청년자조금융'으로 월급을 받기 며칠 전이나 여행 등을 위해 큰돈은 아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서로 빌려주는 관계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평소에 비상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돈관리 필요성을 느끼며 청년자조금융 산하의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제 교육과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3자 지불방식으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무료로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시기에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백승훈 센터장님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들으니 더욱 뜻깊은 미니토크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금전성향은 무엇인지,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비법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해봐야 겠지요?



#### 4.1 성사경 뽐뽐뽐



바로바로~~~ <금융타로>의 시간

카드를 통해 각자의 금전성향(돈BTI)을 쉽게 알아보고, '알쓸신습' 돈관리를 잘하는 꿀팁과 금융성향별 돈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돈관리를 하는 꿀팁은

- 가계부 작성하기 (지출 기록하기)
- 통장 쪼개기 (고정비용/소비용/비상금융 등)

당연한 것 같은 얘기지만 포인트는 지출 패턴을 파악해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가계부는 잔고관리가 아니라 '소비패턴'을 알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해요.

마냥 돈을 줄인다고보다 불필요한 건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늘리고 나의 욕구를 중심으로 돈관리를 해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럼 나는 어떤 성향을 가졌지? 그림카드를 통해 알아봅시다.

카드에 적힌 메시지를 통해 나에게 해당하는 카드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나의 금전성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유, 위신, 기부, 즉흥, 계획, 안전

총 여섯가지의 금전성향별 특징과 장점, 단점, 돈관리를 위한 조언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었어요.

내가 무심코 했던 소비 습관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면 좋을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성사경 뽐뽐뽐

(주)히든북  
뫓자리도서관편

3회차  
2024.05.28.(화) 10:00

(주)히든북은 참여, 교육, 나눔을 통해 책 읽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2015년 설립된 소셜벤처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찾아가는 '야외도서관'이 있습니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사회적경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성사경 뽐뽐뽐] 세 번째 시간! 삭막했던 다목적홀에 도서관이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사회적경제 이야기 한 스푼~

환경을 위해 "우리 옷을 사지 마!"라고 선언한 기업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명한 <파타고니아>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미니 토크쇼 시간~

(주)히든북 박혜원 대표님과 함께 히든북의 의미와 뫓자리도서관을 시작한 계기,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히든북은 숨어있는 인생의 책을 찾아준다는 의미로 2015년 성북구에서 시작한 소셜벤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은 큰 힘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중요한 매개라고 생각하셨대요. 어릴 때 집 근처 도서관을 당연히 여겼는데 사실 최초로 생긴 어린이도서관이었고, 도서관을 아무나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도서관 수 자체가 적었고 있더라도 언덕 높은 곳에 있어 접근하기 어려웠거든요.

여담인데요~ 도서관이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 4.1 성사경 뽀뽀뽀

대표님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찾아가는 야외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약 800회 정도 다양한 형태의 야외도서관을 진행하셨다고 해요.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물과 함께하는 물 도서관, 하늘 아래 옥상에서 만화를 읽는 옥상 만화방, 달빛 아래 여행 콘텐츠를 즐기며 책을 읽는 여행자 북클럽 등등

'어떻게 하면 즐겁게 책을 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도서관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최근에는 예술가와 콜라보 기획을 많이 하고 있대요.

어릴 때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일단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었고 책을 사달라고 할 때면 항상 사주셨다고 해요. 종로 보신각 옆에 살았는데 3대 대형 서점에서 무료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남아 책에 대한 봉사, 기부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듯이 책을 쉽게 읽고 접하며 지식의 가치를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책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와 따뜻함들이 선한 의지로 남아 세상을 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회적경제 체험! 숨겨진 인생 책을 찾아 펼쳐봅니다.

느슨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고 한 자 한 자 집중에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두들 순식간에 책에 퐁당!

책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부채로 만들어보고요~~

사탕은 입속에 남남~ 마음에 드는 꽃송이를 골라 이쁜 부채로 만들어보았어요. 흰색, 노랑, 분홍, 빨강. 다양한 색을 가진 장미와 리본, 포장지를 정성스레 선택하는 손끝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박혜원 대표님은 야외도서관을 운영할 때 다양한 사람과 세대가 교차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외국인은 기념 선물로 책을 가져가고 싶어하고 여고 동창생들이 와서 까르르 웃고 가거나 노부부가 젊은 사람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등 세대가 화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성사경 뽀뽀뽀도 책을 읽는 느슨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다같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 성사경 뽐뽐뽐

## 알록달록협동조합 도시락파우치 만들기편

4회차  
2024.06.04.(화) 10:00

알록달록협동조합 신선화 대표님의 스토리를 듣는 미니토크쇼로 [성사경 뽐뽐뽐] 네 번째 시간을 엽니다.

알록달록협동조합은 '다양하게 무늬를 이룬다'는 뜻을 담아 결혼이주 다문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및 미래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결혼이주 다문화 여성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의사소통도 어렵고, 일을 배우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해요.

현재 알록달록협동조합은 베트남, 멕시코, 콜롬비아, 볼리비아,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이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질로 상품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알록달록! 꼼꼼한 마감에 다들 감탄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결실은 수년 동안에 걸친 시행착오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기술교육부터 같이 시작했대요! 다양한 소품을 함께 열~~심히 만들면서 진심 어린 대화와 검수를 통해 지금의 패브릭 제품들이 탄생했답니다.

조합원들이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지켜본 신부님께서 가톨릭 사목회관 공간을 내어주셔서 1층 매장과 2층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기술을 전수해주신 교수님께서도 공업용 미싱도 기부 주셨다고 해요!

선한 의지로 좋은 일을 하다 보니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나시네요?



#### 4.1 성사경 뽐뽐뽐



Respect the difference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자)  
알록달록의 슬로건이에요. 다름을 이유로 차별을 하기보다 다름  
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결혼이주 여성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오늘의 사회적경제 체험! 알로록 달로록 도시락 파우치 만들기~  
알로록 달로록은 순 우리말이래요!

이쁜 도시락파우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느질이 필요합니다.  
다들 흠질 하시죠~? 몰라도 걱정마세요!

신선화 대표님과 오늘의 보조교사 베트남에서 온 꾸엔 썸이 함께  
합니다.

알록달록의 모든 제품에는 꾸엔썸의 손길이 담겨있다고 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잘 만드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또는 조금은 서투러도 내 손이 가서 더 소중한- 라는 생각이  
교차하길 수십 번 끝에-

짜잔 도시락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알록달록협동조합과 함께 [성사경 뽐뽐뽐] 도시락파우치 만들기  
편을 진행해봤는데요!

모두들 너무 기뻐하셔서 성사경이도 절로 어깨춤을 춘 나머지 모  
르고 사진에 손가락이 나와버렸네요.. 하하



# 성사경 뽀뽀뽀

##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문스토랑편

5회차  
2024.06.11.(화) 10:00

친근하고 재미있게 사회적경제를 체험해볼 수 있는 [성사경 뽀뽀뽀] 다섯번째 시간!

오늘의 사회적경제 Quiz! '성사경'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바로바로~~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의 줄임말입니다.

본격적인 미니 토크쇼 시간~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한끼를 제공하고자 김치찌개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문수 신부님의 스토리~

청년문간의 로고! 언뜻보면 집모양 같지만, <문간>방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문간방>은 문 옆에 붙어있는 방으로 집 밖과 안의 경계에 위치해서 사람들이 드나들며 친교도 맺고 밥도 먹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청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청년일까요? 2015년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이 굶주림 끝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청년을 위한 식당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청년문간>은 '언제나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따뜻한 공간'인거죠.

현재 총 5곳 - 정릉점, 이화여자대학교점, 낙성대점, 제주점, 슬로우점(대학로)을 운영 중인데요~ 특히 슬로우점은 조금 특별한 곳이라고 해요.

"사회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봉사할 기회라도 달라."어느 날 경계선지능 청년(IQ71~84)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대요.

경계선지능(IQ71~84)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13.5%나 된다고 하는데요. 제도적으로는 비장애인이지만 학습능력이 낮기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 취업이 어려움 → 기회조차 없음 → 고립됨 → 사회성이 낮아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해요.



#### 4.1 성사경 뽕뽕뽕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정정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고 봉사할 수 있는 작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최근 대학로에 오픈한 슬로우점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1년 동안 준비하여 경계선 지능인 청년들에게 일터가 되어 주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 밖에도 청년들과 만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청년문간의 모습을 사진으로 잠깐 살펴볼까요~?

#### 2030 청년영화제

청년들과 만나기 위해 소소한 영화 상영회를 열다가 청년이 직접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면서 현재의 영화제로 발전했구요.

#### 청년희망로드

청년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 수 있도록 함께 산티아고 길을 걷고

#### 문스토랑

2022년부터 매달 청년들과 김치찌개를 먹으며 대화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의 사회적경제 체험! 바로 <문스토랑>을 성사경으로 옮겨왔습니다. 청년문간의 김치찌개와 콩나물 무침부터 냄비, 버너, 식기까지 모조리 옮겨왔습니다.

먹음직스런 김치찌개를 먹으며 신부님과 도란도란 담소도 나누고 자유롭게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맛~~나게 드시고 문스토랑 방명록도 남기고

이문수 신부님과 행복한 포토타임도 가졌습니다.

청년문간의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자유롭게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성사경도 응원합니다.



# 성사경 뽐뽐뽐

## (주)에이징인플레이스 도전! 골든망치편

6회차  
2024.06.18.(화) 10:00

[성사경 뽐뽐뽐] 마지막 시간을 여는 미니 토크쇼~

오늘의 토크쇼 주인공인 (주)에이징인플레이스 김진구 소장님은 대학에서 실내 건축을 전공했고 해비타트 봉사활동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분들의 생활상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해요.

### Aging in Place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역사회가 '우리 집'으로, 나이 들어서도 시설이나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일!

(주)에이징인플레이스는 '집'을 중심으로 자신의 Life Style에 맞게 자기 집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고령자 낙상사고의 63.4%는 집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주)에이징인플레이스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 관리 서비스>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낙상하여 뼈가 골절되면 몸을 회복하기 쉽지 않고, 취약계층은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요.

(주)에이징인플레이스는 거주자의 활동 반경을 파악하여 맞춤형 낙상사고 예방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생활 불편 집수리 서비스 및 교육, 안전한 주거생활 컨설팅 등 거주자가 스스로 집을 수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4.1 성사경 뽐뽐뽐

이때를 놓칠세라, 집수리 꿀팁에 대해 여쭙보았어요.

**Q1. 오래된 멀티탭,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멀티탭을 방치하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해요!

- 전력량이 많은 가전제품은 단독 사용 필요
- 사용 기한은 2~3년, 오래된 멀티탭 교체 필요
- 누전 방지를 위해 '쇠-접지'가 있는 멀티탭 선택

**Q2. 셀프로 집수리 가능한가요?**

간단한 교육과 몇 번의 연습, 시간, 관심, 그리고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현재 분기별로 무료로 집수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Q3. 업자한테 의뢰시, 호갱 안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업체를 선정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실리콘도 욕실용, 실내용, 실외용이 따로 있다는 사실...)

가치있다! 재미있다! 오늘의 사회적경제 체험!

뚝뚝뚝 간단한 집수리는 내손으로~

못 질 한번 못해 본 분들을 위해 골든망치를 들고 <우드트레이>를 뚝뚝뚝 만들어봤고요!

여름철만 되면 욕실 실리콘에 곰팡이~ 정말 보기 싫으시죠? 집수리 기술 중 <실리콘 쓰기>를 함께 해보았어요.

실리콘을 잘 쓰기 위해서는 실리콘 노즐 입구를 아래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손으로 꺾꼭)

노즐 윗부분이 면과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실리콘 건과 작업면이 90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실리콘을 짜야 한다고 해요.

다들 한 손에 실리콘 건을 들고 강사님의 지도하에 발사~ ㅎㅎ 잠깐의 시간이지만 실리콘 쓰기에 재능을 찾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집을 가꾸고 살아간다는 것, 시간과 노력,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더 많은 기업 체험을 알고 싶어요. 감사합  
-도시락 주머니로 사용 가능하고 쓸모가 많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 좋은 일 하  
-또 참여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  
-정말... 그저 감사합니다  
-지인을 통해서 왔는데 좋은 프로그램 감사  
알 수 있는 방법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센터 밖에서도 뽐뽐뽐을 만나고 싶어요  
-앞으로도 '문스토랑' 같은 따뜻한 프로그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참여해봤는데 너무  
-주민들과 도란도란 식사하며 오랜만에 즐  
-다양한 프로그램 기대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즐기게 되어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공감 즐겁습니다~  
-아주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아쉽네요. 좋은 프  
-다양한 프로그램 기대하겠습니다.  
-체험시간 짧아요. 기구도 1인 1기구였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  
-다른 체험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많은 프로그램 부탁드립니다.  
-좋은 체험 감사합니다. 스스로 집 고치는  
-질문 시간 주셔서 궁금한 사회적기업에 대  
-좋은 프로그램 참여해 보람있었습니다.  
-다채로운 경험으로 도움이 되게 해주셔서

설문평가



-[성사경 뽀뽀뽀]에 참여한 주인의 연령대는 30대~50대가 82.8%로 높았고, 성별은 여성이 88%로 나타났음

-프로그램 진행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5.7%, 기업인과의 대화에 대한 만족도는 99.8%, 체험프로그램 진행은 96.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사회적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주민이 31.8%였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신뢰도 및 친근도가 각각 97.6%와 98.8%로 높게 나타났음

-향후 사회적경제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주민이 96.3%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총평



-[성사경 뽀뽀뽀]은 일반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보다 재미있고 친숙하게 느끼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하였음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기업과 기업인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기업의 대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기업인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가 향상되었음

-일주일 간격으로 총 6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먼저 참여했던 주민이 참여할 것을 권해서 신청하게 된 주민들이 늘어났으며, 7월 초에 진행된 '쿵페스타'에서도 참여 주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성사경 뽀뽀뽀]에 참여했던 사회적경제 기업인들과의 평가회를 진행했는데, 일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를 소개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음. 아울러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

-설문 결과의 지표와 참여 기업인들의 평가 등을 종합해보면 [성사경 뽀뽀뽀]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참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성사경 뽀뽀뽀

## 평가회

2024.06.27.(목) 15:00~16:30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5층 게스트룸

### 상호 인사 및 소회

**이남주** 2016년부터 기업 운영하였으며 현재 외식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중임. 거주 중인 아파트 게시대에서 [성사경 뽀뽀뽀] 포스터를 발견. 이를 통해 아이에게 엄마의 활동과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고 뿌듯함

**박혜원** 2015년부터 야외도서관 운영. 참여자 수를 기대하지 않았으나 실제 많은 주민이 참여한 모습을 보며 놀라웠음

**알록달록** 결혼이주여성과 기업 운영. 손바느질 관련 꿈이 있는 베트남 친구(꾸엔)와 함께 운영하여 좋은 경험이 됨. 성북구수어통역센터 농민 참여자들의 큰 리액션에 힘이 났음

**이문수** 식재료 등 준비한 저희 직원과 센터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함. 주민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릴 수 있어 보람됨

**김진구** 청년 어르신 집수리로 시작해 현재 기업을 창업함. 현재 성북마을관리소 위탁 운영 중. 실리콘 실습하기는 체력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움

### 성사경 뽀뽀뽀 평가

#### 1) 프로그램명(성사경 뽀뽀뽀)

**이남주** 뽀뽀다라는 의미에서 친근하고 가장 적당해 보여 좋았음

#### 2) 진행방식

**박혜원** 이전까지 사례발표는 자체적으로 PPT 준비하여 어느 정도 사전 이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센터가 준비한 PPT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전혀 모르는 주민 대상으로 활동을 소개함. 지난 활동 회상할 수 있어 좋았음. 차후에는 수준을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함

**이남주** 새로운 기업을 소개하는 형식은 지속 유지 필요하되, 다음 단계에 대한 제안 해주면 주제에 맞춰 조금 더 다른 성장 단계를 함께 기획해볼 수 있음. 분야별로 심화하여 운영하거나 참여자와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함. 2-3개 기업 같이 묶어 협업할 수 있어도 좋을듯

**신선화**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 마련된 것에 만족. 하반기에도 소개할 기업을 발굴하여 운영해도 될 듯. 베트남 친구(꾸엔)가 '선생님'으로 불리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생기게 됨. 계속 동행시키고자 함.

**이문수** 문스토랑, 처음에 한두 명은 마스크에 소개된 저(이문수 신부)를 보고 오지만 사실 참여자들끼리 더 이야기가 잘됨. 그때마다 색깔이 다름. 소셜다이닝, 먹고 시작하면 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됨.

**김진구** 올해 4년 차,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나 대외 활동으로 피로감이 있음. 홍보 필요성은 느끼나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집수리 교육이나 후속 과제에 주민들의 관심을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어서 좋았음. 과하지 않고 적당히 뽐낼 수 있어서 좋았음

### 3) 새로운 아이디어

**박혜원** 올해는 밖에 나가기보다, 센터로 사람을 많이 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함. 센터 건물 전체를 개방하여 '홈커밍 데이'를 한다면 재밌을 것 같음. 계단 전시, 층별 입주기업 소개, 주차장 등 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운영 가능. 구청의 공공구매박람회처럼 하루는 주민, 하루는 공무원이 공공구매 형식으로 방문해도 좋을 것 같음

**김진구** 칼같이 운영 가능

**이남주** 사회적경제 기업 소개하는 포맷은 꾸준히 필요. 한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 지금 회의 자리까지 오게 됨. 성북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속감과 주민에게 보여주는 단계, 과정으로서 굉장히 좋았음

### 4) 홍보

**엘마드레** 이제야 아파트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마을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보여지게 하는 것을 봄. 성북구에 사회적경제를 보여주는 액션은 필요, 건물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 아파트 커뮤니티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찾아가는 뽐뽐뽐' 등 활용하면 좋을 듯

**청년문간** 현수막 홍보 효과가 좋다고 청년이 직접 이야기함. 센터 전체 행사 홍보 시 성북구 구석 구석 현수막을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히든북** 기업 입장에서 센터에서 보도자료 내주는 것이 가장 좋음. 이로운넷에서 컨셉을 정해 시리즈물을 내주는데 괜찮았음

### 5) 센터에게 바라는 점

**엘마드레** 첫발 자체가 훌륭함. 몇 년 간 활동하며 처음 경험.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음. 다만, '재미있게 일하기 위해' 기획, 콘셉, 재미가 명확히 있었으면 함. 첫 번째로 해서 좋았음

**청년문간** 지금처럼 해주시길

**알록달록** 맞춤형 소식만 주어도 감사

**에이징인플레이스** 열심히 참여하겠음

## 4.2

# 쿠파스타

쿠파스타는

사회적경제 주간과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사경에서 기획한 축제입니다.

### 쿠파체험

#### 협동화 성북인물전

두비비협동조합

### 쿠파체험

#### 미해네 작명소

협동조합 미해와머스마들

### 쿠파체험

#### 캘리 투명부채 만들기

공간:라움

### 쿠파체험

#### 창의미술체험

창의수학&성균관·추계미술

### 쿠파체험

#### 협동컵게임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 쿠파판매

#### 수공예품

알록달록협동조합

### 쿠파판매

#### 커피콩빵

문화예술협동조합 몽당

### 쿠파판매

#### 제로웨이스트제품

햇별은쟁쟁사회적협동조합

### 쿠파판매

#### 아이스커피, 음료

카페마실

### 쿠파판매

#### 식재료 등

서울북부두레생협

### 쿠파판매

#### 빵, 쿠키류

마을엄마협동조합

### 쿠파판매

#### 수공예소품류

행복한어린이집\*무지개방과후

### 쿠파판매

#### 공정무역제품

성북구공정무역센터

### 공연

#### 오픈공연 관객참여형 공연

공연팀 : 아토

### 복합

#### dot자리도서관

책, 그림, 놀이가 함께하는 쉼터

(주)히든북

### 복합

#### 피크닉 파티

참여기업 네트워크

## 4.2 콤포스타



# 2024 협동조합 주간행사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물들다! 쿠파스타

2024 쿠파스타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오픈식, 쿠파협, 쿠파마켓, 그리고 돛자리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축제의 현장으로 고고~~ 함께 가보실까요.

오픈식 30분 전부터 시작된 사전등록 및 현장 접수!



앉고... 서고... 다들 자리를 잡은 후!

아프리카 전통 악기인 켈베를 주민들과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오픈식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공연팀 ART-O의 리더에 맞춰 신나게 두드리고 박수도 치며 모두가 하나됩니다.

## 쿠파스타 후기

07. 06.(토) 17:00~20:30(3시간 30분)  
한성대입구 분수마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이번 『쿠파스타』의 메인 테마인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물들다」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감동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오픈식이 끝난 후에는~ 쿠파마켓과 쿠파체험이 이어졌습니다!

각자 얼굴을 완성해 보는 이 특별한 프로그램은 '두비비협동조합'에서 준비한 'The sb 성북인물전-천개의 표정, 만개의 행복' 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북인물전!  
협동에 반하고~ 연대에 물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북구 축제 2024 콤피스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또 하나의 핫 체험 프로그램은 '협동조합미해와머스마들'의 '미해네 작명소'인데요~ 우리 가족의 이름을 지어서 직접 나무판에 그려보는 체험 이랍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무판을 완성하고 있는 아이들~ 체험 부스의 모습입니다!

운영시간내내 대기줄이 길었던 또 하나의 인기 체험프로그램은 '공간:라움'의 '캘리 투명부채 그리기'였는데요, 여름을 맞아~ 나만의 부채 만들기!



'뫼자리 도서관'에서 좀 쉬다가! 다음 체험으로 가 보겠습니다~!

'창의수학&성균관·추계미술'에서 진행되는 '창의미술체험'입니다~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예뻐했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 확산

모든 체험이 부스만 있었던 건 아니데요,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행사장 앞쪽 공간에서 '피라미드컵쌓기'를 진행했답니다.

아이와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었던 축제였습니다~



준비한 선물도 받고~~ '돛자리 도서관'에서 엄마와 함께 책도 읽고요.

(주)히든북의 '돛자리 도서관'에서는 마치 바닷가나 계곡으로 캠핑을 떠난 것처럼~ 해먹에 누워서 또는 캠핑 의자에 앉아서 책도 읽고 편하게 쉬기도 합니다. 독서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성북구 축제 2024 콤피스타에서는 사회적경제 장터인 콤피켓도 열렸는데요~

'알록달록협동조합'에서 수공예품을, '문화예술협동조합몽당'에서 커피공병을, '햇별은쟁쟁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카페마실'에서 아이스커피 및 음료를, '서울북부두레생협'에서 식재료 등을, '마을엄마협동조합'에서 빵, 쿠키류를, '행복한어린이집\*무지개방과후'에서 수공예소품류를, '성북구공정무역센터'에서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저희 성사경에서도 체험 부스를 진행했는데요.

「콤피스타」인증샷을 찍어서 예쁘게 인화한 후 사진첩에 담아드렸답니다!

7월 첫째 주, 사회적경제 주간과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준비한 성북구 축제 「2024 콤피스타」

어떠셨나요?

주민 여러분이 사회적경제를 보다 재미있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사경이 좀더 다가가겠습니다!



# 2024 협동조합 주간행사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물들다!

## 쿵페스타

### 쿵페스타 네트워크파티

07. 06.(토)  
한성대입구 분수마루

주민과 함께 한 『쿵페스타』~ 행사가 끝난 후, 현장에서는 평가회 겸 네트워크 파티가 이어졌어요.



『쿵페스타』에 참여한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 구성원들과 스태프 이 행사장 가운데에 웅기종기 모여앉아 피자로 분위기를 돋우며 『쿵페스타』 참여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 4.2 쿵페스타

- 알록달록협동조합
- 문화예술협동조합공동
- 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미해와머스마들
- 두비비협동조합
- 카페마실
- 서울북부두레생협
- 마을엄마협동조합
-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 행복한어린이집\*무지개방과후
- 성북구공정무역센터
- 공간:라움
- 창의수학&성균관추계미술
- (주)히든북
- 그리고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등

서로 안면이 있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뵈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눈도장을 찢고 우리 기업은 뭘 한다고 소개도 하고요 그렇게 어 디서든 다시 만날 앞날에는 서로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약속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작고 소중하니까~ 모이면 먹이를 찾기도 위험을 피하기에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무리지어 먹이를 찾고 상어를 피하는 정어리 떼처럼요~~



##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 확산

지난 번 Jump Up 토론회(07.02)에서 기초발제를 해주신 김연아 교수님의 말씀도 생각났는데요.

"사회적경제는 사업하기 좋은 사람이 모여서 기업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이 모여서 공동의 필요성을 조달하는 경제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개별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문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번 『쿠팡페스타』의 메인 테마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물들다"처럼 네트워크 파티도 협동에 반하고~ 연대에 물드는 순간이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쿠팡마켓에 참여한 '행복한어린이집\*무지개방과후'의 엄마를 따라온 아이도 자선물을 해 주었어요

---

## 좋았던 점

공연 등 전체적으로 좋았음. 사람이 많지 않아 우리가 즐길 수 있었던 자리. 마지막 다른 조합 이야기 나누고 괜찮았음

---

적은 예산 대비 더 많은 성과를 냄. 가장 좋았던 것은 피자 파티로 더 길어도 좋을 듯.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의 상품과 활동을 알게 되고, 강요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파티가 되어 좋았음

---

완전 대 만족. 우천 대비, 히든북에서 꾸민 편안한 자리, 음악, 피자 파티도 자연스러웠음

---

월요일 연락 받았지만 기회 주신 것에 감사.  
비 걱정 없이 진행. 불편 사항 없음  
행사장 중간에 돗자리 도서관 있어서 참여 주민과 팀에게 큰 도움 됨. 협동조합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됨

---

요새 겪어본 행사 중에 제일 재밌었다. 주민 많이 참여하고 분위기 좋았고, 시간 적당, 날씨도 괜찮았음

---

오픈식 공연(아토) 좋았음. 작년(스탬프투어)보다 훨씬 획기적이고 액티브함

---

오픈식 공연 기본 좋게 시작하여 좋았음. 행사 전반적으로 만족. 센터와 직원 일심동체로 움직여서 고생하셨음.

---

캠핑 분위기 좋았음. 경험해본 축제와 달랐음. 같이 즐기는 느낌, 화합과 연대가 어우러져 나온 분위기였고 마무리까지 좋았음

---

행사 종료 후 둘러앉아 얘기 나누는 것 좋았다. 이렇게 나눔하는구나 배우게 됨

---

## 4.2 쿠팡페스타

---

## 개선 점

날씨가 좋지 않아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못해 아쉬움. 쿠팡페스타 참석은 오래전부터 들었으나, 마지막 주에 안내 되어 준비가 늦었음

---

비가 와서 사람이 더 많이 못와서 아쉬움

---

첫 참여. 준비사항에 자세히 안내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메뉴판 등 미리 준비 못해 아쉬움. 품목이 겹치지 않게 안내하면 좋겠음.

---

비 와서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은 것이 아쉬움  
공동육아 알리는 의의로 참여하였고, 매출은 주차비 제하면 0에 가까움

---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 아쉬움. 시간을 오후 3-4시로 앞당기면 좋을 듯. 오픈식 때 주민 참여형 공연 팀이 여러 팀이어도 좋을 듯. (단, 단순공연 우쿨렐레 제외)  
쿠폰 사용을 위한 천원대 상품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음

---

쿠팡페스타 운영 시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운영되면 좋겠음. 종료 후 네트워크 자리, 개방된 장소라 시민의 시선 우려됨. 내부 운영이 안정적으로 보임

---

더 많은 주민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

---

대기하는 사람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점

---

준비 시 사전 정보(규모, 방식, 참여부스팀)가 3주 전에는 안내되었으면 좋겠음. 미리 준비할 시간 필요. 부스를 하나 더 운영할 수도 있었음

---

## 4.3

#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

「모두의 향연」은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유관 기관이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축제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친환경 식료품, 공정무역제품 등을 구입하며 가치소비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지역순환경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는무대, 원데이클래스, 어린이폴리마켓, 닫는무대 등 모두의 향연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모두의 축제입니다.

##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 모두의 향연

2024년 10월 5일,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에서는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이 열렸다.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유관기관 및 단체 50여개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판매 부스를 진행했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힙한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과 책망할 수 있는 모두의 도서관, 다 함께 화폭을 채워 나가는 성북인물전, 그리고 어린이플리마켓 등이 축제에 풍성함을 더했다. 사전 캠페인으로 진행한 플라스틱 병뚜껑 모이기 순환경제 챌린지도 함께할 수 있었다. 그 현장을 생생하게 옮겨 본다.

### 현장스케치 01\_

### 여는 무대 '모두의 향연으로의 초대'

'모두의 향연'이 열리는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는 오전부터 북적이기 시작했다. 축제의 오프닝을 함께 할 '어린이공연단' 연습 때문이었다.



### 4.3 모두의 향연

### 「모두의 향연」 현장스케치

2024.10.05.(토) 14:00~18:30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

11시 정각에 모인 22명의 어린이공연단은 짝을 지어 왈츠를 연습했다. 연습은 공연예술을 전공하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끌었다. 어린이들은 모두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였다.

「모두의 향연」 여는 무대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대학생과 어린이들이 준비하는 댄스 공연 외에도 향연 상차림이 기획되었다. 모름지기 잔치엔 잔치 음식이 빠질 수 없는 법이다.



음식은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준비했다. 잔치에 초대받은 주민분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였다.

##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 확산

드디어 행사 시작 시간. 공연단 어린이와 청년들은 대기하고, 내빈들은 착석했다. 여는 무대를 함께 즐길 주민들도 모여 들었다.

이승로 구청장님과 향연 상차림을 준비한 사회적기업 (주)엘마드레 대표님이 함께 개막을 선포했다.

인사 말씀에 이어 향연 상차림을 여는 퍼포먼스가 뒤따랐다. 현장에 있는 모두를 위한 음식이었다. 곧이어 대학생과 어린이들의 댄스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향연 상차림을 모두 함께 즐겼다. ('모두의 향연' 음식은 성북구청 카카오택배 친구추가 등 합당한 절차를 거친 주민분들에 한해 제공됨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사전 공지하였으며, 현장에서도 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여는 무대 '모두의 향연으로의 초대'는 축제 오프닝 행사이지만, 단순한 오프닝만은 아니었다.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통해 성북구의 사회적경제가 성장·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된 행사였다.

공연을 준비한 성북구의 어린이와 대학생들, 음식을 준비한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먹거리 기업들, 퍼포먼스를 함께 한 내빈들, 현장에 참여한 주민분들...

모두가 여는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이 시작되었다.



오전부터 매진한 연습의 결과는 훌륭했다. 청년과 어린이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어우러지는 왈츠의 선율에 모두가 젖어들었다. 마음도 축제를 향해 시나브로 열려가는 느낌이었다.



## 현장스케치\_2

### 성사경 원데이클래스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의 개막을 알리는 '여는 무대 - 모두의 향연'으로의 초대'가 끝나고 자유롭게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상시운영되는 체험·마켓·홍보 부스 외에도 메인 무대에서는 성사경 원데이클래스가 이어졌다. 원데이클래스는 '모두의 향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북구 사회적경제를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으며, '먼지행성' 김소희 작가님의 북콘서트와 상송 공연까지 더해져 가을날의 행복을 맘껏 누렸다.



#### 색의 향연 | 습식수채화로 가을풍경 그리기

15:00~15:40

성사경 원데이클래스 첫 번째 시간은 (주)다리메이커에서 준비한 '습식수채화로 가을풍경그리기'였다. (주)다리메이커는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의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습식수채화는 도화지 위에 자유롭게 번져 가는 물감을 통해 색을 충분히 느끼면서 놀이하듯이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어떤 경계도 없이 표현해 내는 예술적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 4.3 모두의 향연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뻐다. 완성된 습식수채화는 건조 후에 액자에 넣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사경 원데이클래스 '색의 향연'에 한껏 몰입했던 아이들은 다시 축제를 즐기러 흩어졌다. '모두의 향연'이 한창이었다.

#### 음악의 향연 | 빠담빠담 상송여행 - 마담상송

15:50~16:10

첫 번째 원데이클래스가 끝난 뒤에는 상송공연이 이어졌다. 마담 상송의 낭만적인 노래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로 울려 퍼졌다. 아코디언 소리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담은 상송 멜로디는 부스와 부스 사이에도 은은하게 맴돌았다.



축제를 즐기느라 지친 다리도 쉴 겸 공연에 찾아온 사람들은 상송의 매력에 차츰 젖어들었다. 애절한 듯 리듬감 있는 멜로디가 가을의 낭만 그 자체였다.

#### 책의 향연 | 북콘서트 - 먼지행성(김소희 작가)

16:20~17:00

색의 향연에 빠지고 노래에 취했으니 다음은 머리를 써 볼 차례다. 성사경 원데이클래스 두 번째 시간은 '책의 향연 : 북콘서트'였다.

'먼지행성'의 김소희 작가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축제에 문학적 향기가 더해지는 느낌이었다.

'먼지행성'은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다. 세상에서 떠밀리듯 먼지행성에 온 인물들은 서로 의지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 확산

사랑하며 살아간다. 버려진 이들의 서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가의 이야기가 가을 속으로 조곤조곤 울려 퍼졌다.

'먼지행성'에 관한 대담으로 시작한 북콘서트는 책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삶과 문화를 넘나드는 수다로 이어졌다. '먼지 행성'을 읽은 사람들도, 읽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북콘서트였다.



미각의 향연 | 열의 가을채소 요리교실  
17:10~17:40

성사경 원데이클래스 마지막 프로그램은 '미각의 향연'이었다. 책으로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니 이제 배를 채울 시간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요리 교실은 아니었다. 테이블 위를 화려하게 수놓은 가을 채소에 눈이 즐겁고, 손수 채소를 꽃아 감자 배를 만드니 손이 즐겁고, 또 먹기도 하니 입이 즐거운 오감만족 체험이었다.

쉬우면서도 즐겁고 맛있는 '미각의 향연'을 만끽하는 동안 축제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색의 향연과 책의 향연, 미각의 향연에 상송 공연까지 더하여 실 틈 없이 이어진 메인 무대의 풍성함은 축제의 흥겨움을 한껏 끌어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메인 무대 바깥에서는 「모두의 향연」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었다.



## 현장스케치\_3

### 주제마당 성사경 대장간 / 성북인물전 / 모두의 도서관

#### 성사경 대장간 1 - 플라스틱 키링 만들기

「모두의 향연」에서는 사전 캠페인으로 '순환경제 챌린지-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PET병과 달리 플라스틱 병뚜껑은 재활용이 쉽지 않는데, 이 병뚜껑을 모아 지구 모양의 플라스틱 키링을 만들어 봄으로써 순환경제의 의미도 살리면서 환경보호 참여 의지를 되새겨 보자는 취지였다.

사전 신청을 하고 플라스틱 병뚜껑 30개 이상을 모아온 주민들은 그린히어로 인증 배지와 플라스틱 키링 만들기 체험권을 받았다. 플라스틱 키링은 성사경 대장간에서 직접 만들 수 있었다.



체험권을 내고 플라스틱 병뚜껑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설명을 들었다. 키링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병뚜껑! 설명을 하는 사람도, 설명을 듣는 사람도 열심이었다.

지구 모양의 키링은 수없이 많은 플라스틱 병뚜껑만큼이나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키링을 고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 4.3 모두의 향연

#### 성사경 대장간 2 - 지구 자판기

순환경제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 「모두의 향연」에서는 '플라스틱 키링 만들기' 외에도 '지구 자판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직접 꾸민 용기에 세제를 리필해 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주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체험하는 동안 지구자판기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플라스틱 폐기물 zero'를 실천하는 리필 스테이션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직접 꾸민 용기에 세제를 담은 아이들의 얼굴이 환했다.

#### 성북인물전 '천 개의 표정, 만 개의 행복'

성사경 대장간이 '순환경제'라는 주제를 갖고 있었다면 성북인물전은 '행복한 성북'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었다. 성북구의 사회적 경제 기업인과 성북구민의 얼굴이 화폭 위에서 함께 어우러져, 그 다양한 표정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표현해 보고자 했다.



##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 확산

미리 설치해 둔 캔버스에 여러 사람들이 그린 표정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어떤 표정이어도, 어떤 숨씨어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행복의 표정은 다양했다. 희노애락 모두가 행복이고 서투어도 소중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주민들 모두가 함께한 참여예술의 향연이었다.

### 모두의 도서관 '숨겨진 인생책을 찾아서'

전국을 누비며 책 읽는 즐거움을 알리는 (주)히든북의 야외 도서관 프로그램이 「모두의 향연」에 풍성함을 더했다. 캠핑장에 온 듯, 해먹과 캠핑 의자에 몸을 묻고 책명하는 시간! 잠깐 멈춰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축제의 일부분이었다.

책을 보아도, 보지 않아도 좋았다. 아이들의 손에는 책과 함께 어린이 플라마켓에서 산 장난감이 들려 있기도 했다. 테이블의 책 옆에는 마켓 부스에서 산 쿠키가 놓였다. 유모차가 머물다 떠나고 엄마가 아이를 다독이고 할머니들이 마주 앉아 수다를 떨었다. 모두 '모두의 도서관'의 정겨운 풍경이었다.

주제마당 '성사경 대장간 1·2', '성북 인물전', '모두의 도서관'은 축제 내내 주민을 향해 활짝 열려 있던, 「모두의 향연」만의 프로

그램이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재미있게 담아 낸 주제마당에서 좀 더 색다르고 알차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 현장스케치\_4 오색체험의 향연

축제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빠질 수 없다. '어떤 체험을 해볼까?' 나란히 늘어선 부스를 살피며 복적이든 사람들 틈에 끼어 앉는다. 비누나 방향제를 만들어 가져가기도 하고, 돌맹이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작은 화분에 조심스럽게 식물을 심어 보기도 한다. 게임을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을 배우기도 한다. 그 경험에는 자그마한 성취의 기쁨, 소박한 예술적 고양감,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뿌듯함이 어려 있다. 좋은 축제에는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한다.

「모두의 향연」은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축제이다. 따라서 참여 기업 및 단체에서는 단순한 체험 그 이



상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로 축제에 온 주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환경이나 기후 등에 대해 아이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어요.", "몰랐던 걸 알게 되어 좋았어요." '오색체험의 향연'이란 이름에 걸맞게 다채롭고 풍성하며 여러 의미를 담은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 1. 체험부스

### 친환경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노란들판 유한회사

노란들판 유한회사에서는 내 이름을 수어 스탬프로 찍어 엽서를 만드는 체험과 친환경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양말목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마술빛자루협동조합

마술빛자루 협동조합에서는 양말목, 비즈 등을 사용한 키링만들기 체험을 통해 업사이클링에 대해 배워 보았다.



### 할매풍물단과 함께하는 '절기야 놀자!' 다식 만들어 먹기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할머니들과 함께 옛 과자인 다식을 만들어 보며 세대공감!



## 4.3 모두의 향연

### 색안경끼고 할리갈리 게임하기 (주)디올연구소

저시력자용 디올 폰트를 만드는 (주)디올연구소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할리갈리 게임을 하며 눈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시간여행 '갑자기 80대 노인이 되었다'

#### (주)에이징인플레이스

노인체험복을 입고 80대 노인들의 몸 상태를 직접 체험해 보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 돈BTI 진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금융타로를 통해 나의 금전소비성향 진단해 보기! 1대1 재무상담까지 받을 수 있었다.

### '기후위기' 실크스크린 체험 기후위키협동조합

실크스크린을 찍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내 손으로 알리기!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 확산

**희망의 현수막 함께 만들기** 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  
기후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다 같이 만들어 보았다.



**미해네 작명소 협동조합 미해와어머사들**  
가족 집이름을 지어 명패를 만들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



**붕어빵 석고방향제 만들기** 협동조합에듀닥터바른배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쉽고 재미있는 석고방향제 만들기



**돌맹이 그림그리기 길음아지트**  
자연물인 돌맹이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 체험. 어디에나 있는 자연물이 내 그림으로 인해 특별해지는 경험을 해 보았다.



**온몸비누, 삼베수세미 만들기** 나를 돌봄 서로돌봄, 봄봄  
플라스틱 용기도 나오지 않고 환경도 지키는 비누! 온몸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다.



**이오난사 테라리움 시립성북청소년센터**  
공기정화식물인 이오난사를 화분에 심었다. 현장 곳곳에서 자그마한 화분을 소중하게 들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꽃다듬기 체험으로 즐기는 일상의 꽃문화**  
(주)에프엘비이에스 플로버스  
꽃 다듬으며 힐링하기



**CPR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ICHO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심폐소생술 배워보기!



## 2. 홍보부스

「모두의 향연」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를 홍보하는 부스도 마련되었는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을 알리는 부스가 많았다.

### 마을샘 사회적협동조합

환경문제를 되새겨 보고 인식을 깨우는 시간!



### 사회적협동조합 행복아이

투호 등의 게임을 통해 청소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 성북지역자활센터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그림 검사 등을 진행하며 단체를 소개하고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했다.



### 현존명상협동조합

현존명상센터 소개 및 프로그램 안내



## 4.3 모두의 향연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꾀했다.



### 성북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홍보하며 혐오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회적 가치가 담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주민들은 사회적경제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다. 참여 설문 조사 응답자의 83.7%가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모두의 향연」에 참여한 주민들은 여는 무대, 원데이클래스, 닫는 무대 등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즐김과 동시에, 상시 운영되는 '오색체협의 향연' 부스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의 현장이었다.

## 현장스케치\_ 5 가치소비의 향연, 마켓 & 어린이 플리마켓

### 1. 마켓

가치소비는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로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회적경제 기업과는 환상적으로 어울리는 소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환경오염·자원고갈 등을 고려한 친환경 제품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 공헌하는 등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가치소비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웬만한 기업들도 이제는 가치를 고려한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더 그렇다.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쉽게 가치소비 제품들을 시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가치로운데 기능도 좋고, 가격도 좋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기가 쉽지 않다. 주로 지역에 기반한, 작은 규모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더 어렵다. 이곳에 누가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은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주민들이 만나는 큰 행사다.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는 동시에, 주민들이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인식할 수 있는 장이다. 축제에 온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는 동안 판매 부스도 둘러보게 되고, 제품을 구매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알게 된다.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에는 '가치소비의 향연'이라는 이름 아래 건강한 먹거리, 공정무역제품, 친환경 식료품, 수공예품 등을 파는 16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판매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도 컸으며, 일종의 팝업스토어처럼 주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차별화된 쇼핑 경험과 재미를 제공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만 열리는 팝업스토어는 단 하루 열리는 즐거운 축제에서 경험하는 마켓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모두의 향연」이 준비한 팝업스토어, '가치소비의 향연!' 그 현장을 몇 장의 사진으로 담아 보았다.



## 2. 어린이 플라마켓

업사이클링 및 재활용 제품도 가치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지금,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 감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을까? 「모두의 향연」에서는 '어린이 플라마켓'을 통해 주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가치경제, 순환경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어린이들은 버려질 물건을 서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플라마켓'은 고전적인 아이템이지만, 사회적경제 한마당의 주요 프로그램이 되면 그 의미가 좀 더 풍성해진다. 이미 순환경제 챌린지를 전개 한 바 있는

「모두의 향연」은 '플라마켓'에 숨어 있는 순환경제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한쪽에서는 '성사경 대장간'에서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키링과 리필 스테이션을 체험할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 쓰는 물건들을 사고 판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경제'의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지니 색다른 체험 교육의 장이다. 직접 물건의 가격을 매기고 손님과 흥정까지 해야 하는 경제 교육은 덤!

플라마켓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몹시 즐거워했고,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는 부모들도 즐거워했다. 규모가 있고 축제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행사였기에 사전 신청 열기도 높았다. 초등학교 어린이와 동생, 형누나는 물론 부모님들까지 총 28팀, 110여명의 주민들이 플라마켓을 열정적으로 운영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내년에 또 하고 싶어요."**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가치소비의 향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준 플라마켓 참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을 기약한다.



## 현장스케치\_ 6

### 달는 무대

여는 무대 '모두의 향연으로의 초대'로 시작된 축제는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갔다. 체험 부스도, 판매 부스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원데이클래스 등이 진행된 메인무대도 흥성흥성 달아오른 분위기였다.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인기였던 모두의 도서관은 내내 빈자리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어린이 플라마켓도 성황이 었다. 아이들이 물건을 진열해 두었던 듯자리 곳곳은 허락해지고, 어린이 플라마켓 옆에서 진행됐던 '성북인물전'의 화폭은 두면이 다 꽉꽉 채워져 갔다.

오후 다섯 시, 가을답지 않게 따가웠던 벌이 기세를 잃은 시간, 아쉽게도 축제 또한 대단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메인무대에서는 성사경 원데이클래스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미각의 향연 - 엘의 가을채소 요리교실'이 신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진행본부에서는 '달는 무대'를 위한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는 무대 '모두의 향연으로의 초대'로 축제를 시작했으니 초대 한 분들을 제대로 배웅해야 축제가 잘 마무리될 것이다. 여는 무대와 짝을 이루어 기획된 달는 무대는 공정무역 커피와 차, 그리고 쿠키를 즐기며 댄스 공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축제를 즐기느라 출출해지고 조금 선뜻해진 날씨에 따뜻한 커피와 쿠키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행복감을 퍼트렸다.



### 4.3 모두의 향연



어른들은 커피와 쿠키를, 아이들은 주스와 쿠키를 받아들고 각자 자리를 잡았다. (달는 무대에 제공된 커피 등의 음료와 쿠키는 사전 공지된 대로 합당한 절차를 거친 주민분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달는 무대인 '향연 엔딩'은 Fair Trade Coffee & Tea Time 과 함께 모두의 댄싱 '차봄 댄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차봄댄스팀의 신나는 율동에 따라 춤을 추는 아이들~ K-Pop 댄스에서부터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댄스까지!

신난 아이들의 춤은 어른들까지 무대로 끌어냈다.

모두의 반응은 콘서트에라도 온 것처럼 열광적이었다.

해가 질 때 시작되어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이어진 '향연 엔딩'은 모두의 환호로 끝이 났다.

"올해 '모두의 향연'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많이 와주시고 또 많이 좋아해주셔서 정말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2024 '모두의 향연'은 끝나지만 더 풍성한 2025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기약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 현장스케치\_7 에필로그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이 닫는 무대까지 막을 내렸지만, 그동안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가 아직 남았다. 막 도착해 안내받는 어르신, 햇살 아래 방긋 웃는 아기, 라이브 방송을 위해 인터뷰하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인... 그날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를 수놓은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전해 본다.

- ① 당일 진행본부에서는 축제 시작 전부터 '여는 무대' 사전신청 확인 및 현장 접수를 받았다. 축제 안내도 같이 진행되었기에 여는 무대가 시작되는 14시 훨씬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 ② ③ 「모두의 향연」 참여 이벤트에 응답하고 있는 주민분들!
- ④ 진행본부에서는 사전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순환경제 챌린지의 참여 인증도 받았다.
- ⑤ ⑥ 어디부터 갈까... 곰곰이 리플렛을 들여다보고 있는 어린이,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



### 4.3 모두의 향연



⑦ ⑧ '여는 무대'가 끝나고 난 뒤 메인 무대에서는 성사경 원데이클래스가 진행됨과 동시에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송출!

인터뷰와 실시간 방송은 미디어협동조합와보송과 성북마을TV에서 진행했다.

'모두의 향연'은 성북구청 앞과 바람마당 일대를 모두 아울렀다.

⑨ 체험 및 판매 부스가 많이 몰려 있었던 성북구청 앞에서 메인 무대가 있는 바람마당으로 건너오고 있는 모습.

⑩ 아침 10시, 한적했던 '모두의 도서관'(왼쪽)은 행사 내내 사람들로 꽉꽉 찼다. '모두의 도서관'과 그 건너 플라마켓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해주는 어린이.

⑪ 축제의 대단원을 준비하는 시간. '달는 무대' 참여를 위한 접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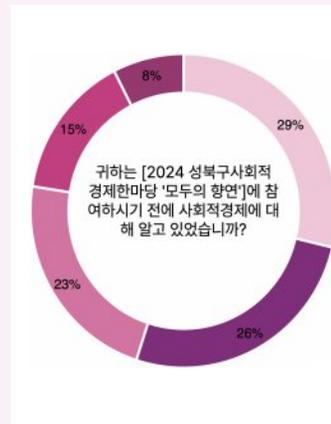
⑫ '달는 무대'가 마무리되는 시간. 종일 고생한 음향팀에게도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모두의 향연' 풍경을 스케치해 보았다. 현장의 분위기가 전해졌기를 바라며~~~ 더 풍성한 '2025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기약한다.

-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최대 3개 선택하게 한 결과 판매부스, 어린이 플리마켓, 여는 무대 '모두의 향연'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남

순위	프로그램
1	오색 체험의 향연 (다채로운 체험 부스 운영)
2	여는무대 '모두의 향연'으로 (오프닝, 향연 상차림 퍼포먼스, 향연)
2	가치 소비의 향연 (판매부스, 어린이 플리마켓)
4	성사경 원데이 클래스 (습식수채화, 북콘서트, 가을채소)
5	성사경 대장간 (플라스틱 키링 만들기, 지구사랑)
6	닫는 무대 '향연 엔딩' (Fair Trade coffee & tea time, 향연)
7	순환경제 챌린지 플라스틱 병뚜껑
합계	

- 행사 전 사회적경제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 그렇다 26.3%)고 응답함
- 본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83.7%가 긍정적으로 응답(매우 그렇다 41.2%, 그렇다 42.5%, 그렇지 않다 15.8%, 전혀 그렇지 않다 1.2%)(1명)에 불과하였음.



- 설문 대상 :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 참여주민
- 설문 방법 : 인터넷 조사(구글 설문)
- 응답 인원 : 총 80명

한 결과, 오색 체험의 향연(체험부스) 33표, 가치소비의 향연(판두의 향연으로의 초대' 각 27표, 성사경 원데이클래스 22표 순으로 높

	선택1	선택2	선택3	합계	비율
향연 (스 운영)	15	7	0	33	41.3%
으로의 초대' (선스, 축하공연)	27	0	0	27	33.3%
향연 (마켓 운영)	11	7	6	27	33.8%
원데이클래스 (음채소 요리교실)	20	9	4	22	27.5%
간 (지구 자판기)	2	7	4	17	21.3%
엔딩' (e, 향연엔딩 공연)	3	1	1	7	8.8%
푸경 모이기 캠페인	2	2	2	9	11.3%
	80	33	17	116	144.7%

- 행사 전후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한 응답을 점수(5점 만점)로 환원하여 비교할 경우, 행사 전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한 점수는 3.54점, 행사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한 점수는 4.55점으로 1.01점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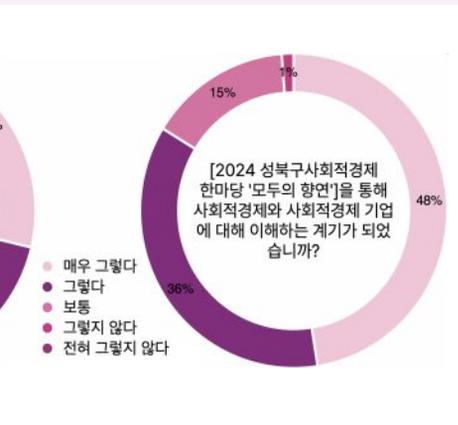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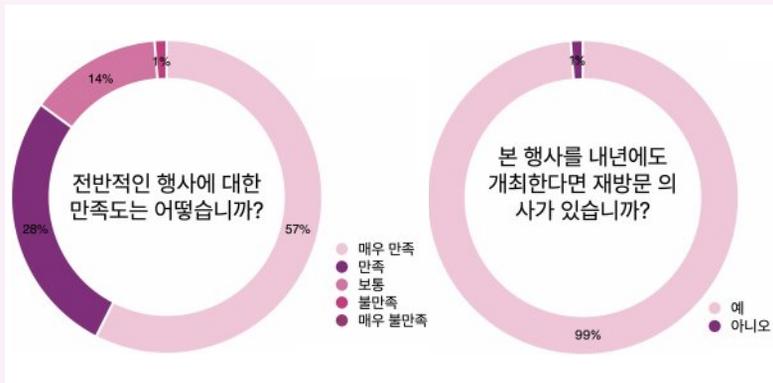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환산
(행사 전) 사회적경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28.7%	26.3%	22.5%	15%	7.5%	3.54
(행사 후) 본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47.5%	36.2%	15%	1.2%	-	4.55

### 행사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57.5%, 만족한다 27.5%으로 전체 응답자의 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1.2%(1명)에 불과하였음. 이를 점수로 환산(5점 만점)할 경우, 4.55점(5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할 경우 재방문 의사에 대해 응답자의 98.8%(79명)가 있다고 응답함

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알고 있다(매우 그렇다 28.7%,

에 기업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7.5%, 그렇다 36.2%)하였고,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는





어린이  
플리마켓

- 설문 대상 : 어린이 플리마켓 28팀
- 설문 방법 : 전화 조사
- 응답 인원 : 총 28명 (응답률 100%)



길음동 주민

- 아이들이 직접 판매하는 경험에 매우 즐거워하고 신나 했다
- 돈 벌어서 물건 계속 사오느라 체험은 못했다
- 공간이 협소해서 어른들은 너무 불편했지만 아이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았고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자리라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돈암동 주민

- 아이가 정말 즐거워했어요
- 전반적으로 운영 잘 해 주셔서 잘 하고 왔습니다
- 끝나고 바로 가서 축제는 못 즐겼어요



돈암동 주민

- 아이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분이 거기에 또 자리를 잡아서 서로 너무 불편하고 미안했다 자리 정리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 아이들이 돈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해서 참여했다 아이들이 물건 팔면서 배운 것 같아 만족한다
- 중간에 살짝 나가서 체험하고 왔다 일정 때문에 플리마켓 끝나자마자 철수했는데 체험을 더 못해서 아쉬웠다 흔한 체험이 아닌 것 같아서



돈암동 주민

- 늦게 갔더니 자리가 없었다 길가에서 겨우 했다
- 오후에 햇살이 너무 뜨거웠는데 가림막이 가려주지 못했다
- 아이는 정말 즐거워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했다
- 중간에 살짝 나가서 체험 3개 했고 플리마켓 끝나고는 피곤해서 바로 갔다



돈암동 주민

- 재미있었다 아이는 또 하고 싶다고 한다 물건 판매하는 경험이 재미있고 의미있다
- 조금 늦었는데 자리가 없었고 그늘막이 쳐져 있지 않은 곳이라 힘들었다
- 중간에 체험 3개 정도 하고 왔다 끝나고는 피곤해서 바로 갔다



돈암동 주민

- 만족했어요 내년에도 하고 싶어요 체험은 못했고 플리마켓 끝나고 바로 갔어요
- 엘의 가을채소 요리교실에 참여했어요 비용 대비 구성이 좀...
- 장소가 좁아서 불편했어요



동소문동 주민

- 아이가 처음 하는 경험, 물건 판매 구매 즐거워했다 또 하고 싶다고 해요
- 체험은 못했어요 플리마켓 끝나고는 바로 갔어요
- 자리가 좁고 지정이 안되어 있어 눈치껏 해야 했어요 불편했어요



보문동 주민

-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나중에 또 하고 싶다고 하네요
-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거기 있는 물건을 사는 경험이 재미있고 의미있었어요
- 끝나고 축제를 즐기지는 못했어요 바로 갔어요



보문동 주민

- 플리마켓은 처음이었는데 아이가 주도적으로 간판 만들고 물건 사고 파는 경험을 해서 재미있고 의미있었습니다
- 중간중간 체험 다녀왔습니다 원데이클래스 요리교실에도 참여했어요



하월곡동 주민

- 진행분부에서 잘 알려주셔서 무리 없이 다 잘 진행했다
- 체험도 중간에 다녀오고 플리마켓 끝나고 나서도 잘 참여했다



보문동 주민

- 재미있었어요 아이도 재밌어하고
- 체험은 중간에 다녀왔는데 멀리 못 가서 키링과 성북인 물건만 했어요



정릉동 주민

- 재밌었어요
- 체험은 못했어요



아리랑로 주민

- 아이가 정말 재밌었어요 판매에 정신이 팔려서 체험은 하지도 못했네요
- 가림막이 부족해 땀별이 너무 힘들었어요
- 아리랑시네센터에 붙은 포스터 보고 신청했어요 포스터 더 많이 붙여 주세요 주변에서 많이 몰라서 안타까웠어요



보문동 주민

- 아이 친구들과 함께 참여
- 정말 재밌었다 체험을 많이 못해서 아쉬웠다 플리마켓 마치고 가려 했는데 잘 안 됐다
- 자리확보가 안되었다 선착순인줄 몰랐어요 자리정리 해주셨으면 톨로확보 해주셨으면



삼선동 주민

- 온가족이 종이 즐겁게 놀았어요 아이들은 플리마켓 할아버지 할머니는 체험
- 아이들이 물건 판매 하며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 다음에도 하고 싶다고 한다 가림막이 오후의 햇볕을 가려주지 않아 너무 뜨거웠어요
- 정말 재미있었고 이런 행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기업(기관 및 단체) 설문조사

- 설문 대상 : 모두의 향연 참여 46개 기업
- 설문 방법 : 인터넷 조사(구글 설문)
- 응답 인원 : 총 46명 (응답률 100%)

### 참여 기업(기관 및 단체)에서 얻은 성과

- 행사 참여를 통해 기업의 얻은 성과에 대해 기업(기관 및 단체) 및 제품(서비스) 홍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각 25표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사회적경제 기업 및 유관 단체 간 네트워크 14표, 새로운 경험과 성장 10표, 매출증대 1표 순으로 높게 나타남

순위	프로그램	선택1	선택2	합계	비율
1	기업(기관 및 단체) 및 제품(서비스) 홍보	5	0	25	54.3%
2	지역 주민과의 소통	14	11	25	54.3%
3	사회적경제 기업 및 유관 단체 간 네트워크	4	10	14	30.4%
4	새로운 경험과 성장	3	7	10	28.3%
5	매출 증대	0	1	1	3%
	합계	46	29	75	163%

### 프로그램 선호도

-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을 최대 3개 선택하게 한 결과, 오색 체험의 향연이 25표로 가장 높았으며, 여는 무대 '모두의 향연으로의 초대' 19표, 가치소비의 향연과 다양한 홍보부스 각 16표, 닫는 무대 '향연 엔딩' 11표, 성사경 대장간 9표, 성사경 원데이클래스와 순환경제챌린지 각 5표로 높게 나타남. 기타 응답으로 '부스 운영으로 미처 둘러보지 못함'이 1표 나타남. 전체 참여를 독려했던 여는무대, 닫는무대 외 타 프로그램 참여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순위	프로그램	선택1	선택2	선택3	합계	비율
1	오색 체험의 향연 (다채로운 체험 부스 운영)	15	10	-	25	54%
2	여는무대 '모두의 향연으로의 초대' (오프닝, 향연 상차림 퍼포먼스, 축하공연)	19	0	-	19	41%
3	가치 소비의 향연 (판매부스, 어린이 플라마켓 운영)	6	9	1	16	35%
4	다양한 홍보 부스	2	8	5	16	33%
5	닫는 무대 '향연 엔딩' (Fair Trade coffee & tea time, 향연엔딩 공연)	0	1	10	11	24%
6	성사경 대장간 (플라스틱 키링 만들기, 지구 자판기)	0	5	4	9	20%
7	성사경 원데이 클래스 (습식수채화, 북콘서트, 가을채소 요리교실)	2	1	1	5	9%
8	순환경제 챌린지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캠페인	1	-	4	5	11%
9	주제마당 (성북인물전, 모두의 도서관)	1	2	1	4	9%
10	빠담빠담 상송 여행 (상송 공연)	0	-	2	2	4%
11	라이브 방송 운영 (기업 인터뷰 진행 등)	0	1	2	3	7%
	합계	46	37	28	111	246%



##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기업(기관 및 단체) 설문조사

- 아이들 참여, 아이들이 건전히 놀 수 있는 체험들을 한 점, 개선할 점은 나눠주신 음식들이 튀김 종류가 많아서 다음부터는 양이 적더라도 좀 더 건강한 음식이었음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 제로 웨이스트에 더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 구청장님께서 아이들의 설명을 잘 들어주신 점

- 공간이 스펙이 조금 부족했어요. 공연장에 음악이 있었다면 조금 더 신났을 것 같아요  
-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았고 행사 처량에 대한 주차 배려가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보였고, 행사 분위기가 쾌활해서 좋았음  
- 테이블과 의자 등이 불편. 공간의 협소. 공연은 괜찮았다  
- 행사 이벤트, 퍼포먼스 기억에 남음

-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쉼 없이) 즐겁게 부스 운영했습니다. 준비부터 진행 까지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일회용 지양 행사로 꾸러지길 바라며, 식수가 정수기 또는 아리수로 누구든 마실 수 있게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환경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진 점과 성북구 내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행사장이 가깝지만 차도를 사이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람객들의 이동 동선이 조금 이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주최가 사회적경제센터로 바뀌면서 공동체 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참여 공동체 단체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해 보였다. 참여 인원과 상관없이 김밥 두 줄, 물 두 개 제공, 2시부터 시작된 체험에 12시까지 오라는 일방적인 통보, 미리 요청받은 부스에 필요한 의자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다

- 성북구 중심에서의 장소와 날씨도 완벽했고, 다양한 부스들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원데이 클래스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또 다 같이 보는 재미가 있었던 원데이 클래스 활동의 아이디어가 빛났습니다. 행사 마무리쯤 커피 티타임 까지 또 신나게 뛰어노는 댄스 타임으로 마무리는 정말 행사의 피날레를 잘 장식해 주었습니다. 다만 행사 부스 내에서의 필요용품 (의자)이 부족해서 앉을 공간이 부족 했었습니다

- 달는 무대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던 작은 축제다운 축제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크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 홍보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함. 성사경 센터에게 감사  
-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부스 위치나 상황을 미리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행사 참여 기업에 대한 주차자리가 확보되면 좋을 것 같고, 부스에 대한 현장 정보가 미리 안내가 된다면 부스 프로그램이나 구성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부스 및 프로그램 안내 방법 개선  
- 부스 위치를 비롯하여 최대한 많이 배려해주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행사 때는 부스 인원에 비례할 정도로는 물을 비롯한 음식이 제공된다면 저희도 더 힘내서 부스 운영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성북구의 다양한 업체들이 한마당에 모여 홍보할 수 있는 잔치를 기획하고 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판매 및 체험 부스와 공연 공간이 잘 어우러져 지역주민들과 건강한 문화적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았습디다. 단체 카톡방을 운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꼬마 그린 히어로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과 지식을 뽐내며 질문에 담고 상 상력을 더해 표현하는 등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에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 주민 참여 오프닝 무대 좋았음. 사전 동영상 배부 등으로 완성도를 높이면 더 좋을 듯함. 사경 축 오프닝 인사 필요, 참여자 행사 시간 사전 안내  
- 체험부스 운영과정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원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고생 많으셨습니다!  
- 부스 공간이 다소 협소한 점

#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

## 공동추진단 평가회의

2024.10.14.(월) 14:00~15:20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참석자 : 강호산(㈜다리메이커), 박혜원(㈜히트북), 이남주(㈜엘마드레), 이은숙(두비비협동조합), 허현주(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김진옥·임현우(성북구청), 박진갑·양영숙·이은혜(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 부스 운영 및 참여 주민 현황 공유

#### 박진갑

**부스운영현황** 총 46개 기업, 36개 팀(공연, 어린이플리마켓 등)에서 396명의 스태프가 참여, 총 매출액은 750여만원(어린이플리마켓 140만원 포함)으로 집계됨. 어린이플리마켓 팀 중 우리동네키움센터10호점의 경우 15만원의 수익을 올려, 참여 아이들과 의논하여 지역 내 기부처를 찾기로 했다고 함

**참여주민현황** 부스 및 프로그램별로 참여 주민을 조사한 결과 총 6,778명(연인원)으로 집계 됨. 개별 중복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함께했던 축제였음

### 한마당에 대한 평가(기획, 준비, 홍보, 당일 운영)

#### 이남주

**홍보** 사전에 센터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모습을 봄. 센터가 중간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끼며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함. 홍보도 열심히 하고, 포스터도 너무 잘 만들었음

**여는무대** 먹거리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퀄리티 있는 무대와 연대, 서로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기획에 참여함. 센터에서 '향연 상차림 퍼포먼스'라는 좋은 이름을 붙임. 선거법 때문에 먹거리 나눔에 제한이 있었지만, 잔치, 함께 나누는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자는 취지가 좋았음. 가장 신경 쓴 것은 색감으로,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화려하게,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함. 다만, 사전 답사의 중요성 느낌. 무대 구성이나 사진 촬영시 내빈 얼굴 각도와 무대 배치, 다음 프로그램을 위한 고려 등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음

**원데이클래스** 가을 제철 채소, 아이가 채소를 먹게 하는 작물임. 길게 늘어놓는 부분에서 비주얼도 좋음. 엄마와 아빠가 같이 참여하며 당일 현장에서 인사가 많이 받음. 야채도 맛있고 조리법도 알아가고, 남은 채소도 나누며 알차게 운영됨

**기업참여** 당일 많은 부스를 두 눈으로 보며 '내가 진짜 연대를 안 하고 살았구나'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이번에 더욱 새롭게 보게 되었고,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생각함. 올해는 음식이었지만 내년에는 다른 컨셉으로 사회적경제가 가진 퀄리티를 드러내는 작업이 계속 시도 되면 좋겠음. 저희가 행사를 통해 서로 성장한 것처럼 준비 단계와 과정이 꼭 필요함. 그랬기에 특색있는 사회적경제 행사가 됐다고

생각함. 기업들이 부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참여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함. 춤추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번에 저는 잘놀다 음

(\*양영숙: 기업들도 축제에 참여하며 내가 뭐를 얻을까, 어떻게 성장할까, 성장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해 많이 언급함)

#### 허현주

**기획회의** 사전 기획 과정에서 센터장이 확실한 구상을 가졌기에 임팩트 있게 진행할 수 있었음

**홍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주민이 오는 것을 처음 봄. 누리마실 같은 큰 축제 외에는 사람 많이 오기 쉽지 않음. 이번엔 부스 셋팅 할 때부터 끝까지 10~20분 전까지 계속 꾸준히 사람이 많이 오는 모습을 보며 홍보를 일찍부터, 정말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이 필요했구나 하고 느낌

**프로그램** 이전과 달리 새로운 음식 퍼포먼스, 엘마드레처럼 새로운 인물의 등장, 지역 대학생과 아이들이 같이 융합하는 모습이 풍성하고 보기 좋았음. 내빈도 둘러볼 곳이 많으니 머물다 감. 처음과 마지막이 좋았던 것이 좋았음. 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담 없이 흥겹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 축제라는 느낌이 들었음

**기업참여** 할매풍물단 어르신과 저를 포함해 총 7명이 참여하여 3인 1조로 운영. 불거리와 참여 거리가 많아서 4시간 부스 운영하며 지루함을 느낄 수 없었음. 어르신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됨. 또한 참가비 처음 실험해봄. 돈을 받고 할 수 있을지, 누가 돈을 낼지 궁금했음.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 생각보다 다식을 맛있어 하는 모습을 발견. 어르신도 보다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몸은 힘들지만 잘 모시고 왔다는 생각함. 기업으로서 향후 체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공간배치** 공간 배치 상 부스가 나누어져 있어서 아쉬움. 파라솔, 쓰레기 봉투 등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시 진행본부가 떨어져 있어서 소수로 참여한 팀의 경우 소통의 어려움을 느낌

**사전영상제작** 사전 신청을 받거나, 현장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음. 사람 많을 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이 되게 좋음. 인스타 영상도 그렇고 몰라서 소외되는 느낌이 들었음 (양영숙: 와보송이 참여하는 의미로 진행 / 박진갑: 예산과 시간 문제로 길게 진행할 수 없었음. 라이브 시간을 따로 편성하거나 1시간을 두 번 운영하는 형태여야 함. 다음에는 시간과 예산에 따라 정규 편성할 수 있을 듯)

#### 박혜원

**운영사로서 평가** 의자 부족(추가 100개는 더 있어야)과 햇빛 민원, 음향에 대한 반성. 햇빛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파라솔 10대가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고, 음향은 구청장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처음에 찢어지는 소리가 난 부분이 있었음. 개인적으로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 된 것 자체가 다행. 나무로 된 판매 부스는 보기에는 예쁘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어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함. 또한 당일 현장에서 전기를 요청한 팀이 있어 내년에는 사전에 리스트(인원, 도착시간, 전기 사용 여부, 필요 물품)를 미리 작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먹거리부스** 먹거리 부스가 더 많았으면 좋을텐데 안와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올해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소문 듣고 오실 듯

**다양한참여** 지금까지와 달리 정말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와서 그림이 참 좋았음. 사회적경제 한마당 단골손님이라는 남자가 계셨는데, 제일 좋았다고 극찬하며 마지막에는 댄스 선생님과 사진도 찍고 감

**기업참여** 이제 사회적기업은 끝물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사실 저희도 예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번에 인증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남주: 대박이다. 이번 향연의 가장 큰 성과임)

### 이은숙

**기획회의** 기획 회의부터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었음. 기획 회의를 시도하여 기획 회의 자체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였음

**운영** 운영사의 반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축제가 잘 됐기 때문임. 내년 규모감이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게 없으면 좋았다 나빴다 판단하기도 어렵기에 긍정적으로 보여짐

**여는무대** 모두의 향연이라는 시민과의 잔치 컨셉, 오프닝이 원하는 것에서 좀 멀어져서(의전 등으로 인해) 시민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

**진행본부**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가 너무 많았음. 이 경우 종합안내소의 역할이 매우 커지며, 인력이 많아도 교육하고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음. '진행본부' 부스 현수막이 1면에만 있었는데, 주민들 시각에서 3-4면까지도 본부석으로 표기 해야함

**모두의도서관** 성북구 사회적경제 현장에 기본적으로 모두의 도서관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기본 전제임. 다만, 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 (\*박혜원: 사실 관리가 어려움. 행사장엔 쉼터가 필요하기에 좌석을 더 배치하는 수밖에 없고, 100석은 가능함) 행사장에 장비가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라, 이번에 규모는 적정했다고 봄

**어린이플리마켓** 이렇게 인기 있는 곳은 흔치 않음. 좋은 물건들도 많고, 성북구 지역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더 지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해주면 좋겠음

**홍보부스** 생각보다 주민들이 홍보부스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참여함. 보통 자리만 있고 사람은 없는데, 부스가 북적여서 사람이 더 들지 않았을까 함

**총평** 전체적으로 85%, 공간 배치, 목표치와 목표치에 도달한 수치를 봤을 때 규모감이 딱 좋았음. 특히 많은 기업의 참여가 인상적이었고, 센터에서 참여 유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잘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준비가 되었기에 어린이, 학생, 성인이 한자리에 모여 머무를 수 있었고,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끝판왕임. 성북 인물전이 그 아이들의 낯서 때문에 마무리가 좀 아쉬웠어도, 이 아이들이 흐르지 않고 머무르고, 무언가를 했는데 이탈하지 않고 다시 머물렀다는 의미기에 전반적으로 좋았음. 또한 '성사경의 행사로 규정지어져서 좋았던 것은 에이징인플레이스가 진행한 70대 노인체험임. 다른 데서는 못할 체험으로 3-4명만 참여해도 그 의미로서 좋은 일인 것 같아 기업을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음

### 강호산

**기획회의** 한마당에 매년 참여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자리를 채워주십사에 가까웠고, 저희도 왜 참여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올해는 기획회의에 참여하여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성북구 주민에게 기업을 알리고,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었음

**부스운영** '이번 축제 진짜 잘됐다'라는 얘기를 전 팀원이 계속 얘기함. 작년에는 4시에 기업 부스가 텅텅 비었는데, 올해는 사전 공지를 통해 기업이 마지막까지 남아 함께 자리를 꾸미고, 아이들이 재밌게 춤추는 것을 보며 마무리 지으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음. 위치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홍보 부스 건너편이라 거기 오셨던 분들이 그대로 저희 부스에 오셔서 수혜를 많이 받음

**공간배치** 작년엔 입구가 2개로 구형 정문 입구 쪽에도 부스를 깔아서 분산이 됨. 오신 분들이 '여기 뭐 없네'하고 집에 가며 그대로 유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제한되다 보니 다시 돌아보고 가는 동선 설계가 됨

### 김진욱

**기획회의** 기본틀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 걱정했고, 기획을 조금 더 빠르게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함.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계속 북적임. 갔다 온 어떤 아이 엄마도 하루 종일 행사장에서 재밌게 잘 있었다고 얘기함. 사실 대부분은 기획 단계부터 깊이 참여하지 않는데, 이번엔 여러 번 하면서 좋은 경험 갖고 자선이 됨. 진심으로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행사가 너무 잘 돼서 감사함

**사고대응** 행사장에서 스스로 쓰러진 할머니를 이송하는데 1시간 20분이 걸림. 구급차가 돌아다니며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데 40분, 그 자리에서 병원을 매칭하는데 40분이 걸렸음. 어쨌든 잘 마무리되어 다행. 도착하니 5시 30분이어서 부스를 못 돌아봐서 아쉬움

**사전영상제작** 큰 화면에 띄우는 것이 좋았음. 다만, 대형 전광판 송출 시 1분의 영상 제한 시간이 있었는데, 미리 안내하지 못해 여러 번 편집하게 된 점은 죄송함

(\*박진갑: 현장에서는 전체 영상, 1분 영상 둘 다 필요했음)

**전체적인그림** 인터뷰 영상이 대형 전광판에 나오고, 바람마당 가운데 공간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건물 외벽에는 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모습이 멀리서 봤을 때 되게 예뻐움. 바람 마당에서 계속 무언가가 움직이니 사람 유입도 좋았던 것 같음

**바람마당** 행사가 북적였던 것이 바람마당 가운데 공간을 살려서라고 생각함. 보통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가운데 공간이 죽게 됨

**여는무대** 개막식 시 리허설을 못한 것이 아쉬움. 음식 셋팅 된 후 천을 열고 닫을 때 음식이 쓰러지지 않을지, 음식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사진 찍을 때 기동 때문에 얼굴 부분이 안 보일 수 있는 점 등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이 불안 요소가 됨. 왈츠 연습 1시간은 부족해보였음

(\*박진갑: 긴 연습은 아이들이 힘들어 할거라고 반대해서 시간을 줄임. 그리고 현장상황이 아이들이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음)

(\*박혜원: 내년에는 사전 연습 영상 제공도 방법)

**인력운영** 행사 운영 부스가 바빴음. 구청에서도 시간대별로 1명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생각을 못함

**물품운영** 전체적으로 의자 부족, 플리마켓 그늘막이 부족했음

**매출** 매출이 2배임. 작년에 3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750여만원으로 많이 발생

## 임현우

**기획** 작년 예산의 2/3,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센터장과 공동추진단 참여한 분들이 열심히 해주었기에 잘되었음. 개인적으로 청장님께서 가장 흐뭇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이 저예산이지만 가능한 부분을 몸소 보여준 것. 앞으로 이게 표본이 될 수 있음. 공무원이다 보니 전에 하던 방식이 편해서, 평일이 아닌 주말에 한다고 했을 때 우려를 많이 함. 사회적경제 뜰구름 잡는 애기처럼 느껴질 수 있고 일반인이 많이 옮겨 걱정했는데 오래 머물렀음. 온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 기획, 스탬프투어 운영으로 시간대별로 간격 두고 5시까지 참여해야 기념품을 주는 등 경험이 많으셔서 기획도 잘 되고, 많이 배운 시간이었음

**준비기간** 기간이 타이트 함. 작년의 경우 방침을 한달 전에 받았는데, 이번에는 2주 전에 받음. 과장님 컨펌 및 국장님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한 번에 되지 않음. '이건 왜 이렇고, 조금 어떻게 해야하 하는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어서 입이 바짝 말랐음. 행사 당일도 왈츠 공연 시 청장님 모시고 나와서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전 조율이 안됨.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신경 쓰임. 사전에 완벽하게 조율하려면 더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야 함

**홍보** 기업 공모사업 실적 등 한마당에서 홍보하기 딱 좋음. 기업을 통해 미리 내용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여 대형 전광판이나 대형 현수막을 미리 제작해서 외벽에 붙이는 등 홍보하면 좋겠음

**기업참여** 예전보다 올해 많이 남아있었음. 인센티브 같은 것 없이 자발적 참여로 이뤄짐

(\*박혜원 : 판매가 되고 체험을 하니깐 남게 됨. 그 전에는 사람도 없고 추웠음)

(\*박진갑 : 사람이 계속 오면 동기부여 되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음)

(\*이은숙 : 기획적으로 기업에게 사전에 끝까지 참여하고, 이를 위한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는 고지를 계속 함. 물량이 없는데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현장 시간대를 다 계획하여 업체에게 연락을 주었음)

## 박진갑

**피드백** 공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은...음... (\*김진옥: 어쩔 수 없음. 바람마당과 구청사이 도로의 교통통제는 아무리 해도 불가능함) 사회적경제와 기업 홍보 현수막 게시는 내년 기획에 반영해도 좋을 내용들임. 제로웨이스트(다회용기 등), 생수 대신 정수기 대체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많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가능한 부분임. 사실 향연을 해보자고 했지만 어떤 그림이 나올지, 최대한 현장 공간 배치를 뒤로 빼서 시도해 봄.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제대로 향연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경험과 교훈을 얻었음

**기업연계** 교육지원과 등 타 부서에서 와보송 협동조합 컨택 요청이 와서 연결함. 체험 프로그램 문의도 계속 있어 연계적인 차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큰 행사였음

## 양영숙

**기업모집** 올해 기업 모집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좋을텐데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아쉬웠음. 실제로 찾아와서 참여시 얻는 점에 대해 상담한 기업이 있었고, 결국 참여는 안했지만 행사 당일 방문하여 둘러보고 가는 모습을 봄. 내년엔 소문이 나서 보다 참여하지 않을까 함

**홍보** 직원들이 비오는 날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포스터를 붙이고 다님. 또 엘마드레 대표님이 성북동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포스터가 비에 젖어 떨어지니 테이프를 다시 붙여주시고, 또 그 와중에 누군가 신청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대표님들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지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바람이 있었음

**사전영상제작** 사실 와보송이 힘들어서 해야할지 고민했는데, 센터장님이 밤을 새서 영상 교정을 봐주고 구청과 소통하면서 완성할 수 있었음. 영상이 전광판에 나오는 모습 너무 좋았음. 한마당 전날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당사자도 매우 좋아했을 듯

(\*이남주 : 정말 좋았다. 인터뷰도 엄청 잘 따주시고, 멀리서 봤을 때 그림이 되고, 너무 이뻐요)

### 박진갑

바쁜 가운데서도 전체 기획회의, 여는무대 준비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첫 번째 향연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주신 공동추진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청에서도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셨고 큰 힘이 되었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기업과 주민들, 그리고 서포터즈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음. 이런 피드백과 평가를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욱 의미있고 발전적인 향연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총평

○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은 사회적경제 기업, 기관, 단체, 주민 모두와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확산, 기업 간 협력, 지역기관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됨

○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해 사전캠페인 지역순환경제 챌린지와 성사경 대장간, 어린이플리마켓,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매우 높게 나타남. 다양한 사회적경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 나타남

- 주민 만족도 점수는 4.41점(5점 만점), 재참여의사는 98.8%로 매우 높은 편이며, 사회적경제 인식 변화에 대해 행사 전 3.54점에서 행사 후 4.55점으로 크게 상승함. 어린이 플리마켓의 경우 아이가 주도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 순환경제를 즐겁게 배울 수 있어 아이와 부모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내년에도 재참여 의사를 밝힘

○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기관·단체·대학에게도 열어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운영 결과, 46개 기업(기관·단체)이 체험·판매·홍보부스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높은 정량적 성과를 달성함

- 참여기업(기관·단체) 설문조사 결과 총 매출액은 7,515천원, 참여주민 수는 6,778명으로 조사됨

- 행사를 통해 얻은 성과로 기업(기관 및 단체) 및 제품(서비스)의 홍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주민과 성북구 내 다양한 단위와의 교류가 높게 평가됨. 참여기업(기관·단체) 만족도 점수는 4.75점(5점 만점), 재참여 의사는 95.7%로 참여에 대한 매우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기업 역량 강화, 기업 간 협력 경험 제공을 위해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공동추진단, 여는 무대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사 기획 및 개발 과정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평가회의 결과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공동추진단으로서 행사 전체 과정(기획-준비-실행-평가)에 함께 참여 한 것이 좋은 성장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공감, 행사 기획 및 준비에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해당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연대감과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경험함

- 여는무대 기획단을 통해 향연 상차림 퍼포먼스를 기획, 실행하였고, 주민·기업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여는무대' 모두의 향연으로의 초대'가 상위를 차지함

○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역기관 및 단체의 참여 노력, 주민 참여를 위한 사전 홍보 강화 등이 흥행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종합적으로 주민 인식 확산, 기업 간 협력, 지역 내 상생 도모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임

## 4.4

# 성사경 서포터즈

주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성북구 사회적 경제 홍보대사!  
성사경 서포터즈를 응원해주세요.

# 성북구 사회적경제 서포터즈

성사경에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사회적 경제를 홍보해 주실 '성사경 서포터즈'를 모집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선정하기가 참 어려웠답니다. 많은 신청자분들 중에서 총10분이 '성사경 서포터즈'로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성사경 서포터즈 발대식』이

8월 19일(월) 오전 11시,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너무 어렵다고들 합니다.

'성사경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시면서 주민 입장에서 쉽고 친근하게 사회적경제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 성사경 서포터즈 발대식

2024.08.19.(월) 11:00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센터장님의 당부 말씀과 함께 성사경 서포터 분들도 서로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성북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크면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사경 서포터즈를 하면서 성북구 사회적경제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홀해졌구나~ 싶더라고요. 성사경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키우기 전에는 편집 일을 했었어요. 그 경험을 살려 활동해 보고 싶어요."

"지금은 육아하느라 바쁜데... 예전엔 서포터즈 활동을 꽤 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성북구의 행사 정보를 알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성사경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사회적경제에 대해 저는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을 널리 알려보려고요~~"

"성사경 서포터즈 활동이 무척 기대돼요!"

서포터즈들의 이야기에

성사경도 기대감이 한껏 차올랐습니다.

##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 확산

자기소개와 인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성사경 서포터즈> 활동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집중하다 보니 회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앞으로 성사경이 진행하게 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켓, 축제'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만나기로 하고 성사경 서포터즈와 헤어졌는데요.

어쩐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사회적경제가 성사경이 참여하고 또 기획하는 행사를 통해 그리고 그 행사를 알리는 성사경 서포터즈들을 통해 주민분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경제 소문내기 프로젝트 <성사경 서포터즈> 인스타그램에서 보신다면 지나치지 말고 공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 4.4 성사경 서포터즈

---

# 05

# 성북구 사회적경제 현황 및 센터 소개

성북구 사회적경제 현황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및 지원 정책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소개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비전 및 2024년도 주요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목록





# 성북구 사회적경제 현황

구분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전국	3,734	2,234
서울시	604	368
성북구	30	22
서울시 대비 성북구 비율	5.0%	6.0%

구분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서울시	24.2	14.7
성북구	30	22
서울시 대비 성북구 비율	123.9%	149.6%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합계
26,585 (5,106)	1,770	1,012	2,448	37,783
5,143 (948)	109	138	602	6,964
151 (33)	7	7	15	232
2.9% (3.5%)	6.4%	5.1%	2.5%	3.3%

출처 : 성북구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2024년 6월 현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합계
205.7 (37.9)	4.3	5.5	24.1	278.5
151 (33)	7	7	15	232
73.4% (87.1%)	162.7%	127.3%	62.2%	83.1%



#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및 지원 정책

## 지원 정책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청년 소셜벤처 혁신 경영대회  
공유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한마당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공간 지원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협동조합 마을학교, 주간행사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공시제 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인 지정 및 재정 지원사업

공정무역센터 운영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 비 고

### [사회적경제 기업]

- 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② 협동조합,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③ 마을기업
- ④ 자활기업
- 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⑥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따른 조직 또는 단체
- ⑦ 공정무역지원조례에 따른 단체
- ⑧ 사회적가치 실현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소개

## 층별 안내



- 6층** | 다목적홀(최대 80명)
- 5층** | 입주기업 사무실(4개 기업), 게스트룸(최대 20명), 공용회의실
- 4층** | 입주기업 사무실(10개 기업), 휴게실
- 3층** |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교육장(최대 40명)
- 2층**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0호점
- 1층** | 국공립새날어린이집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비전 및 2024년도 주요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전통시장, 복지관 등 유관기관, 대학,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

- 성사경 드림패키지
- 지역 대표축제 참여
  - 성북문화유산야행, 사랑나눔연합바자회 등
- 지역경제 네트워크 구축



## 성장지원 및 핵심 리더 양성

친근하고 재미있는 사회적경제를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

- 성사경 뽐뽐뽐
- 쿵페스타
-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
- 성사경 서포터즈



# 사회적경제기업 목록

## 1. 사회적 기업

순번	기업명	대표전화
1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02-909-4125
2	날으는자동차	02-764-8092
3	사단법인 캠페인데이션	02-766-7660
4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유한회사	02-469-9101
5	예술과마음	02-713-0116
6	유한회사햇살놀이터	02-1600-2238
7	장애인문화예술판	02-745-4208
8	(주)대지를 위한 바느질	070-8840-8826
9	(주)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02-2135-3924
10	(주)땡큐플레이트	02-924-0434
11	(주)비전웍스	02-555-3898
12	(주)삼구나라	02-928-8139
13	(주)세진플러스	02-909-6222
14	(주)가든프로젝트	02-2203-9501
15	(주)극단아리랑	02-763-6055
16	(주)나무와숲심리상담센터	02-926-1272
17	(주)놀이나무	02-943-4433
18	(주)명랑캠페인	070-7527-0855
19	(주)아츠컴퍼니뜨락	02-6402-7751
20	(주)엘마드레	070-7798-5173
21	(주)디올연구소	02-915-9969
22	(주)아트버스킹	070-4773-0880
23	(주)엠플엔터테인먼트	02-6101-3738
24	(주)트리플레이엔파트너스	02-921-7199
25	(주)필씨엔에스	02-363-1201

사업내용	홈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공동 돌봄서비스 및 상담, 치료	<a href="http://www.나무와열매.kr/index.html">http://www.나무와열매.kr/index.html</a>
공연, 예술교육	<a href="http://www.nalja.net">http://www.nalja.net</a>
전시, 미술품임대, 대관, 기업문화예술 아카데미, 디자인 컨설팅 등	<a href="http://can-foundation.org">http://can-foundation.org</a>
장애인을 고용하여 출판, 인쇄, 현수막, 디자인 등 제작	<a href="https://norandp.co.kr">https://norandp.co.kr</a>
공연기획, 공연홍보대행업 및 공연제작 문화예술교육사업	<a href="https://www.facebook.com/artnheart2012/?locale=ko_KR">https://www.facebook.com/artnheart2012/?locale=ko_KR</a>
공연 제작 및 체험 기획, 놀이터 프로젝트	
장애인극단 운영 및 장애인문화예술웹진 제공	<a href="https://www.artpan.net">https://www.artpan.net</a>
친환경 결혼 전반, 친환경 리빙 제품, 유기농 의류, 에코 가이드북 출판 등	<a href="https://sewingforthesoil.modoo.at">https://sewingforthesoil.modoo.at</a>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활성화 컨설팅 및 지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a href="http://designgroup-utopia.com">http://designgroup-utopia.com</a>
교육, CI · BI 브랜딩, 디자인, 출판, 푸드웨어링	<a href="https://blog.naver.com/thankuplate">https://blog.naver.com/thankuplate</a>
소프트웨어자문, 헬스케어 기능성게임개발 (인지장애, 치매, 사회불안증 등)	<a href="https://www.govw.co.kr">https://www.govw.co.kr</a>
재가장기요양사업	
의류 제조, 약세서리 도소매, 봉제기기 도소매업, 봉제기기 임대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업	<a href="http://www.sejinplus.co.kr">http://www.sejinplus.co.kr</a>
조경건설업, 원예자재 도소매, 환경관련엔지니어링	<a href="http://gardenproject.co.kr">http://gardenproject.co.kr</a>
문화예술공연	<a href="https://www.instagram.com/airiang1986">https://www.instagram.com/airiang1986</a>
개인심리상담 및 집단심리상담 문제, 도박자, 한부모가정, 성폭력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리교육	<a href="https://blog.naver.com/phck1272">https://blog.naver.com/phck1272</a>
박물관교재교구 및 콘텐츠, 교재출판, 문구용품,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통신판매	<a href="https://www.instagram.com/norinamoo.aha">https://www.instagram.com/norinamoo.aha</a>
사회적약자를 응원하는 콘텐츠 제작,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 진행	<a href="http://merrycamp.com">http://merrycamp.com</a>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B2B문화예술시장	<a href="https://ddre4.cafe24.com/default/temp/index_expand.php">https://ddre4.cafe24.com/default/temp/index_expand.php</a>
음식관련 교육, 컨설팅, 케이터링	<a href="https://www.instagram.com/l.madre_official">https://www.instagram.com/l.madre_official</a>
노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디자인 개발	<a href="https://designforall.inweb.me">https://designforall.inweb.me</a>
지역 문화기획 및 소셜펀딩 플랫폼 구축, 컨설팅	
이벤트프로모션전시축제공연 기획, 온라인 및 모바일 기획 및 제작, 광고 및 홍보기획 및 대행, 홍보물 등 디자인 및 제작, 연애매니지먼트, 음원, 앨범 및 비디오 영상물 기획	<a href="https://www.yeoment.com">https://www.yeoment.com</a>
개방형 레시피 공유를 통한 온, 오프라인 반찬 및 도시락 판매 사업	<a href="https://roundkitchen7.co.kr/order/basket.html">https://roundkitchen7.co.kr/order/basket.html</a>
건물(시설) 유지 관리 용역업, 청소용역업, 소독 방역,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 사회적경제기업 목록

26	지역자산화협동조합	070-5142-1269
27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070-8820-2580
28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	02-942-7766

## 2. 예비 사회적기업

순번	기업명	대표전화
1	마슬빛자루협동조합	02-909-0811
2	마을엄마협동조합	02-443-6620
3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02-925-2528
4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02-922-0704
5	에이징인플레이스	0507-1352-5402
6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02-2692-7111
7	(주)게릴라즈	-
8	(주)공공도시	02-6925-5251
9	(주)다리메이커	0507-0177-1212
10	(주)더그린제너레이션	070-4833-8884
11	(주)바실즈중독회복센터	0507-0177-1212
12	(주)신호등사람들	-
13	(주)오롯플래닛	02-338-3995
14	(주)한옥상점	02-742-9272
15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02-741-6031
16	한낮의햇살 주식회사	02-778-7942
17	협동조합고개엔마을	02-6015-2620

지역자산화 관련 교육, 연구, 정책개발 및 자산 관리 운영	<a href="http://www.local-commons.org">http://www.local-commons.org</a>
금융취약계층 생활경제교육 및 재무상담 서비스	<a href="https://youthmoneyhabit.modoo.at">https://youthmoneyhabit.modoo.at</a>
청소년 마을학교 사업(자치공동체, 진로통합동아리)	<a href="https://www.youthforest.net">https://www.youthforest.net</a>

사업내용	홈페이지
건물위생관리업, 청소용품 판매업, 휴게음식업	<a href="https://sbmbcoop.modoo.at/?pc=1">https://sbmbcoop.modoo.at/?pc=1</a>
교육컨설팅, 건강한먹거리, 베이킹, 전통다과, 케이터링	" <a href="https://blog.naver.com/vbc1104">https://blog.naver.com/vbc1104</a> <a href="https://www.instagram.com/jw_moms_table">https://www.instagram.com/jw_moms_table</a> "
집 없는 이웃을 위한 주거상담 및 주거지원, 복지활동가 교육, 지역자산화 사업,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a href="https://www.yesnanum.org/">https://www.yesnanum.org/</a>
보건의료사업	<a href="https://www.sbmedcoop.or.kr/">https://www.sbmedcoop.or.kr/</a>
고령화 맞춤형 주거 관리 서비스	<a href="https://www.services-aip.com/">https://www.services-aip.com/</a>
교육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학습집중력과 사회성향상을 위한 도서교육 제공	<a href="https://joincoop.modoo.at/">https://joincoop.modoo.at/</a>
게릴라 스페이스(G-Space) : IoT를 통한 비대면 공간 거래/관리 솔루션	<a href="https://guerrillaz.modoo.at/">https://guerrillaz.modoo.at/</a>
로컬창업방법론을 적용한 e-러닝 플랫폼 활용 교육 공유	<a href="https://00dosi.co.kr/">https://00dosi.co.kr/</a>
진로직업 교육, 위탁, 파견 교육사업	<a href="https://darimaker.com/">https://darimaker.com/</a>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친환경 소재 활용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제작 사업	<a href="https://thegreenlab.co.kr/">https://thegreenlab.co.kr/</a>
익명을 중시하는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돕는 교육 사업 (온라인 교육, 상담, 커뮤니티 사업)	<a href="https://bassilz.com/">https://bassilz.com/</a>
환경과 디자인을 모두 생각한 100% 리사이클링 의류 제작 (온라인쇼핑몰 운영)www.eda.or.kr	-
청각장애인 문화소의 해결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서비스, 청각장애인 일자리창출	<a href="https://www.orotplanet.com/">https://www.orotplanet.com/</a>
목재 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목재친화도시 구축, 한옥 등 목조 건축 사업, 목공 인테리어 사업	<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FeyVSfk-aalVsVs4TsYn0w">https://www.youtube.com/channel/ UCFeyVSfk-aalVsVs4TsYn0w</a>
청년밥상문간사업, 청년카페문간사업	<a href="https://youthmungan.com/">https://youthmungan.com/</a>
중증장애인 대상 무장애 국내여행 및 여행콘텐츠 제작	<a href="https://daysunshine.modoo.at/">https://daysunshine.modoo.at/</a>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관련 공간운영, 콘텐츠 개발	<a href="https://blog.naver.com/hillnill">https://blog.naver.com/hillnill</a>

### 3. 사회적 협동조합

순번	기업명	대표전화
1	369마을 사회적협동조합	02-6448-2343
2	계성샛별 사회적협동조합	
3	꿈꾸는동행 사회적협동조합	02-942-1037
4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02-909-4125
5	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	02-921-2171
6	마을샘 사회적협동조합	02-5061-5707
7	마을인시장사회적협동조합	02-909-3683, 02-943-3683
8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	02-942-4919
9	바람아래 발도르프 사회적협동조합	02-942-5090
10	비전트리 사회적협동조합	02-919-9290
11	사랑비전스쿨 사회적협동조합	02-913-8563
12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02-919-9290
13	사회적협동조합 호학시인	02-923-0910
14	삼성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02-921-8411
15	성북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02-942-7032
16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922-0704
17	어울림평생교육 사회적협동조합	02-2232-9450
18	은총의집사회적협동조합	02-911-4373
19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02-2692-7111
20	자유정의진리 사회적협동조합	02-909-2191
21	장위희망 사회적협동조합	02-916-7374
22	정릉중앙 사회적협동조합	02-942-3291
23	조이실버복지타운 사회적협동조합	02-909-7070
24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02-567-6952
25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070-8820-2580
26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	02-942-7766

사업내용	홈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a href="https://369maeul.modoo.at/">https://369maeul.modoo.at/</a>
학교 교육지원 사업, 학생 복지사업 학생건강증진사업(매점운영 등)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 공동생활가정운영사업 및 주간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공동 돌봄서비스 및 상담, 치료 사업	<a href="http://www.나무와열매.kr/index.html">http://www.나무와열매.kr/index.html</a>
장애인 청소년사회성 발달 및 심리 정서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교육사업 및 자립생활 지원	<a href="https://www.madangcoop.net/">https://www.madangcoop.net/</a>
마을 여성을 위한 교육 사업,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등	<a href="http://www.maeulsam.com/">http://www.maeulsam.com/</a>
전통시장 컨설팅, 시장 활성화 교육, 예술문화(개울장 장터) 기획 및 이벤트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어린이집, 보육	<a href="https://baramarae.modoo.at/">https://baramarae.modoo.at/</a>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a href="https://www.happyi.org/">https://www.happyi.org/</a>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육서비스	<a href="https://m.blog.naver.com/happywoori2020/222034058170">https://m.blog.naver.com/happywoori2020/222034058170</a>
보건의료사업	<a href="https://www.sbmedcoop.or.kr/">https://www.sbmedcoop.or.kr/</a>
전문강사 양성 및 인문, 문화 교육사업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역 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	<a href="https://joincoop.modoo.at/">https://joincoop.modoo.at/</a>
카페 운영 사업, 바리스타 교육, 신규카페 창업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청년밥상문간사업, 청년카페문간사업	<a href="https://youthmungan.com/">https://youthmungan.com/</a>
금융취약계층 생활경제교육 및 재무상담 서비스	<a href="https://youthmoneyhabit.modoo.at/">https://youthmoneyhabit.modoo.at/</a>
청소년 자치활동센터 및 동아리 운영	<a href="https://www.youthforest.net/">https://www.youthforest.net/</a>

## 사회적경제기업 목록

27	한국웰니스 사회적협동조합	02-830-7804
28	한국의류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02-943-1243

## 4. 협동조합

순번	기업명	대표전화
1	7번출구 협동조합	
2	IT융합기술 협동조합	
3	가지가지살롱 협동조합	
4	같이가치 협동조합	
5	개운산마을 협동조합	070-8801-0415
6	교육공연 창작소 곡식 협동조합	
7	글로벌지속가능건설링협동조합	
8	늘숨 협동조합	02-921-2484
9	다문화 협동조합	
10	다보라메이커스협동조합	02-920-7915
11	다잇넷 소비자협동조합	
12	달란트메이킹 협동조합	
13	대한주짓수연맹 협동조합	02-985-6690
14	더불어사는 문화예술협동조합	02-911-8585
15	더이음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16	도성하우징협동조합	02-6448-2343
17	도시속마을협동조합	02-6223-3389
18	돌아봄사회복지협동조합	
19	두비비 협동조합	
20	드로우주택협동조합	
21	디자인과봉제협동조합	02-6465-8300
22	뜻밖에 협동조합	

마을 자원 지역개발 컨설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및 교육문화 사업 등	<a href="https://wellness.ne.kr/introduction">https://wellness.ne.kr/introduction</a>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유지관리 등	

사업내용	홈페이지
음식업, 문화다양성 공간운영 및 관련사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창업교육 사업, 컨설팅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권관리를 위한 사업 등	<a href="https://blog.naver.com/jeongneungmarket">https://blog.naver.com/jeongneungmarket</a>
개운산마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교육 공연 사업	
국내외 컨설팅 및 교육연수사업, 개발협력사업 등	
패브릭포스터 등의 인테리어 소품 임가공 사업	<a href="http://sbjahwal.or.kr/?act=info.page&amp;pcode=sub2_3">http://sbjahwal.or.kr/?act=info. page&amp;pcode=sub2_3</a>
다문화가정 2세를 위한 교육컨설팅	
창업교육 콘텐츠 및 교구 판매사업, 기업가 정신 교육사업 및 강사양성과정 사업	
생필품 직거래 알선판매 및 스마트 sns를 통한 무상1인 창업 지원 사업	
체험학습 제공 사업, 체험학습 지도자 육성 과정	
체육대회 사업, 세미나 사업	
취약계층 및 문화 소외지역 대상 공연 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콘텐츠개발, 플랫폼서비스, 교구교재 개발 및 학교 방과후 문화예술 교육사업	<a href="https://www.the2um.com/">"https://www.the2um.com/ https://blog.naver.com/the2um"</a>
주택 증,개축 및 신축 등 주택건설공사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는 주택지원사업과 공모사업	
수세미를 이용한 제품제조 및 판매	
육아지원, 노인복지, 콜센터 구축	
문화예술분야 축제, 행사, 공연, 전시, 홍보 공모사업, 연구·컨설팅 사업, 교육사업	
주택임대사업,식음료사업, 실내장식 및 인테리어업, 건축설계업, 리모델링업	
직물 및 의류의 생산시스템 운영, 공동구매와 장비의 공동사용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디지털 출력(현수막, 배너 등)	

## 사회적경제기업 목록

23	미술빛자루 협동조합	02-909-0846
24	마을담은극장 협동조합	문화재단마을공유팀 070-8644-8175
25	마을엄마 협동조합	
26	마인드푸드 협동조합	
27	명상나눔협동조합	02-736-5583-4
28	모두함께협동조합	
29	모햇 제1차 협동조합	
30	문화예술 협동조합 몽당	
31	문화예술협동조합 타래	02-922-5452
32	문화유통 협동조합	02-764-8092
33	문화플랫폼 협동조합 가지	
34	미디어협동조합 와보송	02-926-0527
35	미래협동조합	
36	반걸음협동조합	
37	비엠씨협동조합	02-909-3909
38	사랑나무협동조합	02-540-1983
39	삼각산치유미술협동조합	
40	서울전세버스협동조합	02-912-1830~1
41	성북구친환경마을부역 협동조합	02-941-3142
42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	
43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	070-7804-4939
44	성북문화예술교육가 협동조합 마을은예술	
45	성북서점 협동조합	02-914-0660
46	성북패션제조 협동조합	02-778-0365
47	소셜브랜딩전문가 협동조합	
48	소셜웹전문가협동조합	
49	스마트평생교육협동조합	070-4122-9332
50	슬로푸드 협동조합 달팽이	
51	아름다운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	02-909-5295

건물위생관리업, 청소용품 판매업, 휴게음식업	
지역형 극장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예술 기획	
마을 활성화 교육 사업, 마을 활성화 연구 및 컨설팅 사업	
교육연구, 문화체험 사업 및 지역 농산물, 공예품, 식음료 판매 및 유통	<a href="https://www.instagram.com/hyebeom2019/">https://www.instagram.com/hyebeom2019/</a>
명상문화 교육 및 명상문화 보급 사업, 명상프로그램 교구 연구와 개발	
웃나누기 바자회 및 이주노동자 의류 바자회 사업 등	
태양광 발전사업, ESS 운영 사업	
문화예술 사업	
문화예술 공연 및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기획 및 대행 사업, 도시재생 사업	
지역재생과 공유경제를 위한 문화예술기획 사업 외 다수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a href="https://blog.naver.com/wabstv">https://blog.naver.com/wabstv</a>
아동 보호·교육, 놀이 제공, 아동 문제행동 개선 상담, 행사 기획 및 운영	
식품 유통 판매 사업	
조합브랜드상품 제조 및 판매 사업, 조합브랜드 미용 사업	
의류생산자 기술교육, 공동브랜드 및 의류생산 판매사업	
산림치유프로그램	
전세버스 임대(학교행사, 관광여행, 기업통근 등)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유통 사업 및 먹거리 관련신사업 발굴, 친환경 공공 급식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및 관련 부대사업	
성북동 역사문화 탐방 안내 및 여행사업, 성북동 관광기념상품 개발 및 판매	<a href="http://www.성아들.kr/">http://www.성아들.kr/</a>
문화예술 교육기획 창작, 예술,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납품 사업, 지역학교 및 도서관 활성화 사업	
패션제조업	
시니어 사회복지 및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관련 강사양성 및 파견, 디자인, 그래픽 및 명함제작 관련 사업	
기업, 단체, 협동조합들을 위한 디지털 기술지원사업 스마트SNS 활용 협업과 마케팅기술 활용사업	
강사양성 및 강사공급사업, 마케팅 대행, 공동강좌사업	
슬로푸드와 슬로라이프를 기반으로 한 카페 및 외식	
카페테리아(지역주민소통방), 건강관리 사업, 화초은행 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산물직거래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목록

52	아름드리협동조합	02-764-6909
53	안전한시설 협동조합	02-942-7766
54	알록달록 협동조합	
55	에너지나눔연구소협동조합	
56	예술모델 협동조합	
57	오디자인 협동조합	070-4354-4208
58	위시마스터 협동조합	02-941-2531, 070-8274-1368
59	원협동조합	
60	웰니스팜협동조합	02-830-7804
61	이웃집주거협동조합	
62	장위패션봉제협동조합	
63	전국식자재유통협동조합	070-8867-3781
64	전국청년문화예술 협동조합	070-5089-1808
65	전국푸드트럭협동조합	
66	정릉골상가발전추진협동조합	02-942-8889
67	정릉골상인회협동조합	02-919-1300
68	제로에너지 시민협동조합	
69	즐거운생활 협동조합	
70	지역자산화협동조합	
71	초록사과 협동조합	02-929-9708
72	키후위키협동조합	
73	평화디엠지협동조합	02-957-6780
74	한국공유경제 협동조합	
75	한국교사강사연합회협동조합	02-3214-3324
76	한국방과후지도사협동조합	1566-7060, 070-5055-4252
77	한국웹툰협동조합	
78	한국정원산업협동조합	2203-9501
79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02-6215-1222
80	한국태권도경영자연합회 협동조합	

공예체험지도사 양성 교육 및 수공예 학습, 공예품 제작·판매, 교재개발	
공원, 산책로 등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	
수공예 소품 판매	<a href="https://blog.naver.com/ardrcoop/223470103201">https://blog.naver.com/ardrcoop/223470103201</a>
에너지절약, 에너지 복지 우수사례 발굴, 교육 및 홍보 관련사업, 조사 및 연구 분석사업	
예술모델사업	
디자인 교육 및 멘토링 사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자동차 세차업, 세차용품 판매렌탈	
유통·통신판매 사업, 도소매·상품중개업, 목재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영상배급업 등	
유통사업(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친환경 농수축산 기술 및 작물의 발굴	
공동체주택 관련 사업	
패션브랜드 사업, 패션 및 봉제 관련 문화 사업	
식품, 식자재 유통	
문화예술사업, 정보서비스업	
푸드트럭사업 운영, 홍보, 보급, 지원	
정릉골 상가 활성화 사업, 축제 등 지역문화 사업	
정릉골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스포츠&문화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체육 지원 사업	
지역자산화 교육 및 지원사업 등	<a href="http://www.recommoning.kr/re/index.php?mid=page_JZtN32">http://www.recommoning.kr/re/index.php?mid=page_JZtN32</a>
약세사리 제조 및 도소매 디자인, 브랜드 개발, 홍보, 이벤트 사업	
지역 공유공간 운영, 문화예술 기획 및 전시행사, 디자인, 통신판매 등	<a href="https://keywhowekey.life/">https://keywhowekey.life/</a>
농촌체험, 역사문화현장 학습, DMZ평화통일 현장체험 및 국내외 여행업 관련 품목 유통 등	
교육 및 교육콘텐츠 제공 사업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등 관련 사업, 평생교육 관련 사업	
방과후지도사 교육 및 운영, 원격평생교육원 운영	
웹툰 제작 등 문화 콘텐츠 사업	
정원조성 사업, 관련 교육, 홍보물 발간 등	
정책연구과제, 정부 유관기관 해외사례 조사, 분석, 연구, 부분대행, 통계 등	
태권도장 용품, 태권도 행사, 태권도 대회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목록

81	한국협동조합	02-963-7030
82	함께세움 마을교육 협동조합	
83	핸드메이드 협동조합	02-953-2650
84	햇살그린협동조합	
85	행복 건축협동조합	
86	현존명상 협동조합	
87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88	협동조합 달팽이쿵(COOP)	0507-1451-7103
89	협동조합 디에스엔터테인먼트	
90	협동조합 미해와머스마을	
91	협동조합 삶의예술(Lebenskunst)	070-8261-2117
92	협동조합 아인클랑	02-924-6781, 02-6906-3143
93	협동조합 아트플러그	
94	협동조합 에듀닥터바른배움	02-3673-2796

## 5. 마을기업

순번	기업명	대표전화
1	(주)동네목수	02-747-6004
2	(주)키득키득	02-941-3142
3	(주)신나는체험	02-921-6384
4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02-909-4125
5	더이음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02-921-2025

생필품, 의리기 등 판매	
돌봄교육 및 마을학교 운영, 품앗이 마을교사 입문과정	
핸드메이드 제품 디자인, 제조, 판매 핸드메이드 교육 및 서비스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ESS 운영 사업	
건축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공유사업, 프로젝트 연계 사업	<a href="https://www.happyarch.co.kr/">https://www.happyarch.co.kr/</a>
명상센터설립 및 명상프로그램 운영	<a href="https://truebeing-meditation.com/">https://truebeing-meditation.com/</a>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공유공간 운영 및 관련사업	<a href="https://blog.naver.com/hillnvill">https://blog.naver.com/hillnvill</a>
직업체험 소셜멘토링, 진로멘토링	<a href="https://landsnail22.tistory.com/">https://landsnail22.tistory.com/</a>
대중문화예술 제작업 등	
가족협동조합을 위한 문화공연, 강연, 교육, 놀이 콘텐츠사업	
예술콘텐츠개발, 소셜아트서비스 제공	
교육·문화·예술 관련 서비스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 공연 사업, 음악교육 사업	
문화예술 연구, 기획, 창작 문화예술공간 운영 및 임대	
자기주도학습 교육프로그램운영 자기주도학습사 양성과정 운영	<a href="https://www.edudoctor.net/">https://www.edudoctor.n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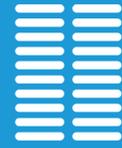
사업내용	홈페이지
마을재생을 위한 장수마을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즉석식품 가공 및 유통	
문화예술교육 활동,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신나는 통합 체험학습)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통합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a href="http://www.나무와열매.kr/index.html">http://www.나무와열매.kr/index.html</a>
예술 커뮤니티 마을강사 양성	<a href="https://www.the2um.com/">https://www.the2um.com/</a>

## 6. 성북구 자활기업·중증장애인생산시설

순번	기업명	대표전화
1	늘숨협동조합	02-6348-0550
2	마술빛자루협동조합	02-909-0811
3	맑은나래	0507-1315-7161, 02-943-7161
4	이마트24 성북장위점	070-4263-0070
5	청백크린	02-6013-2420
6	카페마실	02-922-2005
7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02-6959-8100

사업내용	홈페이지
봉제 가공업, 의복·장식품 제조업, 주문생산	<a href="http://sbjahwal.or.kr/?act=info.page&amp;pcode=sub2_3">http://sbjahwal.or.kr/?act=info. page&amp;pcode=sub2_3</a>
학교청소, 학교대청소, 사무실 청소, 일상관리청소, 소독 및 방역	<a href="https://sbmbcoop.modoo.at/?pc=1">https://sbmbcoop.modoo.at/?pc=1</a>
사무실청소, 건물위생관리, 입주청소, 소독 및 방역	<a href="http://sbjahwal.or.kr/?act=info.page&amp;pcode=sub2_3">http://sbjahwal.or.kr/?act=info. page&amp;pcode=sub2_3</a>
유통·판매업	<a href="http://sbjahwal.or.kr/?act=info.page&amp;pcode=sub2_3">http://sbjahwal.or.kr/?act=info. page&amp;pcode=sub2_3</a>
사무실청소, 입주청소, 사무실대청소, 준공청소, 에어컨청소, 일상관리	<a href="http://sbjahwal.or.kr/?act=info.page&amp;pcode=sub2_3">http://sbjahwal.or.kr/?act=info. page&amp;pcode=sub2_3</a>
커피, 음료, 생과일 쥬스, 와플 토스트 등, 외부 케이터링	<a href="https://cafemasii12.modoo.at/">https://cafemasii12.modoo.at/</a>
발달장애인 근무처 제공, 생산활동(카페 운영), 직업적응훈련 서비스 운영	<a href="https://www.happyplus-sg.or.kr/">https://www.happyplus-sg.or.kr/</a>

## 성장지원



20 강



48 시간

## 협력촉진 및 네트워크 활성화



7 회  
교육·워크숍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성사경

## 주민참여 확대 및 가치확산



기업 46 개

34 팀

스텝 396 명

참여주민 6,778 명 (연인원)



# 자문단



시간

524명

10명

10기업

12회

습



# 네트워크 회의



10회

상품·서비스 개발회의

63회

800명 (연인원)

습



8회

지역 축제·행사 지원

3,600명

참여주민

# 쿵페스타

기업

11개

참여주민

400명

# 성사경 뽐뽐뽐

6회

참여주민

156명

(원)

# 성사경 몽클릴레이

## 사회적경제 기업 및 유관기관



### 강호산 (주)다리메이커

매년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내에서 2024년도도 정말 따뜻하고 힘찬 한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사정은 차갑더라도, 서로 돕고 연대하며 더 나은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따뜻한 새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권대익 서울북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역의 공동체들이 사회 문제 해결-돌봄, 먹거리, 기후위기 등에 기여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실천함  
직접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도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사회적 경제 활동 단체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적 실천을 위한 연대 확대  
먹고살기 바쁘게도 불구하고 연대를 통해 돌파하려는 성북의 사회적경제 단체들에게 존경을...



### 김가희 햇별은쟁쟁사회적협동조합

2024년에는 원칙으로서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간, 사회적경제 간 연대와 협동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 햇별은쟁쟁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세로, 다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알아가고 활동가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 지역의 사회적 경제 토대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햇별은쟁쟁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작게나마 지역에서 서로 돌보고 적응해나갈 돌봄의 필요성을 사회적 경제 안에서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목표를 재정립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하게 협동과 연대의 모습을 그려나가길 바라며 성북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 튼튼히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민표 (주)비전웍스

2024년은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블렌디드 파이낸스와 소셜임팩트본드(SIB)가 혁신적 금융상품으로 주목받았으며,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임팩트 투자의 성과측정 지표(KPI)가 더욱 정교화되고,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이 급증하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Socail Taxonomy와 연계된 지속가능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실질적인 사회환경적 임팩트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후기술, 순환경제,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도전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건강하고 뜻깊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김영규 성북구공정무역센터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모두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 정치적 상황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더욱 지역으로 눈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연대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연대란 사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 아닌가,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대는 힘이 생깁니다. 내년에 더 자주 만나길 바랍니다.



### 김진구 (주)에이징인플레이스

올해는 특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벌써 3년 차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말만 사회적경제 조직이었다면, 올해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가장 활발히 활동 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져 서로 도움도 받고, 공감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해였습니다.



### 박윤정 카페마실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와 교류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올해 콤피스타에 처음 참가했는데, 판매 성과는 많지 않았지만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향연에 홍보 나가서도 재밌었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고, 내년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선 날으는자동차

2024년은 저희 기업 창단 이후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도대체 24년은 언제 오는 걸까?'를 되내이다

'물 들어 올 때까지 노를 저으리라' 추스리며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반기 들어 감사하게도 제도의 도움(대출, 인력지원)을 받게 되면서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하나, 둘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9년간 이어 온 정기공연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그래도 힘든 시기를 보내며 마음이 단단해지고, 일상의 루틴을 습관화하며, 날자 어벤져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5년은 우리 팀원들과 더 높이 비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날으는자동차 화이팅



### 박혜원 (주)히든북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2025년에도 함께하며 더 멋진 순간들을 만들어가요.

항상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

성북의 사회적경제를 통해 따뜻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체들이 함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연대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역축제에 초대되어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기회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마련해주신 구청과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성북구청과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진행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노력과 이에 화답하듯 사회적경제 기업이 만든 많은 일들이 2024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가치가 비록 작더라도 조금씩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2025년에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신선화 알록달록협동조합

올해 성사경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만남과 협업, 네트워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만나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만남을 통해 함께 실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랐거든요.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할 계기와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성사경 몽클릴레이



## 신소연 나를돌봄 서로돌봄, 봄봄

2024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사회적경제센터가 되었고  
10여년만에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새롭고 밝은 출발이 기대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참 어렵습니다.  
사회적 가치-공공성을 지키면서 경제적 가치-이익까지 창출한  
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회적경제도 살아남으려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데, 기업들이 ESG경영을 한다며 그린워싱을 하듯  
사회적 가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가치 사이에서 헤  
매다 보면 사회적 가치를 내세워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2024년 열심히 달려온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힘들어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곁에서 함께 하는 사람의 힘, 공  
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칠 때는 쉬 수 있도록 지켜주고 서로 응원하며 2025년 새로  
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모두 아자아자!



## 우수안 현존명상협동조합

성사경을 통한 자문으로 어디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저희의  
큰 숙제인 협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어주신 특강을 통해 관련 기관과도 연결되어 여러 컨설  
팅과 지원금 또한 받게 되었고요. 즐거운 행사로 기업 간 유대  
관계도 형성하고 홍보도 함께 하였습니다.  
첫 출발을 함께 해주신 성사경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유형곤 같이가치 협동조합

"함께 나누는 삶, 더불어 이루는 가치"  
2024년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 해였  
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과  
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더욱 끈끈해졌다고 느낍니다. 가  
장 좋았던 점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  
은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적경제의 모델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서로 응원하며, 함께 더 큰 가치  
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 이경숙 미디어협동조합와보송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마을미디어 활동이 축소되고 있  
는 상황에서도 와보송은 마을 속 작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전하  
며 꾸준히 우리만의 콘텐츠를 통해서 마을미디어의 가치를 모  
색해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고민과 모색을 통해 활동해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단체들과 보다 많은 연대와 협력으로 성  
북구 내에서 즐겁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보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 이남주 (주)엘마드레

성사경의 흥보가 돋보였던 2024년!!! 센터 식구들에게 깊은 감  
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 엘마드레는 힘든 상황에도 연  
대의 힘을 믿게 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위로가 얼마  
나 큰 힘인지 알게 되어 성사경의 멤버로 뿌듯합니다. 25년도  
잘 부탁드리며 어디 한번 파이팅!!!



### 이도유재 문화예술협동조합몽당

꿈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사회적경제는 몽당(꿈담은 집)의 안정적 꿈을 담게 하였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느리게, 제대로 담은 꿈 바꾸니 세상의 빛을 위해 펼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사회적경제의 모든 빛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문수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는 중요한 영역에서 변화의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이소영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프로그램 기획자에서 교육의 대상자, 현장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센터에서 진행한 시니어 건강돌봄 협력사업으로 몇개의 기업과 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 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목표 과제를 향해 모두의 개성이 드러나는 창의적인 돌봄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던 이론교육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성찰과 마음 한구석이 치유되는 색다른 교육이었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우여곡절 삶이 녹아있는 진심의 노래 28곡을 결과물로 손에 쥐고 어르신들은 최첨단 앞서가는 문화체험의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어 뿌듯해 하였습니다. 기획자·돌봄지도사·어르신 모두가 협력의 힘과 재미를 동반한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숨어있는 역량을 활용해야 했던 돌봄 지도사로서 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 이은숙 두비비협동조합

두비비협동조합은 올 3월에 탄생한 신생 기업이며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의 이사진을 맡아 성북구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원하면 선명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로 배움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성사경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네요. 앞으로도 성북구의 사회적경제가 보다 더 활발히 운영되길 기대하며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 이종근 (주)디얼연구소

어둠의 시간을 넘어 사회적경제의 새 아침을 준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북구 사회적경제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성사경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희망을 디자인합니다~ 파이팅!



### 이진숙 마을엄마협동조합

마을엄마 만들 때 성북구 사회적경제의 존재를 몰랐다가 작년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한발 살짝 디딘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한 발을 완전 담긴 느낌입니다. 사회적경제라는 존재가 이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몸소 느꼈고, 지원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어려운 점들을 들어주셔서 편안하고 든든했어요. 특히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센터를 알게 되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성사경 몽클릴레이



## 임채훈 (주)더그린제너레이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년을 보내며 꿈도 컸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았지만, 현실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사경에서 꾸준히 행사를 챙겨주시고, '모두의 향연'과 같은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성북구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 다른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유대감이 생기고 행사 참여를 통해 뿌듯함과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북구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매출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으며, 3명의 고용 창출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자리매김하며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탄탄하게 기초공사를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성북구 지역 공공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구매도 진행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정욱 협동조합에듀닥터바른배움

교육협동조합 에듀닥터바른배움은 올 한 해 「협동조합 마을학교」, 「모두의 향연」,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교육분과 협업: 성북구 청소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정릉시장 핀초포테스티벌」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협력과 연대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더 많은 협업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더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기관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 큰 성장을 이루며 상상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정유진 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아이

모두의 향연을 통해 성북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고 나아가 많은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되었던 것은 참 의미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로 떠났던 사회적경제 탐방 역시 새로운 사업적 접근과 시각을 열어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북구사경센터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조미연 서울성북지역자활센터

성북구에는 성북구로부터 인정받은 7개의 자활기업이 있으며, 올해 12월 9일 아이이세린(카페)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했으며, 내년 1월 원클린 협동조합(청소)이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성북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함께 창업한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2024년 성북지역자활센터와 성북구 자활기업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가 주최한 사회적경제 3.0 Jump Up 토론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사회적경제 워크숍 그리고 사회적경제 품평회 등 행사에 함께하였으며,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업무 협약 및 청년 인턴파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연대하고 협동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25년 성북지역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이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협동, 연대하며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자활 역할을 더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 조승희 국민대학교생활협동조합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자주 듣고 보는 문장이지만 실행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빠른 유전자 우리 몸에 새겨져 있어서 일까요? ^^  
협동조합과 사회적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우리들, 그리고 중간 지원조직인 사경센터도 느낌과 여유의 미학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고 2025년엔 더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



## 진영인 노란들판 유행회사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가치'만으로 생존하기 힘든 현실이긴 하지만

더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함께 일하는 것을 목표로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성북구사회적경제 행사에 노란들판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해주신 센터와 구청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이후로도 모두 함께 잘 살아남았으면 하는 희망을 담아봅니다.



### 최정환 협동조합 미해와머스마들

온 가족이 함께한 성북 살이가 참 행복했습니다.  
2024년은 주변을 돌아보며 공동체로 거듭난  
한 해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을 더했습니다.  
이 모두가 애써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마움 전합니다.  
2025년도 성북구 가족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가족협동조합 미해와머스마들 dream



### 최태영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성북구는 사회적경제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터전입니다.  
2024년은 성북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  
움을 겪었던 해였습니다.  
이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준비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포용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북구 사회적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활기를 찾길 기  
원합니다.



### 한종성 미술빛자루협동조합

갈수록 말라가는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많은 활동으로 빈 칸이 채워지는 2024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활용하는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사회경제를 일으  
킵니다.  
2025년은 여럿이 한 손으로 함께합니다.



### 허현주 잇다사회적협동조합

2024년은 잇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5년이 되는 해로, 스  
타트업 단계를 넘어 스케일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준비해온 '할매 품물단과 함께하는 절기야 놀  
자!' 프로그램은 성북구 공유축진 공모사업에서 당당히 1위를 차  
지하여 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키움센터 2  
곳, 지역아동센터 1곳, 그리고 작은도서관 2곳에서 꿈꾸던 사업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해 문화  
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  
공했습니다.  
또한,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교육분과에서 기획한 '성북구 청소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성북구 지역경제과의 위탁을 받아 운영  
되었습니다. 이 공동사업은 성북구의 많은 교육협동조합이 참여하  
였으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그들  
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  
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  
다.

# 성사경 몽클릴레이

## 성북구민



### 강보배 석관동

사회적경제기업이 무엇인지 알게되고, 성북구에도 이렇게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있어서, 마을에 대해 더 가까워지고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하늘 정릉동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에서 했던 행사에 남편, 아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날 돛자리 도서관에서 아이와 읽었던 <잠잠깨비> 책 이야기를 지금도 가끔 합니다. 아프리카 악기를 모두 함께 두드리며 연주했던 기억이 강렬했는지, 그 주변을 지날 때마다 아이가 "연주했던 곳이다!"라고 외쳐요. 기억에 남는 추억 만들 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 자체는 너무나 즐겁고 알차고 좋았지만, 아직도 '사회적경제'가 어떤 것인지, 왜 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안내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안미경 시니어건강돌봄리더

지난 여름, 지인의 권유로 '시니어건강돌봄지도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해, 염려와 희미한 기대 속에 실습을 시작했지요. 그러나 결과는 저를 보람과 긍정의 마음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그리고 만남의 횟수가 더할수록 친근감과 더불어 밝아지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며, 이 일이 돌봄의 대상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있는 일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보람된 한 해가 되도록 기회를 주신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의료사회에 감사드립니다



### 이다혜 성북동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 어린이 플라마켓 참가자입니다. 아이들과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보고 플라마켓에서 자리를 잡고 '골라 골라'외치고 흥정하며, 작은 경제사회를 체험해보는 하루였어요!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할 만큼 아이들에게 인상적인 하루였답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을 받고 참가자 관리에 신경 쓸 것이 많으셨을텐데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노력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쿠키만들기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가족 단위를 위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화이팅!!



### 이단희 보문동

올해 사회적경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지역주민을 만나 새로운 정보 교류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내년에도 다양한 액티비티로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내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하나 종암동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저는 친구가 알려주어서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은 잘 안 하거든요. 그 래도 카톡으로 소식 받는 게 있어서 잘 참여할 수 있었어요.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체험해보면서 좋은 거라고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화이팅!



### 안잠순 시니어건강돌봄리더

사회봉사를 하나 나도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많은 나이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뿌듯하고 보람있었습니다. 운동을 가르쳐 드리면서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노래 만들기는 어르신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듯 했습니다.



### 정미지 글그리밍공방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몰들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과 협동조합들이 참여하여 함께하게 된 쿠페스타 행사. 다양한 이벤트와 오프닝 행사로 아주 멋지게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과 함께 참여한 행사는 다양한 사회적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여서 더욱 좋았습니다. 단순한 홍보, 체험 행사를 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 소통할 수 있게 마련된 자리여서 더욱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성북구에서 자리를 잡고 시작한 소소한 저의 공방이 조금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홍보 방법 등을 더 익히고 싶어 성장프로그램이 있을까하고 찾아보던 중 접하게된 성사경 성장아카데미는 무엇보다 요즘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불문하고 꼭 필요한 인스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 너무나 유익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주셨어요. 특히 시대에 따른 챗gpt 활용법을 통해 블로그 글쓰기를 어려워하던 제게 gpt를 이용한 블로그 글쓰는일이 너무나 크게 도움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모든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주시는 성사경.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까 늘 기다려지는 1호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사경 서포터즈



### 김세화 정릉4동

서포터즈 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많은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알리게 되서 즐거웠습니다. 행사 참여 일정 등을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일정 조율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특히 후기 작성 시 사전에 검사 말아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수정 길음동

성사경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조금이나마 알리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 화이팅!



### 김은경 오페산로

올해 사회적경제센터를 만나 즐겁고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사경 강의는 조금 더 강의에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사경 마이스터 학교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대표의 강의 물론 좋았지만, 오마이컴퍼니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한 발전이나 기회에 대해 더 자세히 강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팩트없는 강의.. 우리가 바쁜 시간에 그들의 회사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고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한 걸음의 효과를 냈으면 합니다. 모두의 향연은 생각보다 많이 참여했고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품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 준비가 많이 미비했다는 게 아쉽네요. 오히려 프리마켓을 준비한 손길들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의 매출을 일으키려는 마음보다 길게 멀리 내다보는 시선으로 자기 기업을 상호를 알리는 마케팅으로 생각을 했다면 더 열심히 했을텐데.. 그러한 정신이 아직 부족하듯 하나 교육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하나 석관동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성사경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몰랐던 사회적기업들에 대해 알게되었고 늘상 하는 소비를 좀 더 의미있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하는 기업들이 많다는걸 알게 되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저처럼 사회적경제에 대해 몰랐다가 알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사경에서 많이 힘써주시고, 좋은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성사경을 항상 응원하고 주변에 널리 알릴게요! 2025년 성사경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성사경 몽클릴레이



## 박인영 하월곡동

같이 모여서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서포터즈 활동 미션의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신슬기 정릉동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많다는 것,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 사회적경제기업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케팅 비전문가이지만 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지혜 동선동

사회적 경제를 알게 되고 함께 참여하게 되어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 깊은 가을날을 채워준 성북야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쿠키도 만들고 전통놀이도 하며 아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는 사회적경제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해정 정릉동

직접 경험하고 느껴봄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육적인 부분까지 쉽게 풀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사회적경제 활동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사회적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흥해라~^^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 이동환 지역경제 과장

'2024년 성북구 사회적경제 8,760시간의 기록'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 기록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이 깃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않고 열심히 뛰어주신 사회적경제센터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북의 더 많은 공동체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진욱 사회적경제 팀장

'2024년 성북구 사회적경제 8,760시간의 기록' 발간을 통해 한해 사업을 돌아보니 하나하나 모든 사업에 진심이 담겨있고, 사회적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센터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사회적경제의 사전적 의미인 '사람 중심의 경제'의 가치를 센터 사업을 통해 담아내시고 실현하시리라 믿습니다. 2024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임현우 사회적경제팀

'2024년 성북구 사회적경제 8,760시간의 기록'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적경제센터 담당으로서 한해 발자취를 한데 모은 자료집을 보니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공감되고 반가웠습니다. 2024년의 소중한 경험과 발자취, 부디 오래오래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2025년을 기대합니다.



## 황지원 사회적경제팀

'2024년 성북구 사회적경제 8,760시간의 기록' 발간을 축하드리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회적경제 선도구 성북에서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하며, 사회적경제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성북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 유정연 사회적경제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노력이 깃든 성과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용과 연대로 함께 성장하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고와 헌신을 양분 삼아 성북구 사회적경제가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도적인 센터가 되길 희망합니다. 파이팅!



### 이지선 사회적경제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가 올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를 담은 '2024년 성북구 사회적경제 8,760시간의 기록'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귀중한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정태원 사회적경제팀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된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사례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사례집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과 그 성공적인 모델을 소개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성북구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사례집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노력과 성과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길 기원합니다.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 박진갑

기록물 제작을 위해 올해 활동 결과물들을 하나둘 모으다 보니 우리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정말 많이 애쓰는 한 해였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기록물에 담을 내용을 선별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 책자를 디자인하고 교정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흐뭇했고 보람도 컸습니다.

2024년은 어렵고 힘들다고 낙담하거나 멈추지 않고 차근차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매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틈날 때마다, 공간이 열릴 때마다 모이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즐기며 협력과 연대의 기회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발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물과 거름을 주며 8,760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든든한 생태계를 만들어왔습니다. 2025년은 성북구 사회적경제가 대지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성사경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영숙

협동에 반하다~ 연대에 몰들다!

협동과 연대는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가치일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센터의 실무자로서 가장 방점을 둔 부분이 기업간 협동과 지역과의 연대였습니다.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성사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무엇으로 협동하며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성북구 사회적경제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성사경 몽클릴레이



## 이버들

행사가 잘 되어 참여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좋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혜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지속가능한 체계의 해답을 찾고자 성북구 사회적경제로 풍당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며 '사회적경제는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백배 실감했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기업가분들과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센터장님과 팀장님, 다양한 의견과 응원을 나눠주시는 주민분들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 성사경 이름으로 참 많이 연락드렸는데, 사회적경제라는 끈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 보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끈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데도 친절하게 받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 최승미

사회적 경제를 다시 업무로 접하는 새로운 한 해였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도와주는 통로와 기회를 찾아주었던 업무로 접했다면, 올해는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준비하고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고 나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는 한층 더 깊어진 이해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늘 진심으로 생각하고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8,760시간의 기록  
포용과 연대로 함께 성장하는 성북구 사회적경제

발행처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02803 서울 성북구 종암로25길 29(종암동 80-8)  
<https://sbnet.or.kr>

발행일      2024년 12월

기획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디자인      두비비협동조합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Seongbuk



Social Economy Center